2021.7.

국회예산정책처 I 경제·산업동향&이슈 I 제19호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CONTENTS

경제·산업동향

경제·산업현안 |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 동향 및 시사점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분석
「EU 기후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 및 시사점

경제·산업이슈 |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의 특징 및 향후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1년 7월호 통권 제19호

Contents

경제·산업동향 3

Ⅰ. 경제동향 6
Ⅱ. 산업·고용동향 27
Ⅲ. 해외경제 동향 61

경제·산업현안 79

Ⅰ.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 동향 및 시사점 80
Ⅱ.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분석 87
Ⅲ. 「EU 기후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95
Ⅳ.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 및 시사점 101

경제·산업이슈 107

Ⅰ.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의 특징 및 향후 전망 108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ART 1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

Ⅰ. 경제동향 ····· 6
1. 생산 ····· 6
2. 소비 ····· 8
3. 투자 ····· 10
4. 대외거래 ····· 14
5. 소비자물가 ····· 17
6. 금융시장 ····· 19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 25

Ⅱ. 산업·고용동향 ····· 27
1. 제조업 ····· 28
2. 서비스업 ····· 41
3. 에너지 및 원자재 ····· 46
4. 고용 ····· 50
5. 인구 ····· 56
6. 부동산 ····· 58

Ⅲ. 해외경제 동향 ····· 61
1. 미국 ····· 61
2. 중국 ····· 65
3. 유로지역 ····· 67
4. 일본 ····· 71

[전세계 코로나19 현황] ····· 73
[주요 경제정책] ····· 76

주요 거시·산업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2Q	3Q	4Q	1Q	2Q	4월	5월	6월
전산업생산	1.0	-1.2	-3.7 (-3.0)	-0.9 (2.8)	-1.5 (1.6)	2.7 (1.7)		8.7 (-1.2)	7.3 (0.1)	
광공업생산	0.4	-0.4	-5.9 (-6.5)	0.2 (6.0)	0.0 (2.9)	4.4 (3.4)		12.6 (-1.6)	15.6 (-0.7)	
서비스업생산	1.4	-2.0	-3.4 (-1.3)	-1.7 (2.0)	-2.0 (0.9)	2.2 (0.7)		8.2 (0.2)	4.4 (-0.2)	
소매판매액	2.4	-0.2	2.0 (5.9)	1.6 (-1.1)	-1.2 (0.9)	6.4 (1.7)		8.7 (2.1)	3.1 (-1.8)	
설비투자지수	-5.7	6.0	5.8 (2.7)	7.7 (2.2)	2.8 (0.8)	11.9 (6.9)		17.1 (3.8)	11.0 (-3.5)	
건설기성액	-2.3	-4.1	-5.5 (-2.9)	-4.2 (-2.8)	-5.3 (2.5)	-7.2 (-3.6)		-3.2 (-2.2)	-7.6 (-4.1)	
수출(통관)	-10.4	-5.5	-20.3	-3.4	4.2	12.5	42.1	41.2	45.6	39.7
수입(통관)	-6.0	-7.1	-15.8	-8.7	-1.7	12.1	37.4	33.9	37.9	40.7
경상수지 (억달러)	596.8	752.8	61.1	240.0	322.4	228.2		19.1	107.6	
실업률	3.8	4.0	4.4	3.6	3.7	5.0		4.0	4.0	
취업자수 (천명)	301	-218	-407	-314	-441	-380		652	619	
소비자물가	0.4	0.5	-0.1	0.6	0.4	1.1	2.5	2.3	2.6	2.4
원/달러환율	1,166	1,180	1,220	1,188	1,116	1,115	1,121	1,118	1,123	1,122
국고채금리 (3년)	1.53	0.99	0.92	0.85	0.95	1.04	1.19	1.14	1.13	1.30

주: 1. ( )는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동향

경제분석국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

■ **대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상황은 2/4분기 중 빠른 개선세를 나타냄**

- 6월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세와 교역증대로 전년동월대비 39.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분기별로는 1/4분기 중 전년동분기대비 12.5%에서 2/4분기 중 42.1%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확대
- 전체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고용 회복과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감(4월 65.2만명, 5월 61.9만명, 6월 58.2만명)

■ **한편 소비와 투자 등은 지난 2개월 연속 증가세에서 감소 전환하였으나 이는 일시적 조정으로 판단**

- 5월 중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3~4월 중의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등 각각 전월대비 1.8%, 3.5% 감소
- 수출호조와 소비자심리지수, 국내기계수주 등 소비와 투자 관련 지표들의 상승세 등을 감안할 때 소매판매 회복과 설비투자 확대는 지속될 전망

■ **다만 6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6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하여 3개월 연속 2.0%대 상승률이 지속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10.4%)과 석유류(19.9%) 등 주로 공급측면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2.3%)과 5월(2.6%)에 이어 2%대 중반의 상승률을 시현**

■ **서비스물가는 집세와 외식 물가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하였으며,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는 1.2% 상승**

6월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3년)와 주가(KOSPI)는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함

■ **국고채(3년만기)금리는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전월(1.13%)보다 상승한 1.30%를 기록**

■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제지표 개선세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하락요인과 미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의 상승요인이 교차하며 전월(1,123원)대비 소폭 하락한 1,122원 수준을 시현**

■ **주가(KOSPI)는 개인투자자 순매수(5.3조원)가 지속되는 등 전월말(3,204) 대비 93pt 상승한 3,297을 나타냄**

Ⅰ.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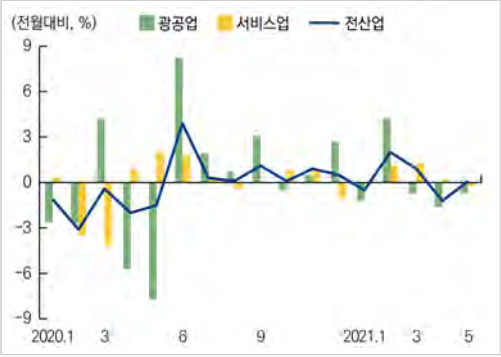
1. 생산

5월 전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줄었으나 공공행정이 늘어 전월대비 상승

■ **전산업생산은 광공업(-0.7%)과 서비스업(-0.2%)이 모두 부진하였으나 공공행정(8.1%)이 늘면서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7.3% 상승)**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5.3%), 전기장비(3.4%) 등에서 늘었으나, 기계장비(-5.6%), 자동차(-6.6%)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7% 하락(전년동월대비 15.6%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및음식점(2.5%), 정보통신업(1.2%) 등에서 늘었으나, 금융및보험(-1.0%), 도소매(-1.3%)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2% 하락(전년동월대비 4.4% 상승)

[그림 1]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주요 제조업의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과 동일,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에 비해 상승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과 동일한 73.8%를 나타냄**

- 제조업 평균가동률(%): ('21.3월)74.9→(4월)73.8→(5월)73.8

■ **제조업 출하지수는 기타기계(-5.3%), 자동차(-4.0%)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2% 하락하였으며, 재고지수는 전기장비(6.8%), 의료및정밀기기(3.8%)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1%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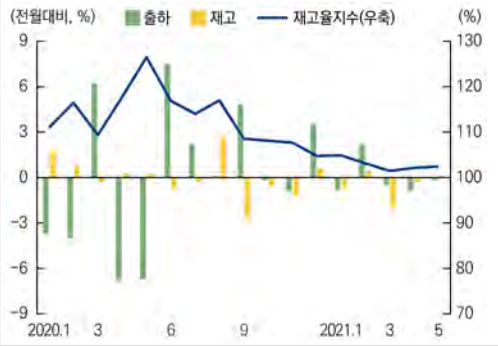
-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은 출하가 줄고 재고가 늘면서 전월(102.1%)에 비해 상승한 102.4%를 나타냄
- 재고/출하 비율(%): ('21.3월)101.5→(4월)102.1→(5월)102.4

※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지수) =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그림 3]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4] 제조업 출하 및 재고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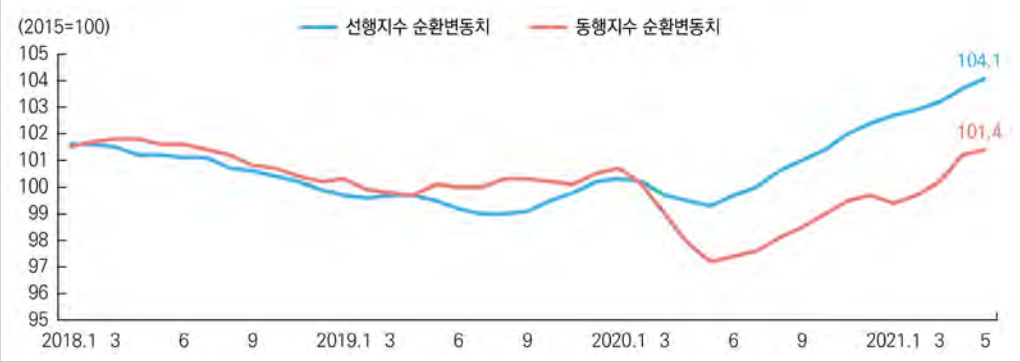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모두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101.2)에 비해 0.2p 상승한 101.4을 기록**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103.7)에 비해 0.4p 상승한 104.1을 나타냄**

[그림 5]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통계청

2. 소비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큰 폭으로 줄면서 2개월 연속 증가에서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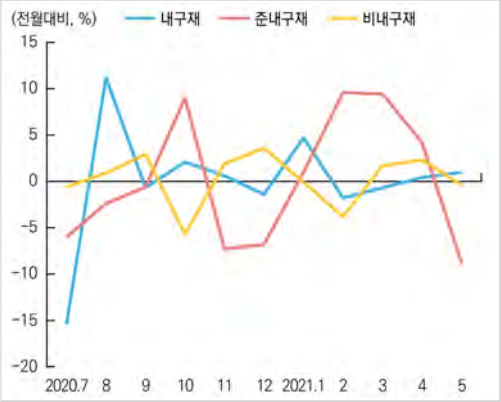
■ 5월 중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8% 감소하여 3~4월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함

■ 전년동기대비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매판매의 위축이 반영되면서 3.1% 증가

[그림 6]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7] 재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 5월 중 준내구재 판매는 2~4월 중 높은 판매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하절기 의복(-9.8%), 신발 및 가방(-13.6%) 판매가 줄면서 전월대비 8.8% 감소

- 준내구재 판매(전월대비, %): ('21.2월)9.6→(3월)9.4→(4월)4.2→(5월)-8.8

■ 비내구재 판매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차량연료 판매가 증가(1.5%)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 및 외식수요 확대에 따른 가정내 음식료품 판매가 줄면서(-0.9%) 전월대비 0.4% 감소

- 비내구재 판매(전월대비, %): ('21.2월)-3.8→(3월)1.7→(4월)2.3→(5월)-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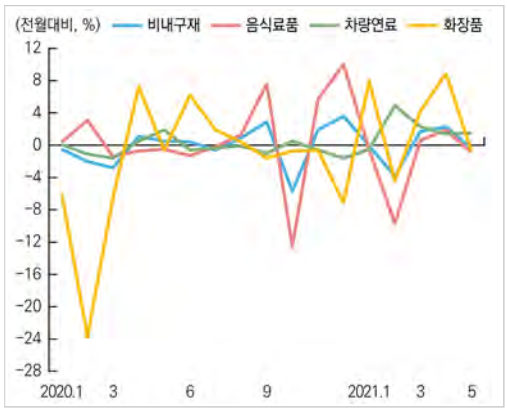
■ 내구재 판매는 가전제품(-4.0%), 통신기기 및 컴퓨터(-1.1%), 가구(-3.5%)의 판매가 모두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호조와 친환경차 판매 확대 등으로 승용차 판매가 증가(전월대비 6.3%)하면서 전월대비 1.0% 증가

- 내구재 판매(전월대비, %): ('21.2월)-1.8→(3월)-0.7→(4월)0.4→(5월)1.0

[그림 8] 준내구재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9] 비내구재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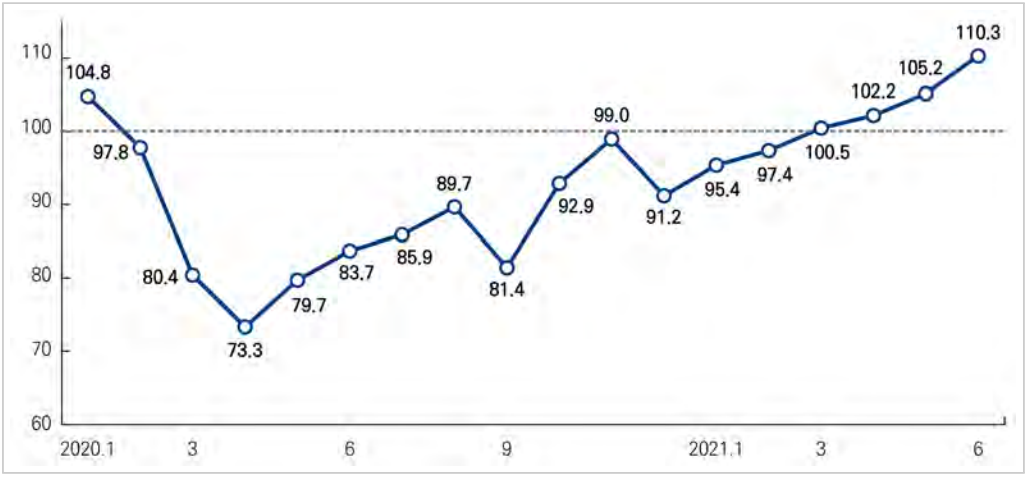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6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출 호조 및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월보다 5.1p 상승한 110.3을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2020년 12월 91.2까지 하락하였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되고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올해 3월 중 기준선(100)을 상회하기 시작한 후 6개월 연속 상승세
- 6월 중 110.3을 기록하여 2018년 1월(110.7) 이후 최고치를 경신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항목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소비지출 전망과 향후경기 판단 지수가 각각 1.7p, 1.2p의 높은 상승폭을 시현

[그림 10]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3.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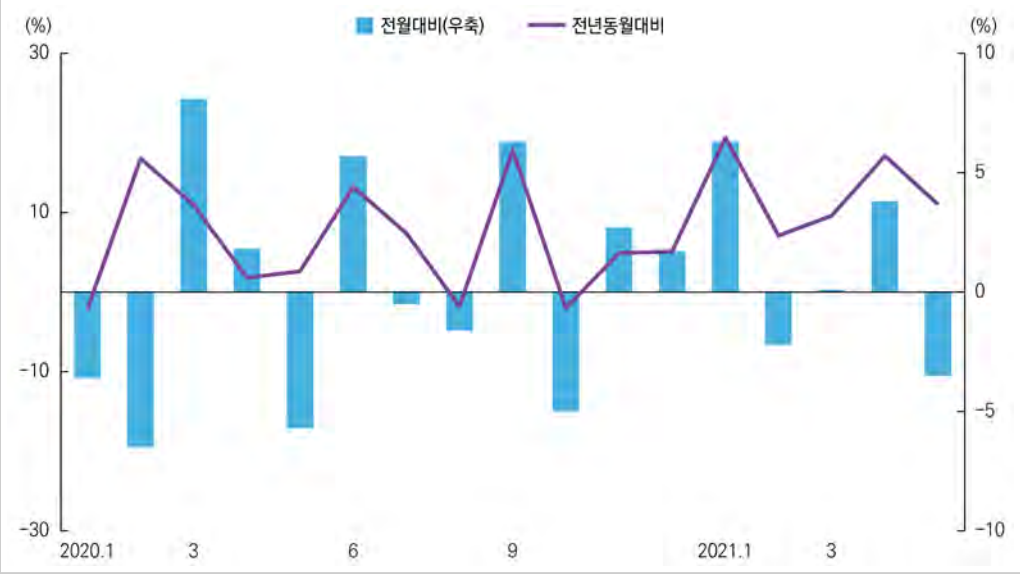
가.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서 모두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감소 전환

■ **5월 중 설비투자는 지난 2개월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기계류와 운송장비에서 각각 3.0%, 4.5% 감소하며 전월대비 3.5% 감소**

- 전년동월대비 설비투자는 운송장비(-0.3%)에서 전월(-0.7%)보다 감소폭이 축소되고 기계류(15.1%)에서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11.0% 증가

[그림 11] 설비투자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 **기계류 투자는 전기 및 전자기기(5.5%)와 정밀기기(3.9%)에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7.0%)와 기타기기(-5.1%)에서 감소하며 전월대비 3.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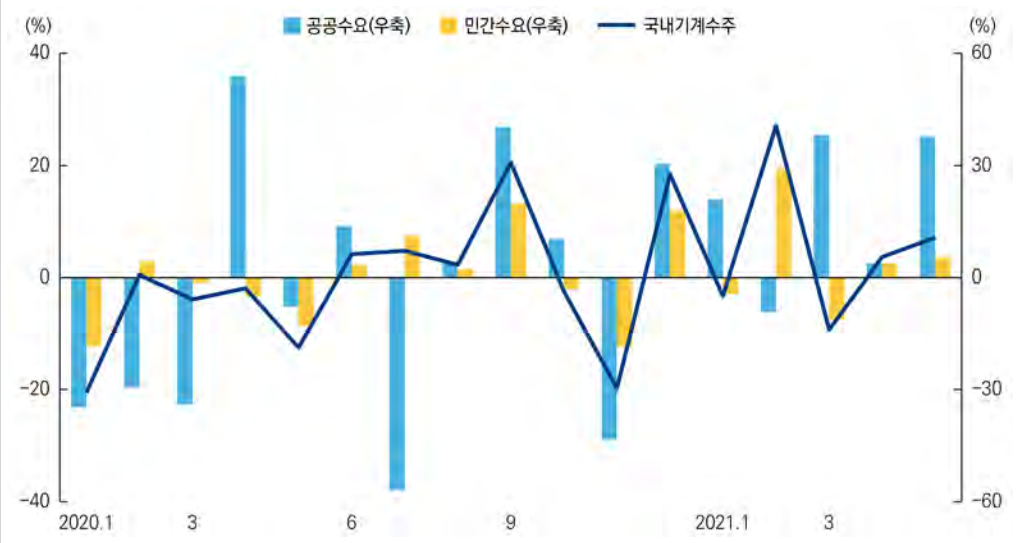
■ **운송장비 투자는 자동차(9.3%)가 전월(-0.9%)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23.0%)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월대비 4.5% 감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며 기계류 내수출하와 기계류 수입액도 증가세를 유지

■ **5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37.7%)과 민간부문(5.3%)에서 모두 증가하며 전월대비 7.1% 증가**

■ **5월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1.8% 증가하며 전월(5.4%)보다는 증가폭이 축소**

[그림 12]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 5월 중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22.2%)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226.7%)에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동월대비 27.0% 증가
- 자본재 중 반도체 제조 장비의 6월 수입액(속보치)도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하며 올해 하반기에도 반도체 산업이 설비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 **6월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관련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상승하며 기업들의 투자심리 또한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

-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BSI: ('21년 4월) 99 → (5월) 98 → (6월) 100(수출기업 105, 내수기업 96)

[그림 13]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통계청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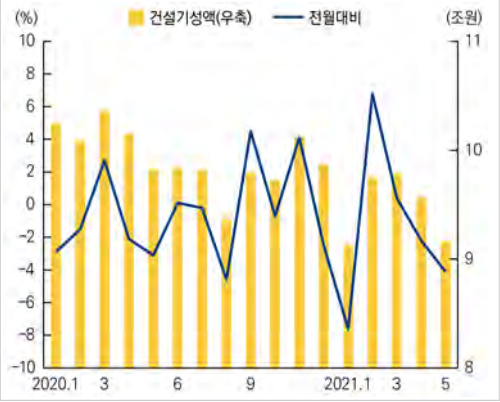
나.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건축과 토목부문이 모두 부진하여 감소세가 심화되는 모습

■ **5월 중 건설기성액(불변, 계절조정)은 건축(-2.6%)과 토목(-8.5%)이 모두 줄면서 전월대비 4.1% 감소(전년동월대비 7.6% 감소)**

- 발주자별(경상, 계절조정)로도 민간부문(-0.6%)과 공공부문(-13.6%)이 모두 감소

[그림 14] 건설기성액과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5] 부문별 건설기성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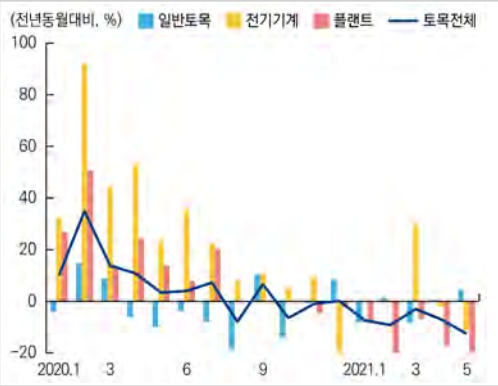
■ **경상기준 건설기성액은 건축부문이 늘었으나 토목부문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0.01% 증가**

- 세부공종별로 건축부문은 주거용(2.5%)과 비주거용(8.6%)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토목부문은 일반토목(4.2%)이 늘었으나, 플랜트(-29.6%), 전기기계(-11.2%)에서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12.6% 감소

[그림 16] 건축부문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7] 토목부문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투자의 선행지표[1]인 건설수주액과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면적은 증가세를 지속

■ **5월 중 건설수주액(경상)은 건축(-8.4%)이 줄었으나 토목(57.5%)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2.2% 증가(7개월 연속 증가)**

- 발주자별로는 민간(-8.7%)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공공(78.5%) 수주는 증가
- 건축부문 세부 공종별로 주거용 건축은 전년동월대비 42.6% 감소
- 비주거용 건축은 사무실및점포(172.0%)와 공장및창고(15.7%)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00.7% 증가
- 토목부문은 도로및교량(149.0%), 발전및통신(281.6%)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57.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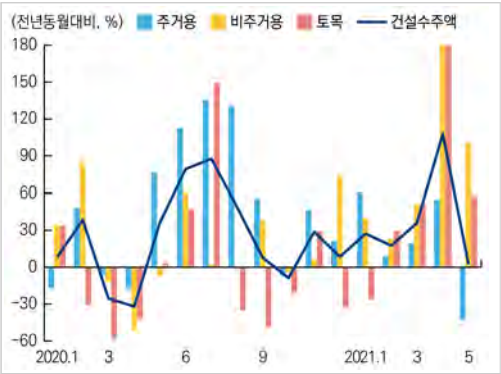
■ **5월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26.7%)과 비주거용(74.3%)에서 모두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60.9% 증가**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공업용(366.9%)과 상업용(12.9%)에서 모두 증가

1) 건축허가, 건설수주, 건축착공 등의 통계는 건설공사의 과정 중 각각 허가, 계약, 착공 단계에서 집계·발표되는 통계로서, 건설투자(건설기성; 건설공사 중 착공~준공 단계에서 추계됨)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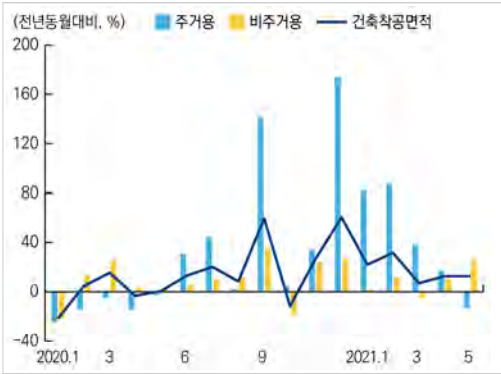
■ 5월 중 건축착공면적은 주거용(-13.2%)에서 줄었으나 비주거용(25.7%)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2.7% 증가

[그림 18] 공종별 건설수주액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9] 건축착공면적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4. 대외거래

가. 수출

수출은 주요 교역국의 경기회복세가 강화된 가운데 주력품목들이 고르게 호조를 보이며 8개월 연속 증가세

■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9.7% 늘어난 548.0억 달러로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

-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수출은 22.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6.8% 늘어 9개월 연속 증가
- 특히 15개 부문 품목과 9대 수출지역 모두에서 증가하며 역대 6월 최고 실적을 기록
- 최근 3개월 연속 40%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2/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2.1% 증가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0.7% 늘면서 7개월 연속 증가세

-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시설 가동률이 상승하고 투자 및 소비심리 회복으로 1차산품(109.4%), 중간재(38.2%), 소비재(22.5%), 자본재(16.7%) 수입이 모두 증가

■ 무역수지는 44.4억 달러로 14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였으며, 교역액은 1,051.5억 달러를 기록

[그림 20]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1] 일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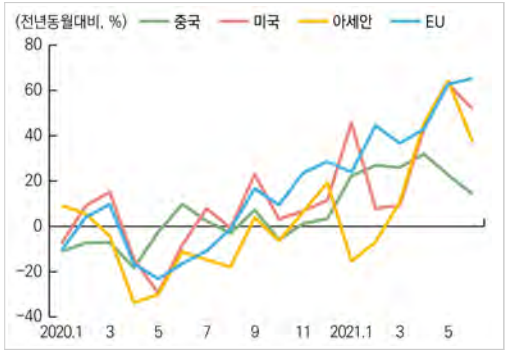
■ **전세계 교역이 회복되면서 9대 지역 모두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4대 시장(중국·미국·EU·아세안)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 유지**

- 미국으로의 수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국산 브랜드 신차모델 출시 등으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여행수요 증대로 운송용 석유제품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51.9% 증가(10개월 연속 증가)
- EU지역으로의 수출은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제조업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65.3% 증가(10개월 연속 증가)
- 중국으로의 수출은 중국내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수출입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의 수요가 확대되어 14.3% 증가(8개월 연속 증가)
- ASEAN 지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등이 선전하며 37.5% 증가(4개월 연속 증가)
- 인도로의 수출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자국내 생산에 차질이 생긴 철강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180.4%)하면서 100.2% 증가
- 중남미지역으로의 수출은 인프라건설 공사 등으로 철강수요가 증가하고, 자국내 생산이 어려운 석유화학의 수입수요가 확대되면서 106.5% 증가

[그림 22] 2021년 4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3]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규모 확대, 서비스수지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흑자폭 확대

■ **5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07.6억 달러로 전년동월 22.4억 달러에서 큰 폭으로 확대**

■ **5월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대비 수출(49.0%)이 수입(41.1%)보다 더 크게 증가하며 전년동월 26.1억 달러에서 63.7억 달러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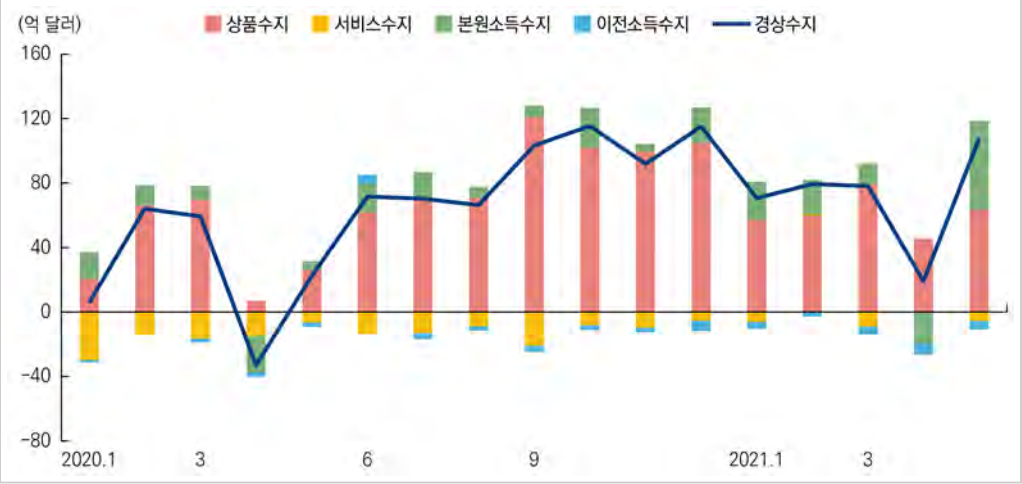
■ **5월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년동월(-6.5억 달러)보다 적자규모가 축소된 5.6억 달러 적자를 기록**

- 5월 선박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전년동월대비 284.4% 증가하면서 운송수지는 11.9억 달러 흑자를 기록
- 5월 여행수지는 해외출국자 수와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1.4억 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된 7.1억 달러 적자를 기록

■ **5월 본원소득수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5.5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크게 늘어난 54.9억 달러 흑자를 기록**

- 5월 배당소득은 전년동월 1.3억 달러 적자에서 46.8억 달러 흑자로 전환

[그림 24] 항목별 경상수지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전년도 낮은 물가의 기저효과, 공업제품과 서비스물가 상승으로 3개월 연속 2%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

■ **6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하며 4월(2.3%)과 5월(2.6%)에 이어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에 힘입어 전월과 같은 1.2%를 기록

[그림 25]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6]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 **농축수산물 물가는 과실류, 축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대비 10.4%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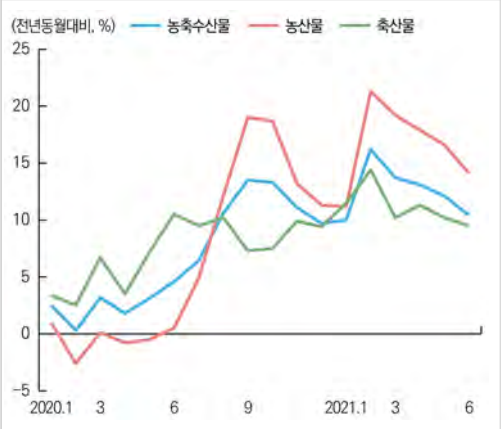
- 봄철 이상기후 등으로 채소류와 과실류 작황이 부진하여 이들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달걀 등 축산물 가격이 상승

  * 6월 중 과실류 가격 상승률이 21.9%를 기록하며 높은 상승세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여건이 개선된 채소류의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면서(5월 11.6%→6월 5.6%) 점차 농산물 물가의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

  * 6월 중 축산물 물가는 달걀 가격이 54.9% 오르면서 전년동월대비 9.5% 상승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전년동월대비 0.8%p로 2월(1.3%p) 이후 기여도가 점차 축소되는 모습

[그림 27]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8]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Bloomberg

■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지난해 석유류 가격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7% 상승**

- 국제유가가 전년동월대비 82.0% 오르면서 석유제품 가격은 19.9% 상승

  * 국제유가[2](달러/배럴): ('20.6월)39.5→('21.6월)71.8

- 이에 따라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전년동월대비 0.9%p를 기록

■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 물가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전월세 등 집세 물가와 외식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보다 0.1%p 높은 1.6% 상승하여 5개월 연속 오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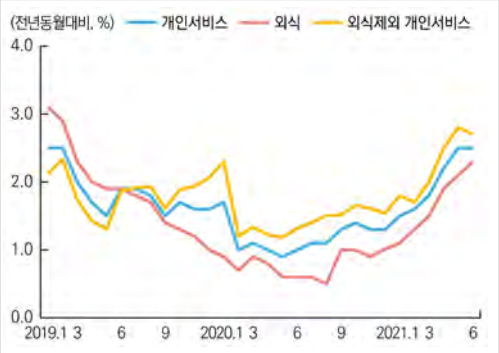
- 6월 전월세 등 집세 물가는 1.4% 상승하여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전세 1.9%, 월세 0.8%)
-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물가와 외식제외물가가 각각 2.3%, 2.7% 오르며 2.5% 상승

  * 외식물가는 외식수요 증대, 농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2.3% 올라 전월(2.1%)보다 상승폭 확대

- 공공서비스 물가는 무상교육 추가시행 효과가 지속(고등학교 납입금 전년동월대비 100.0% 하락)되고 있으나, 지난해 시행된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의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유치원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가 상승하면서 하락폭 축소 (4월 -1.0%→5월 -0.7%→5월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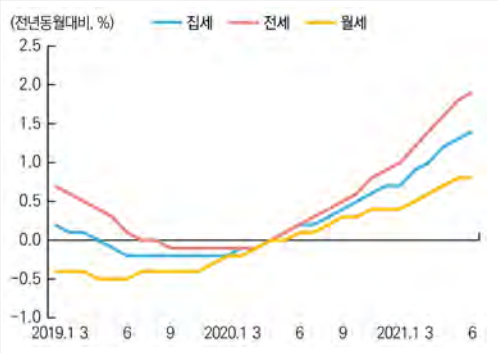
2) 두바이, 브렌트, WTI 3개 유종 평균(자료: Bloomberg)

[그림 29] 개인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30] 집세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6. 금융시장

가. 금리

국고채금리는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로 인해 3년 만기채는 상승하였으나, 10년 만기채는 수급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로 하락하여 만기별로 혼조

■ **2021년 6월 중 월평균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1.30%로 전월대비 0.17%p 상승하고 10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2.10%로 전월대비 0.03%p 하락**

- 3년 만기채금리는 한국은행 총재가 5.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금융불균형의 누적 우려하고, 6.11일 완화적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표명하는 등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월중 대체로 상승 추이를 나타냄
- 반면 10년 만기채금리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호조가 알려지면서 국고채발행 축소에 따른 수급호전 기대로 하락
- 재정 경상수입(국세 및 세외수입)이 1~4월 중 179.4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7.8%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양상

■ **5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2.6%, 6.4%로 급등하였으나 시장에서는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되었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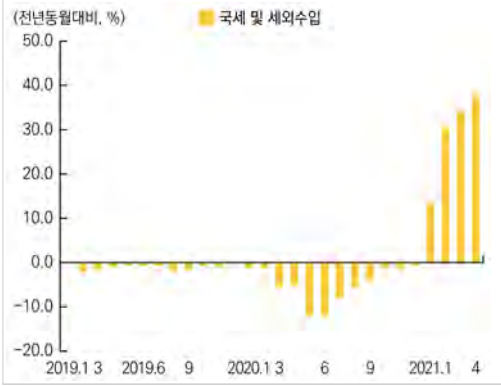
- 3년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21.4월)1.14→(5월)1.13→(6월)1.30
- 10년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21.4월)→2.04→(5월)2.13→(6월)2.10

- 국고채스프레드(10년만기-3년만기,%p): ('21.4월)0.90→(5월)1.00→(6월)0.8

[그림 31] 국고채금리(3년 만기) 추이(일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2] 재정 경상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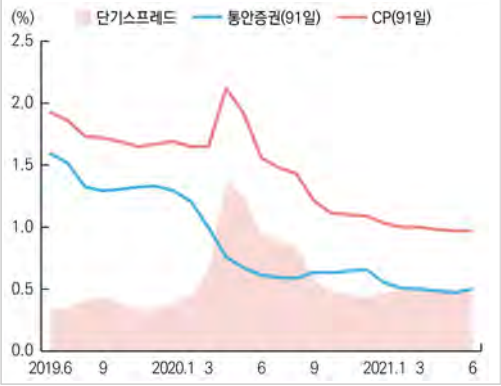


주: 당해년도 1월부터 당해월 누적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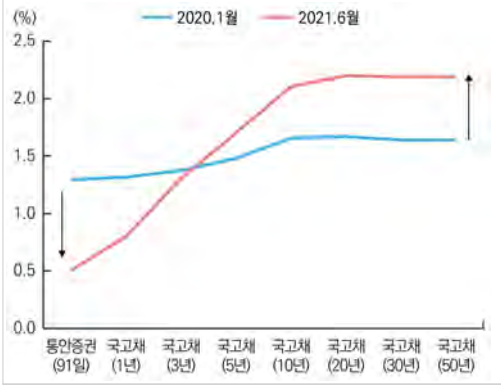
■ **단기금융시장에서는 단기유동성은 양호했으나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단기금리의 하락세가 주춤한 모습**

- 통안증권금리는 0.50%로 전월대비 0.03%p 상승하고, CP금리는 전월과 같은 0.97%에서 정체
- 2020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장기금리 상승 및 단기금리 하락세에 따라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하는 정상적 모습으로 변화
- 통안증권금리(91일물,월평균,%):('21.4월)0.49→(5월)0.47→(6월)0.50
- CP금리(91일물,월평균,%):('21.4월)0.98→(5월)0.97→(6월)0.97

[그림 33] 단기금리와 스프레드 추이



[그림 34] 수익률곡선의 변화



자료: 한국은행

2021년 6월 회사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5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리 차이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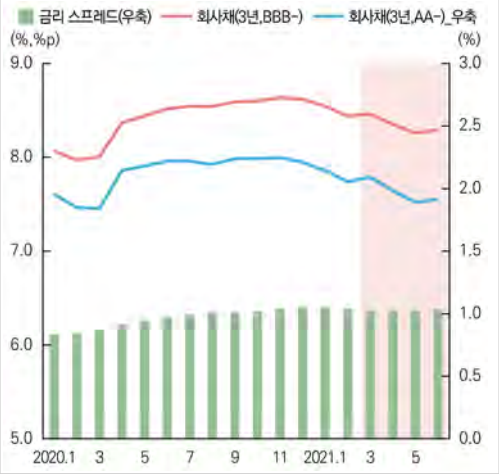
■ **2021년 6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상승**

- 6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말 대비 2bp 상승한 1.91% 나타냈으며 회사채 3년물(BBB-) 금리도 3bp 상승한 8.29%를 기록
- 6월 회사채(3년,AA-등급)와 회사채(3년, BBB-등급)간 신용스프레드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638bp을 기록

■ **2021년 5월 대기업 대출 금리는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상승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출 금리차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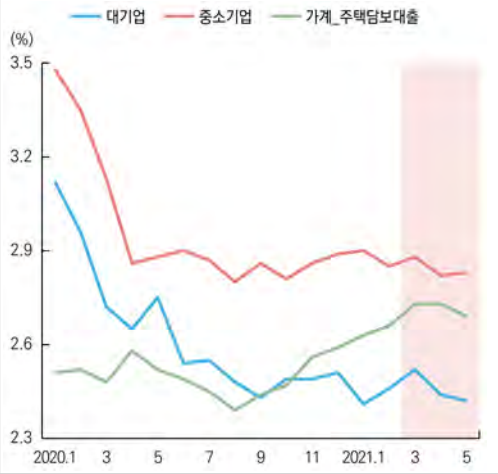
- 5월 기준 대기업 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2bp 하락한 2.42%,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대비 1bp 상승한 2.83%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출 금리차가 전월 38bp에서 41bp로 확대
- 한편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9년 8월~2021년 4월 전반적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2021년 5월 전월대비 4bp 하락한 2.69%를 기록

[그림 35]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36]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 1) 예금은행 대출 기준
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나. 환율

원/달러 환율은 한국경제지표의 개선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 등 하락요인과 미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등 상승요인이 교차하면서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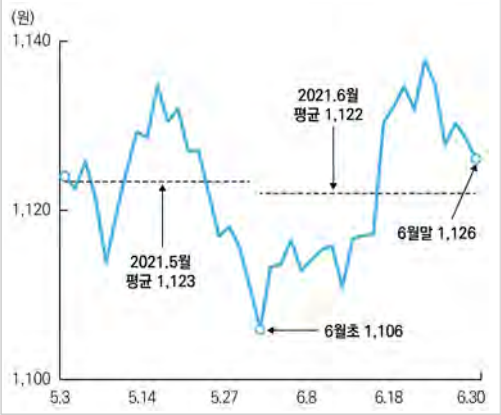
■ **2021년 6월 중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1,122원으로 전월(1,123원)에 비해 소폭 하락**

- 서비스업의 회복이 부진하지만 수출호조에 힘입어 광공업생산이 4월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에서 5월 15.6%로 증가세가 확대
-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며 한국은행 총재가 5.27일과 6.11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론화하자 원/달러 환율은 6월 초부터 6.15일까지 1,106~1,117원 구간에서 변동
- 그러나 6.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관한 논의와 연준이 발표한 정책금리 전망 점도표 상 2023년 중 2회 인상이 예상된 점으로 인해 23일 1,138원까지 급등
- 원/달러 환율(월평균):('21.4월)1,118→(5월)1,123→(6월)1,122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는 주식순매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채권순투자가 증가하여 전체 증권투자는 8.9조원 순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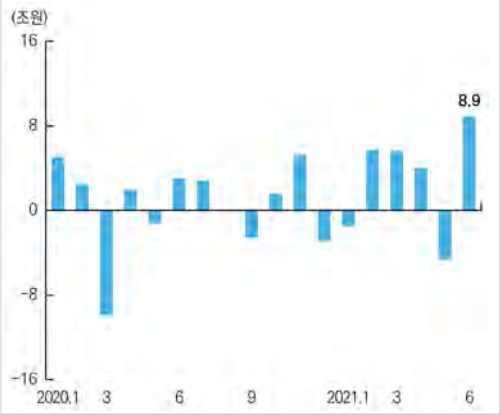
- 외국인국내증권순매수(조원): ('21.4월)4.0→(5월)-4.7→(6월)8.9

[그림 37] 원/달러 환율 추이(일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8]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추이



주: 주식순매수와 채권순투자의 합
자료: 금융감독원

다. 주가

2021년 6월 우리나라 주가는 경제 정상화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주가는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혼조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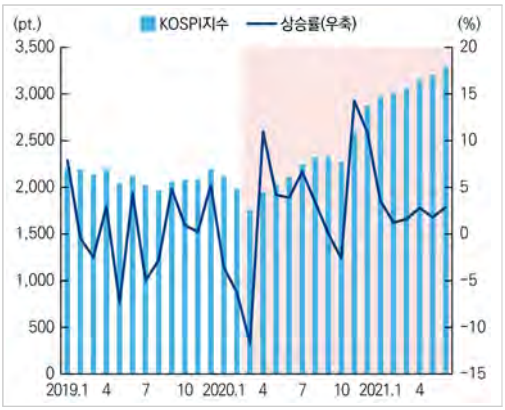
■ **2021년 6월 국내 주가는 경제여건 개선 기대, 개인투자자 순매수 지속 등으로 상승**

- 6월말 KOSPI지수는 전월말(3,204) 대비 2.9%(93pt) 상승한 3,297을 기록
- 개인 투자자는 2020년 12월 이후 순매수를 지속하는 가운데 2021년 6월에도 5.3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

■ **한편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이나 유가증권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잔고를 의미하는 신용잔고는 2020년 3월 이후 전반적 증가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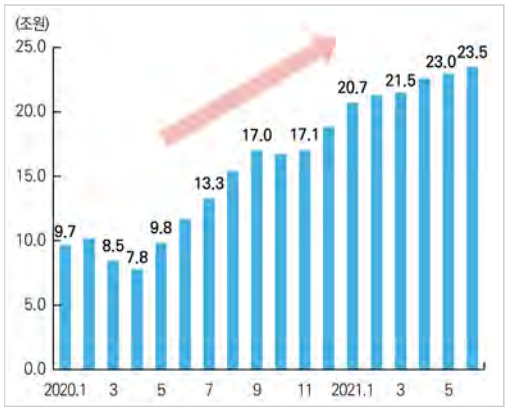
- 2020년 3월말 7.8조원에서 2021년 6월말 23.5조원으로 2.8배 증가
- 신용잔고의 증가는 향후 주가의 하방압력이 높아질 경우 개인 투자자금과 관련된 신용리스크 및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

[그림 39] KOSPI 주가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40] 신용잔고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 **6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백신접종 증가, 경제 성장 가속화 기대에도 불구 주요국의 물가 불안에 따른 통화정책 기조 변화 우려 등으로 혼조 양상**

- 6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 대비 1.4% 상승하였으나 신흥국 주가는 0.1% 하락
- 한편 6월말 기준 미국, 일본 주가는 전월 대비 각각 0.1%, 0.2% 하락하였으나 독일 주가는 0.7% 상승

[그림 41]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42]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라. 신용위험

2021년 6월 우리나라 신용위험 지표는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 글로벌 신용위험 지표들은 경기회복 기대와 대외불확실성 확대 영향이 상충되며 차별화

■ **2021년 6월 한국의 신용위험지표는 경제여건 개선 기대, 한국은행의 확장적 정책기조 지속 등으로 전월대비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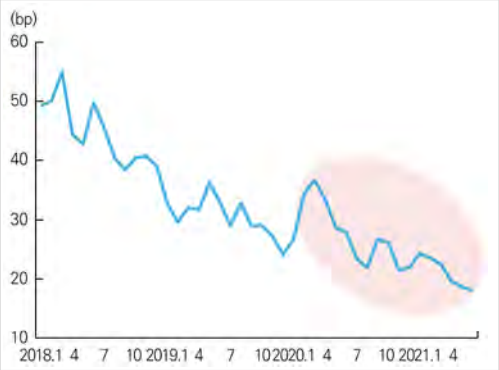
- 2021년 6월말 기준 한국의 CDS프리미엄[3]은 전월대비 0.6bp 하락한 18.0bp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7년 6월말 이후 최저 수준

■ **신흥국 채권가산금리[4]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우려 등으로 상승한 반면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하락**

- 2021년 6월말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전월대비 5.1bp 상승한 356.1bp를 나타냈으며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대비 6.3bp 하락한 185.4bp를 기록

3)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
4)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짐

[그림 43] 한국 CDS프리미엄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44] 글로벌 신용위험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중앙정부 총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기금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1년 5월 총수입은 43.7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9조원 증가**

■ **국세수입은 28.4조원으로,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5]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0.8조원 증가**

- 소득세는 15.0조원으로, 증권과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6][7]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7.2조원 증가
- 법인세는 8.0조원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8]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6조원 증가
- 부가가치세는 -0.8조원으로,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세액[9]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0.6조원 감소

■ **세외수입은 1.6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2조원 감소**

■ **기금수입은 13.7조원으로, 기여금수입 및 재산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2조원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은 9.3조원으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자산운용수익(+0.6조원)과 기여금수입(+0.4조원)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0조원 증가

---

5) 종합소득세, 교통세 등의 작년 납부의무세액이 작년 하반기 또는 금년으로 이월 및 납부 유예되면서 나타난 기저효과(약 11.1조원)를 제외할 경우 국세수입은 전년동월대비 누계 약 32.5조원 증가에 해당
6) 증권거래대금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32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
7) 주택매매거래량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3만호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
8)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5조원으로 전년대비 19.8% 증가하였고 소매판매지수는 2021년 2월 전년동월대비 8.2%, 3월 11.1%, 4월 8.7%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9)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수출재화 구입이나 생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표 1] 중앙정부 총수입 현황

(단위: 조원)

	2020년				2021년(잠정)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5월	1~5월	추경	5월	1~5월	5월	1~5월
총수입	470.7	478.8	31.9	198.2	483.0	43.7	261.4	11.9	63.2
국세수입	279.7	285.5	17.6	118.2	282.7	28.4	161.8	10.8	43.6
- 소득세	88.5	93.1	7.8	36.6	89.8	15.0	51.6	7.2	15.0
- 법인세	58.5	55.5	4.4	26.1	53.3	8.0	37.9	3.6	11.8
- 부가가치세	64.6	64.9	△0.2	29.2	66.7	△0.8	33.6	△0.6	4.3
- 기타	68.1	72.0	5.4	26.3	72.9	5.4	38.7	1.6	2.6
세외수입	29.1	26.9	1.8	12.4	29.3	1.6	14.6	△0.2	2.2
기금수입	161.9	166.2	12.5	67.6	171.0	13.7	85.0	1.2	17.4
-사회보장기여금[1)]	95.8	100.0	8.3	40.5	99.5	9.3	55.7	1.0	15.2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기여금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중앙정부 총지출은 코로나 피해 지원과 방역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21년 5월 총지출은 47.9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조원 감소

- 예산은 35.5조원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0.9조원), 기초연금(+1.0조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0조원 감소
- 기금은 12.3조원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고용안정 지원[1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조원 증가

※ 참고로 2021년 5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71.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명(3.8%) 증가

[표 2] 중앙정부 총지출 현황

(단위: 조원)

	2020년				2021년(잠정)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5월	1~5월 누계	추경	5월	1~5월 누계	5월	1~5월 누계
총지출	554.7	549.9	49.8	259.5	572.9	47.9	281.9	△1.9	22.4
예산	377.5	374.4	38.5	188.7	382.3	35.5	193.0	△3.0	4.3
일반회계	323.5	320.8	35.2	162.0	321.6	28.8	160.3	△6.3	△1.7
특별회계	54.0	53.6	3.3	26.8	60.8	6.7	32.7	3.4	5.9
기금	177.3	175.2	11.3	70.6	190.6	12.3	86.5	1.0	15.9
사회보장성기금[1)]	61.2	59.1	4.9	23.8	62.9	5.4	27.7	0.5	3.9
세입세출외	-	0.4	0.0	0.1	-	0.0	2.3	△0.0	2.2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10) 구직급여(+1.0조원), 고용유지지원금(+0.4조원), 내일배움카드(+0.1조원) 등을 포함

산업·고용동향

경제분석국

5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소폭 감소

■ 조선업을 제외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와 가전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생산이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6.0%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생산의 감소로 1.0% 감소

6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도 증가

■ 수출액 기준 1, 3, 4위인 반도체, 일반기계, 화학이 모두 역대 6월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10개 산업이 두자릿 수 증가율을 나타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3.2%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도 8.7% 증가

5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금융 및 보험업의 호조로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야외활동이 늘면서 도매 및 소매(3.2%), 예술·스포츠·여가(19.8%) 부문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금융 및 보험업(7.4%)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감소(-0.2%)로 전환

6월 석유와 석탄, 가스 가격이 모두 상승하면서 수입에너지가격지수가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농산물과 식품지수 등 원자재 가격도 전년동월대비 상승

■ 6월 원유와 석탄 가격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109.1%, 148.9% 상승하였고 농산물 및 식품 지수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30.6%, 38.7% 크게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농산물과 식품, 귀금속 및 금속광물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

고용은 서비스업 고용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

■ 6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유지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회복,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8.2만 명(2.2%) 증가하였으나 전월(61.9만 명, 2.3%)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

- 서비스업(48.3만 명)에서 대면서비스업종의 부진이 지속되며 증가폭이 전월(47.2만 명)에 비해 축소되었고, 제조업(-1.0만 명)에서는 3개월 만에 감소 전환
- 7월 중 고용은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

6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수도권(0.86%→1.04%) 및 지방(0.55%→0.56%)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국은(0.70%→0.79%) 상승폭 확대

Ⅱ. 산업·고용동향

1. 제조업

5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소폭 감소

■ **조선업을 제외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와 가전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생산이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6.0% 증가**

- 무선통신기기 부문과 가전 부문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2.8%, 94.6%로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동안 부진했던 섬유와 석유 부문 또한 전년동월대비 각각 28.6%, 9.1% 증가
- 조선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7% 감소

■ **전월대비로는 가전 부문의 생산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 부문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체 생산이 1.0% 감소**

- 제조업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전월대비 생산은 6.6% 감소하였고, 일반기계 부문도 5.6% 감소
- 반도체 부문 생산은 전월대비 5.3% 증가하였고,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전 부문의 생산은 전월대비 18.5% 증가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0			2021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13.7	101.6	97.0	119.0	115.0	112.5	-1.0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6	-5.3	-11.0	4.7	13.2	16.0	
반도체	42.1	16.9	25.8	25.5	29.8	26.9	5.3
자동차	3.8	-20.2	-36.8	-0.6	20.1	32.1	-6.6
화학	0.4	-4.8	-12.3	8.1	12.3	18.4	-1.4
일반기계	7.4	1.6	-7.7	7.1	17.5	18.8	-5.6
철강	-1.3	-6.8	-15.5	-1.0	5.9	14.4	-2.7
조선	18.0	6.8	4.0	-17.4	-13.8	-16.7	-1.2
석유	3.1	-13.7	-7.1	-9.3	5.6	9.1	3.3
섬유	0.2	-25.6	-31.0	0.0	25.5	28.6	-2.3
무선통신기기	-4.2	-24.1	-26.8	18.6	51.6	52.8	-7.4
가전	3.1	-5.2	5.5	34.4	82.9	94.6	18.5
컴퓨터 주변장치	-13.1	-6.1	-17.0	-4.9	1.8	16.8	4.1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2021년 6월 주요 11대 산업[1]의 수출은 수출액 기준 1, 3, 4위인 반도체, 일반기계, 화학이 모두 역대 6월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10개 산업이 두자릿 수 증가율을 나타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2]

■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10개 산업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3.2%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

- 전월대비로도 석유, 무선통신기기 등 2개 산업을 제외한 전산업이 증가하며 8.7% 증가

[표 2]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0				2021					
	3월	4월	5월	6월	3월	4월	5월	전월대비	6월	전월대비
11대산업	-5.4	-31.7	-27.2	-15.5	16.0	46.6	49.3	0.3	43.2	8.7
반도체	-2.7	-14.9	7.0	0.0	8.6	30.2	24.5	7.5	34.4	11.1
자동차	2.1	-41.0	-58.4	-37.0	14.3	81.4	117.1	-14.2	75.0	13.1
화학	-11.3	-34.2	-34.9	-11.6	48.5	83.3	94.9	-2.5	68.5	1.7
일반기계	-4.2	-20.2	-27.9	-7.0	6.1	17.1	25.9	-0.7	21.5	10.0
철강	-6.6	-24.3	-34.8	-20.5	12.9	38.9	62.8	3.9	51.7	7.7
조선	-31.4	-60.9	35.7	-28.3	62.8	14.4	-14.9	12.0	41.2	42.4
석유	-23.9	-62.3	-67.3	-45.7	19.2	99.2	166.8	4.8	79.6	-3.6
섬유	-9.2	-35.7	-44.3	-22.8	8.9	46.5	57.5	-2.2	36.8	4.6
무선통신기기	13.2	-33.5	-22.3	-11.7	5.9	79.8	41.4	-17.3	3.5	-12.4
가전	-0.4	-32.5	-38.4	-5.4	17.9	69.3	89.3	-0.7	47.6	6.9
컴퓨터 주변장치	14.1	-5.4	3.3	15.2	2.6	22.0	22.4	12.3	22.5	10.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1)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2) 6월 수출액 1~5위(억 달러): 반도체 111.6, 자동차(부품 포함) 60.1, 일반기계 47.1, 화학 46.4, 철강 31.2

반도체 산업의 5월 생산과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전월대비 생산은 다시 증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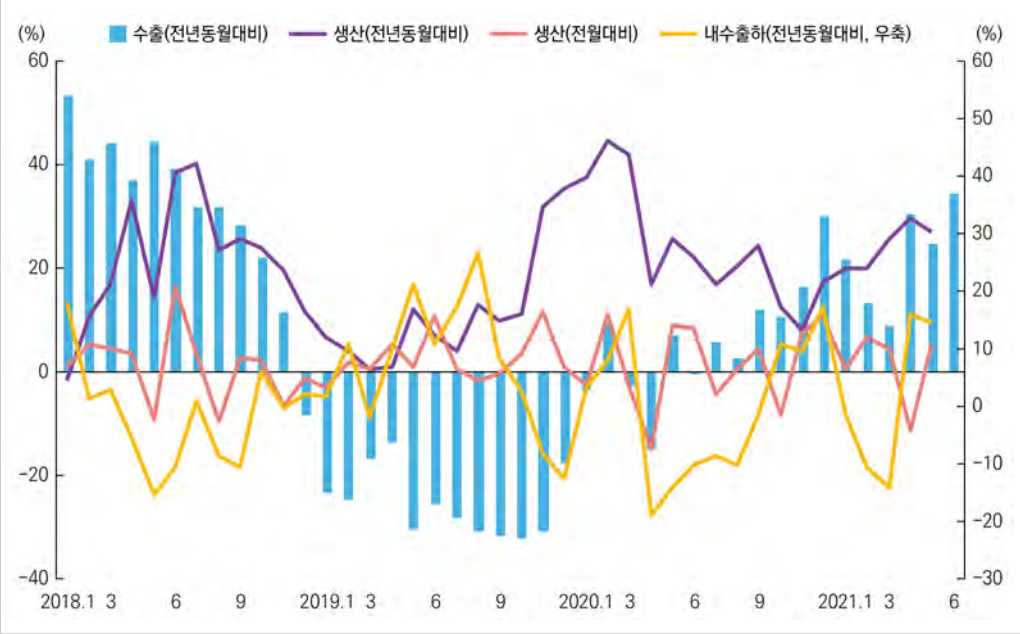
■ **반도체 수요의 상승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내수출하 및 수출출하 모두 증가하면서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6.9%, 전월대비 5.3%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3월)25.3 →(4월)29.8 →(5월)26.9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21. 3월)4.3 →(4월)-10.9 →(5월)5.3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3월)-14.0 →(4월)16.2 →(5월)14.3

■ **6월 중 수출은 해외시장에서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주변장치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34.4% 크게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3월)8.6 →(4월)30.2 →(5월)24.5 →(6월)34.4

[그림 1] 반도체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동차 산업의 5월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에 따라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6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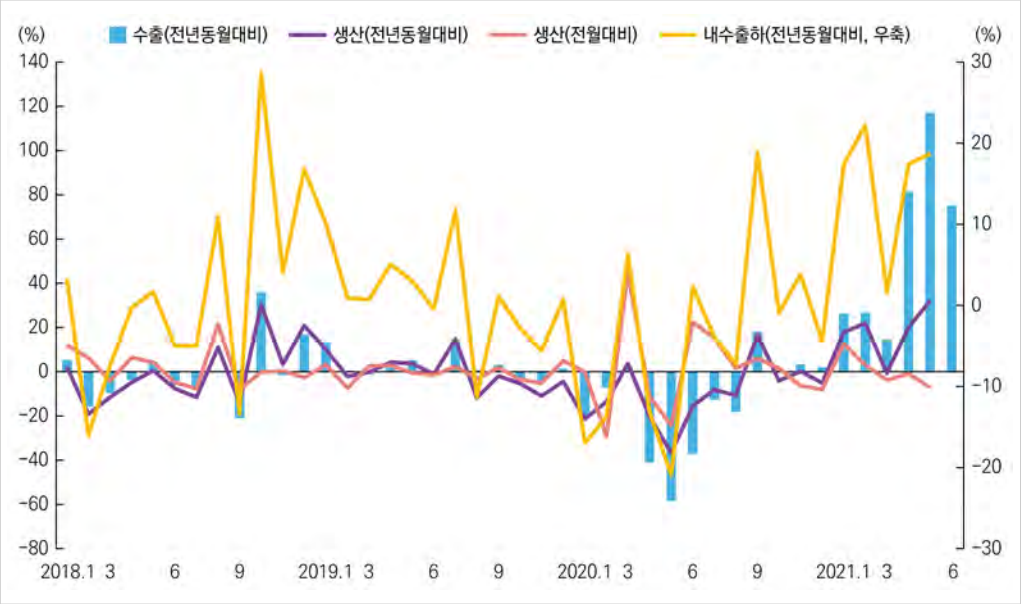
■ **5월 생산은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생산량 조정으로 전월대비로는 6.6%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2.1% 증가**

- 5월 중 현대자동차 울산 및 아산공장과 기아 소하리공장, 한국GM의 부평창원공장이 일부 감산을 했으나, 미국, 일본, 독일보다는 높은 생산을 유지
- 내수출하는 신차효과와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8.7%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1.6→ (4월)20.1→ (5월)32.1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3월)-4.8→ (4월)-0.9→ (5월)-6.6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1.6→ (4월)17.4→ (5월)18.7

■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5.0% 증가했으며, 전월대비로도 13.1% 증가하여 금년 3월 이후 4개월 연속 2019년 월평균 수출액(54.6억 달러)을 초과하는 호조세를 보임

- 고부가가치 차종의 수출 증가로 완성차 수출은 수출대수 증가뿐만 아니라 수출단가도 상승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14.3 → (4월)81.3 → (5월)117.1→ (6월)75.0

[그림 2] 자동차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화학산업의 5월 생산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6월 수출 또한 가파른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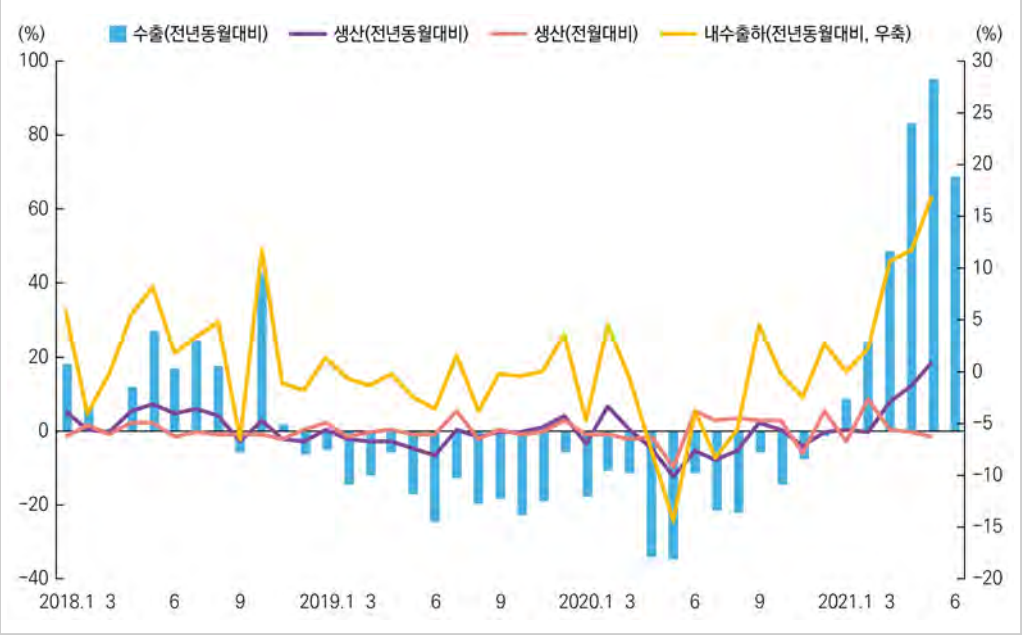
■ **5월 중 생산은 국내외 시장에서 중간재 소비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8.4%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1.4%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3월)8.1 →(4월)12.3 →(5월)18.4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 3월)0.1 →(4월)-0.3 →(5월)-1.4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3월)10.5 →(4월)11.8 →(5월)16.8

■ **최근 이차전지와 플라스틱 생산용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8.5% 크게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3월)48.5 → (4월)83.3 → (5월)94.9 → (6월)68.5

[그림 3] 화학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기계 산업의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6월 수출도 전후방 산업들의 수출 증가세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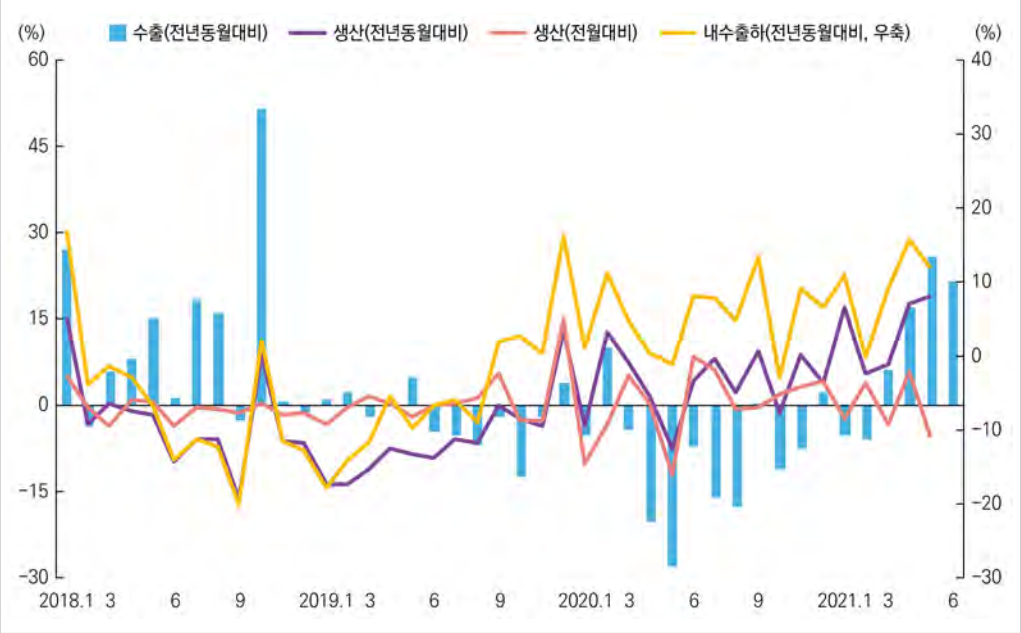
■ **5월 생산은 내수출하의 큰 폭 증가와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하며, 1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7.1 → (4월)17.5 → (5월)18.8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3월)-3.3 → (4월)5.8 → (5월)-5.6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9.1 → (4월)15.7 → (5월)11.9

■ **6월 수출은 반도체, 전자전기 등 전후방 산업들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기계설비 수출이 증가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과 인도, 중남미 등 신흥국 대상 건설기계 수출이 증가하는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21.5%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6.1 → (4월)17.1 → (5월)25.9 → (6월)21.5

[그림 4] 일반기계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철강 산업의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6월 수출도 수출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방산업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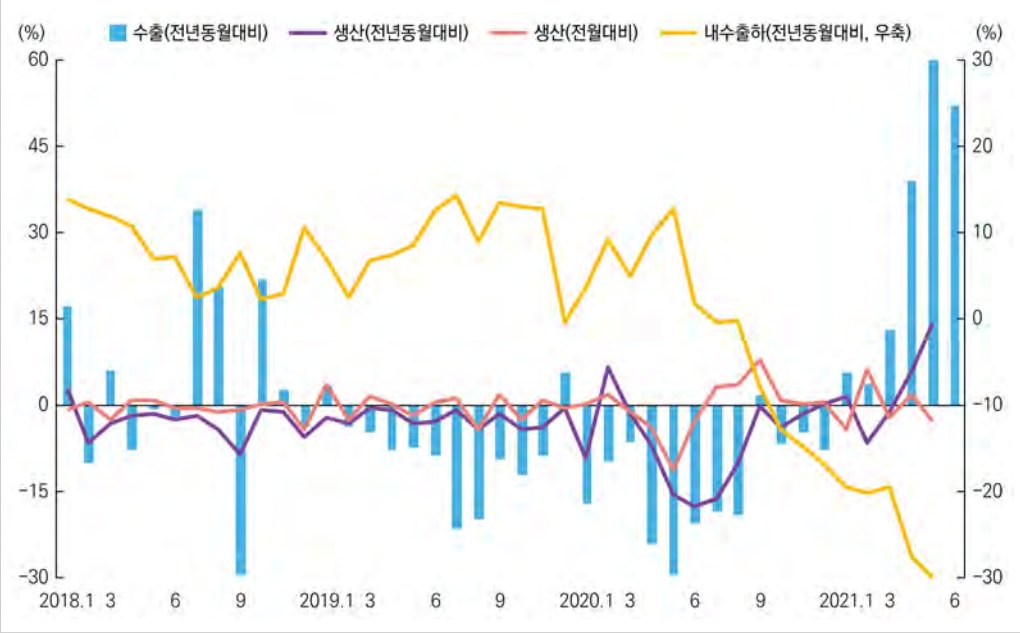
■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4%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2.7% 감소하였고, 내수출하는 국내 공급부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1.0 → (4월)5.9 → (5월)14.4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3월)-2.0 → (4월)2.2 → (5월)-2.7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19.3 → (4월)-27.5 → (5월)-30.0

■ **6월 수출은 원자재 가격 강세와 글로벌 철강수요 회복세로 수출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 경기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51.7%)**

- 철강재 수출 단가(달러/톤): ('20.6월) 724 달러 → ('21.6월) 1,156 달러[3)]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12.9 → (4월)38.9 → (5월)62.8 → (6월)51.7

[그림 5] 철강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잠정치임

조선 산업의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월 수출은 증가로 전환

■ **5월 중 수주는 컨테이너선과 LNG선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46.1% 증가한 164만 CGT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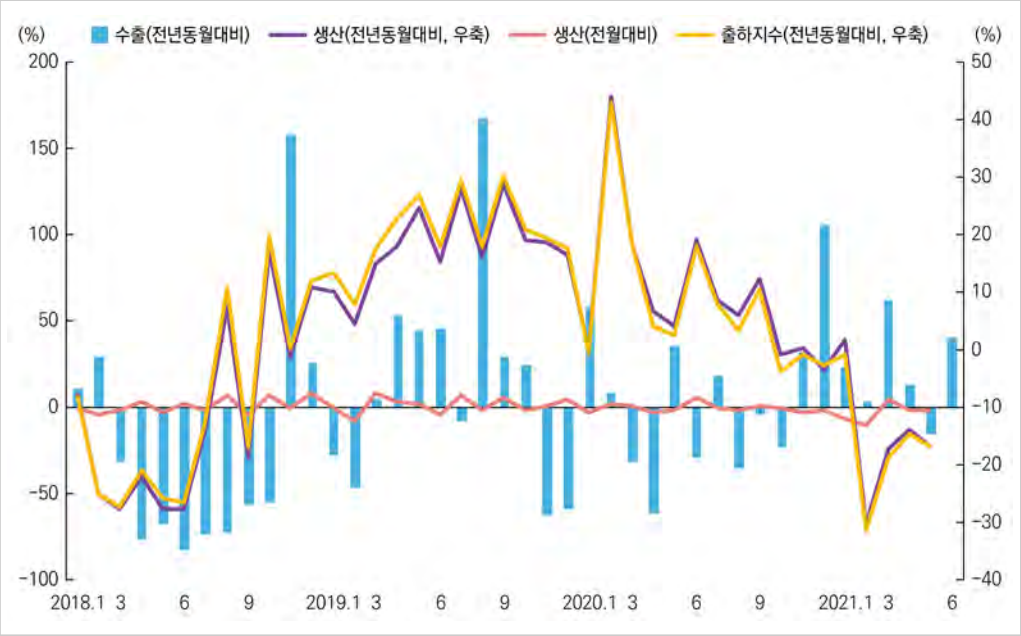
■ **생산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20년 3월~5월 간 수주(66만 CGT)가 전년동기대비 55.7% 줄어든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6.7% 감소하였으며, 출하도 16.9%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17.4 → (4월)-13.8 → (5월)-16.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3월)4.0 → (4월)-1.2 → (5월)-1.2
- 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18.8 → (4월)-14.8 → (5월)-16.9

■ **6월 중 수출은 41.2억 달러로 주력 선종인 탱커(Tanker)[4] 및 가스선 등이 수출되면서 41.2% 증가로 전환**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62.8 → (4월)14.4 → (5월)-14.9 → (6월)41.2

[그림 6] 조선 산업 생산·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유조선,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LNG 운반선 등

석유산업의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했으며, 6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하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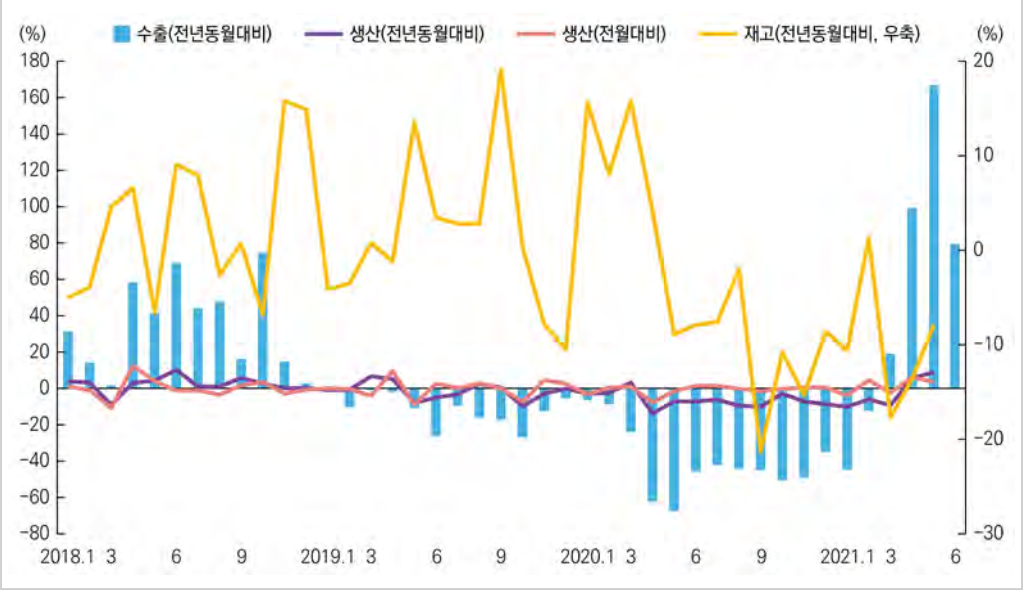
■ **5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1%, 전월대비 3.3% 상승하였으며, 일평균 1억 배럴을 생산하여 2019년 월평균 생산량 대비 96.6%까지 상승**

- 석유제품에 대한 내수출하수요는 2019년 월평균 대비 98.6%까지 높아졌으나, 수출수요는 92%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9.3→ (4월)5.6 → (5월)9.1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3월)-2.4→ (4월)6.3 → (5월)3.3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17.7 → (4월)-13.6 → (5월)-7.9

■ **6월 수출은 기저효과와 유가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79.6% 증가하였으나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제활동 회복 지연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함**

- 6월 수출액(29.5억 달러)은 전년동월(16.4억 달러)보다는 높으나 전월(30.6억 달러)보다는 낮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평균(33.9억 달러)이나 2018년 월평균(38.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여 예년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함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19.2→ (4월)99.2→ (5월)166.8→ (6월)79.6

[그림 7] 석유 산업 생산·재고·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섬유 산업의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6월 수출도 글로벌 섬유 수요의 회복과 아세안 등 주요 소싱국에 대한 수출 급증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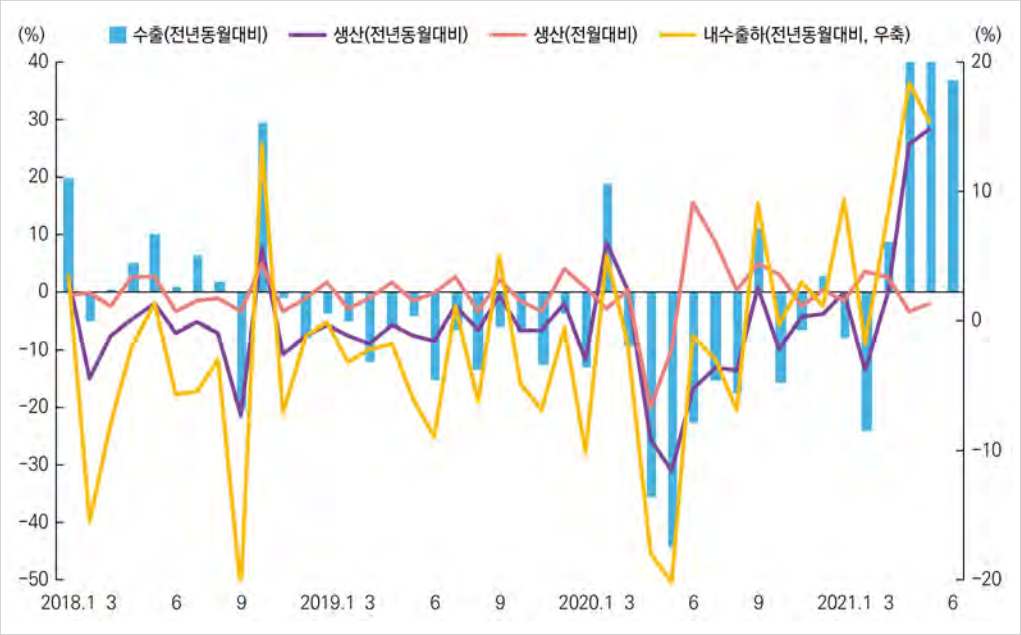
■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8.6%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2.3%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0.0 → (4월)25.5 → (5월)28.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3월)2.5 → (4월)-3.6 → (5월)-2.3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8.2 → (4월)18.3 → (5월)15.2

■ **6월 수출은 글로벌 섬유 수요회복 및 의류 등의 펜트업(Pent-up) 효과(여건이 나아지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와 미국 및 EU 등의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업황 개선으로 섬유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36.8%)**

- 6.1~25일 수출액 및 증감율(억 달러, %): 아세안(3.8, 59.1), 미국(1.3, 26.9), 중국(1.2, 25.0)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8.9 → (4월)46.5 → (5월)57.5 → (6월)36.8

[그림 8] 섬유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무선통신기기 산업은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5월 생산과 6월 수출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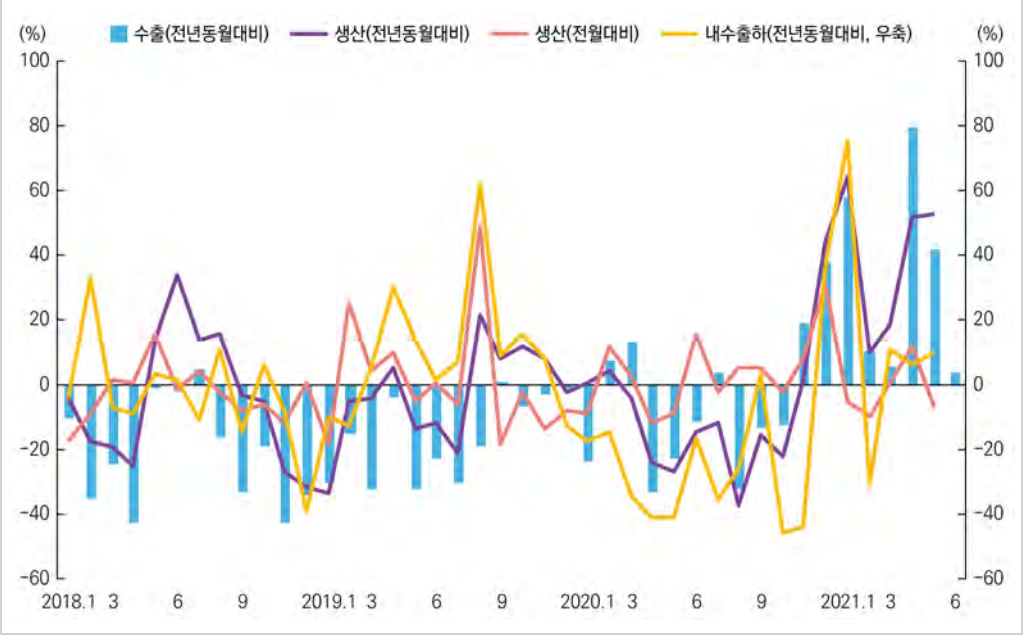
■ **5월 중 생산은 통신기기의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52.8% 증가하였고,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며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6.5% 늘면서 재고 증가폭(0.8%)이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18.6 → (4월)51.6 → (5월)52.8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3월)0.6 → (4월)11.8 → (5월)-7.4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11.3 → (4월)6.0 → (5월)10.3

■ **6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한 10.5억 달러로 유럽 시장과 인도·중동 등 신시장 중심의 5G 스마트폰 판매호조로 8개월 연속으로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5.9 → (4월)79.8 → (5월)41.4 → (6월)3.5

[그림 9] 무선통신기기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전 산업은 5월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6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높은 증가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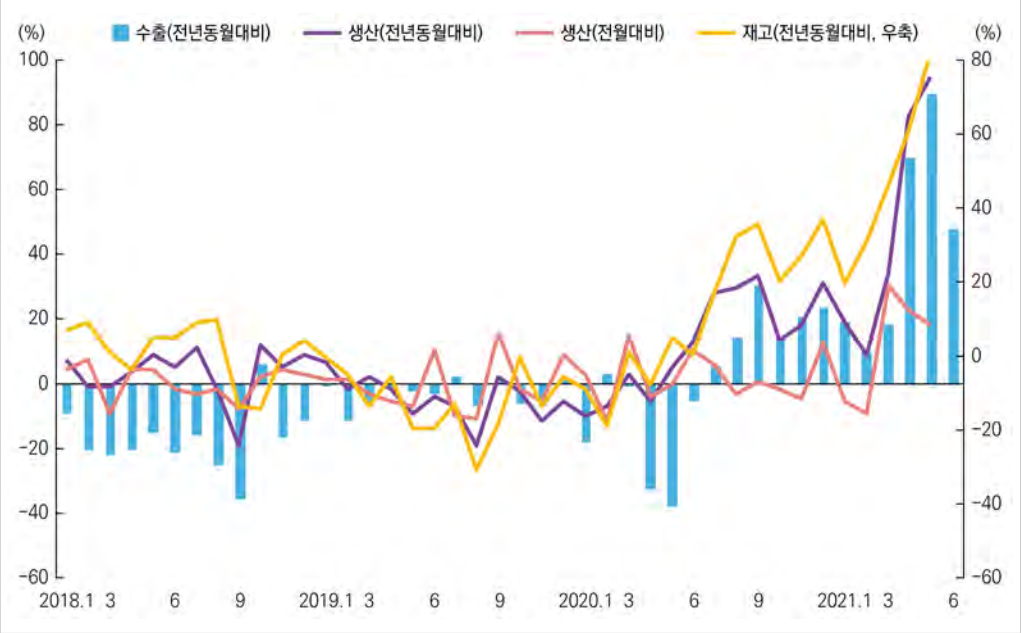
■ **5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4.6% 증가하고 전월대비로도 18.5% 증가한 가운데, 가전제품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면서 수요 확대에 대비한 재고축적으로 재고도 전년동월대비 82.1%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34.4 → (4월)82.9 → (5월)94.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3월)30.1 → (4월)22.7 → (5월)18.5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46.1 → (4월)60.8 → (5월)82.1

■ **6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7.6% 증가한 7.6억 달러로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EU로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12개월 연속으로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17.9 → (4월)69.3 → (5월)89.3→ (6월)47.6

[그림 10] 가전 산업 생산·재고·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의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하였고, 6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가파른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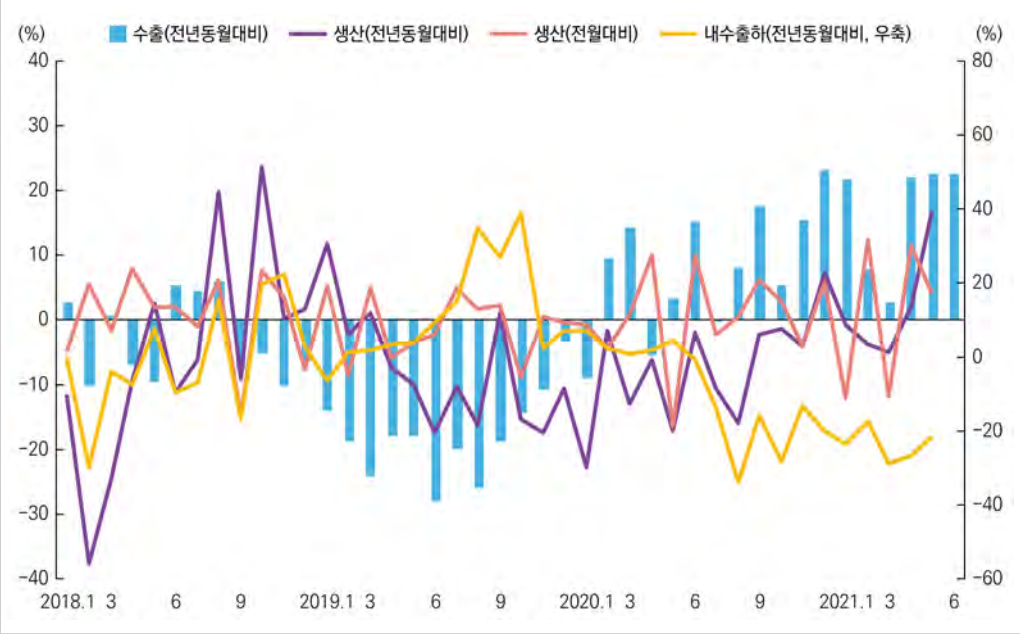
■ **컴퓨터·주변장치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어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16.8%, 전월대비 4.1% 증가하였으나, 내수출하는 21.6% 감소하면서 12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3월)-4.9 →(4월)1.8 →(5월)16.8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21. 3월)-11.9 →(4월)11.5 →(5월)4.1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3월)-28.8 →(4월)-27.0 →(5월)-21.6

■ **해외시장에서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컴퓨터 주변장치의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5%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3월)2.6 → (4월)22.0 → (5월)22.4 → (6월)22.5

[그림 11]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서비스업

5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금융 및 보험업의 호조로 증가세가 지속

■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속으로 야외활동이 늘면서 도매 및 소매(3.2%), 예술·스포츠·여가(19.8%) 부문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금융 및 보험업(7.4%)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 7.8 → (4월) 8.3 → (5월) 4.4
- 도매 및 소매(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 8.3 → (4월) 9.3 → (5월) 3.2
- 예술·스포츠·여가(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 35.0 → (4월) 35.8 → (5월) 19.8
- 금융 및 보험업(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 9.9 → (4월) 11.7 → (5월) 7.4

■ **전월대비로는 숙박 및 음식점(2.5%)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1.3%), 금융 및 보험(-1.0%) 등에서 줄어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0.2%)**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3월) 1.3 → (4월) 0.2 → (5월) -0.2

[표 3]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0			2021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03.4	101.1	105.1	111.5	109.5	109.7	-0.2
서비스업	-4.9	-6.1	-4.0	7.8	8.3	4.4	
도매 및 소매	-6.5	-7.3	-4.4	8.3	9.3	3.2	-1.3
금융 및 보험	11.5	9.2	9.3	9.9	11.7	7.4	-1.0
교육	-9.8	-7.4	-6.5	6.1	4.8	3.1	-0.6
보건 및 사회복지	1.2	2.4	2.1	2.3	2.3	3.1	0.8
숙박 및 음식점	-32.6	-24.6	-14.1	19.3	8.4	-2.0	2.5
운수	-16.7	-20.8	-18.4	14.0	15.1	10.3	-0.3
출판·영상·방송	4.0	1.7	1.5	4.7	2.9	2.8	1.2
전문, 과학 및 기술	2.8	-5.1	-5.0	5.3	6.9	3.0	-1.4
사업시설관리지원	-9.0	-13.6	-12.5	1.7	5.5	5.3	1.0
협회·수리·기타개인	-21.6	-16.4	-5.1	16.1	8.0	-3.6	1.2
부동산 및 임대	9.3	9.2	9.3	-0.3	8.7	5.4	1.5
예술·스포츠·여가	-47.3	-46.4	-40.1	35.0	35.8	19.8	-4.7
하수, 폐기물 처리	5.8	-0.8	-0.8	5.1	6.6	6.2	2.7

주 1. *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모든 세부부문의 생산이 줄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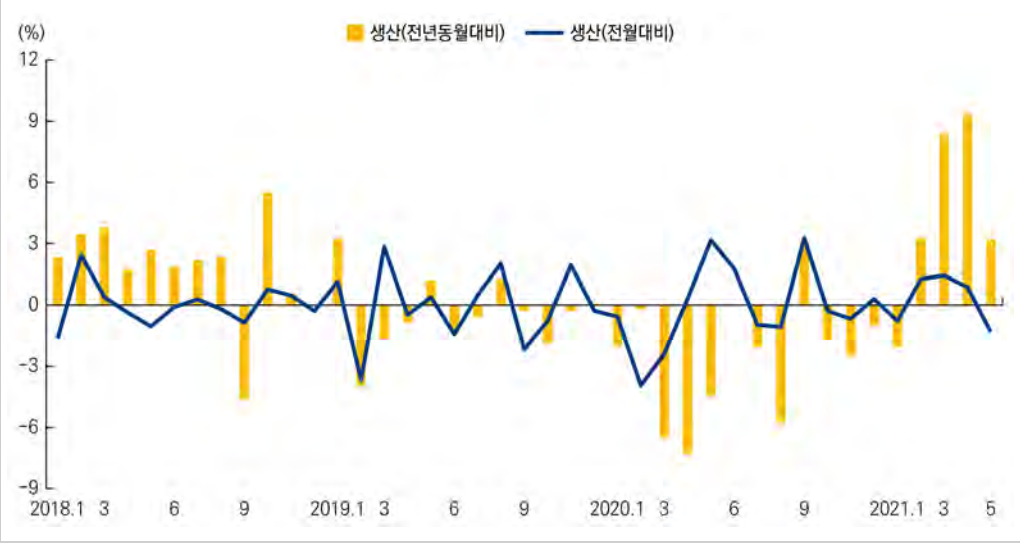
■ **5월 중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문이 8.6% 증가하고, 도매업과 소매업 부문이 각각 4.3%, 0.8%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8.3 → (4월)9.3 → (5월)3.2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문 생산은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 연장 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8.6% 증가
- 도매업 부문 생산은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컴퓨터 및 통신장비 등)과 기타전문 도매업(연료 도매업, 금속재료 도매업, 화학제품 도매업 등) 등의 생산이 각각 9.8%, 6.7%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3% 증가
- 소매업 부문 생산은 음·식료품 생산이 9.0% 감소하였으나,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제품 생산이 19.8% 증가하고 종합 소매업(백화점, 면세점 등) 생산이 5.2%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 **전월대비로는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0.3%), 도매업(-0.5%), 소매업(-2.7%) 등 모든 세부부문의 생산이 줄면서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1.3%)**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3월)1.4 → (4월)0.9 → (5월)-1.3

[그림 12]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월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월대비로는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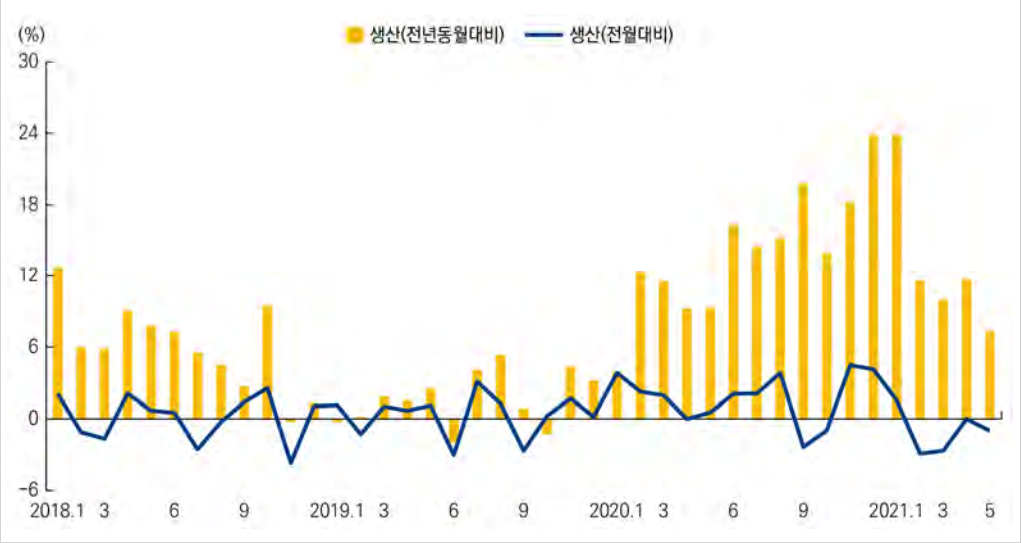
■ **5월 중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했으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과 보험업 부문이 각각 16.5%, 8.2% 증가한 영향으로 나타남**

- 금융 및 보험업은 기타금융업부문(여신금융업)을 제외한 전 세부부문이 전년동월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보다 높은 생산수준을 유지하였고, 특히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문의 생산이 크게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9.9 → (4월)11.7 → (5월)7.4

■ **전월대비로는 1.0% 감소하였는데, 세부부문별로는 보험업은 0.8% 증가했으나 금융업이 0.3% 감소했으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이 6.5% 감소**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3월)-2.7 → (4월)0.0 → (5월)-1.0

[그림 13]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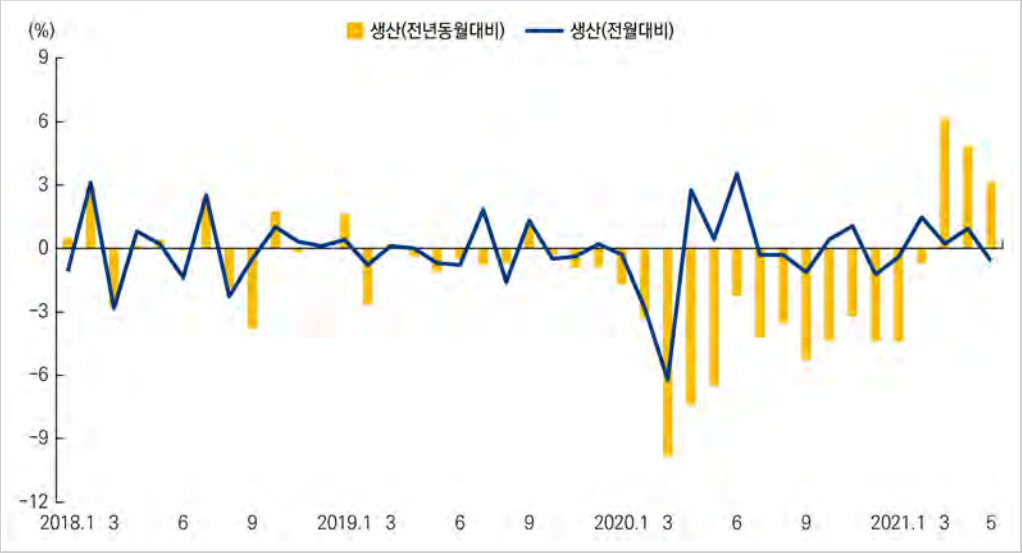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월 교육 서비스업 생산은 초등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감소

■ **5월 생산은 중등교육기관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초등 및 고등교육기관은 증가하는 가운데 학원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은 정체된 반면, 고등교육기관은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6.1 → (4월)4.8 → (5월)3.1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3월)0.2 → (4월)0.9 → (5월)-0.6

[그림 14] 교육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보건 및 사회복지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0.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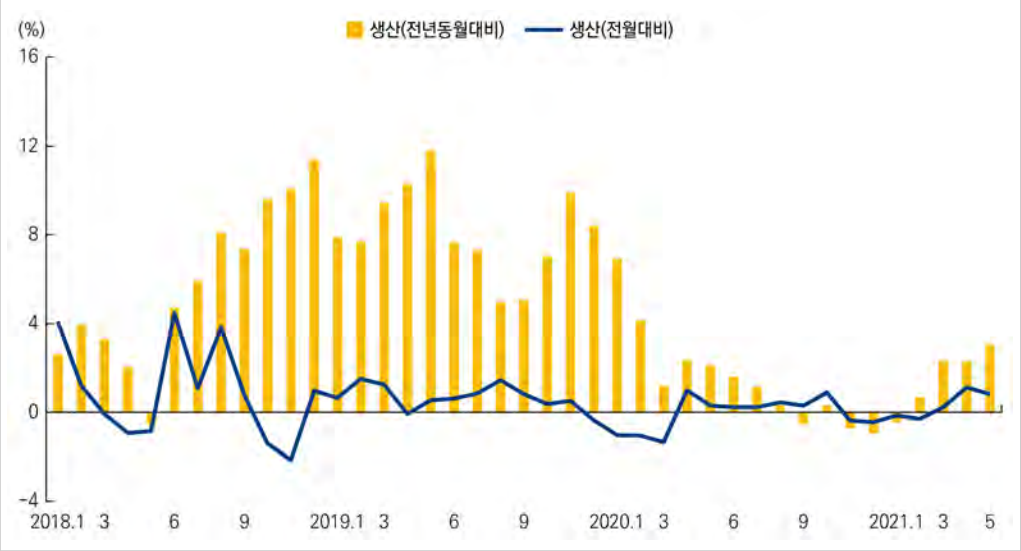
■ **지난 해 급격히 위축되었던 의원 부문과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부문의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전년동월대비 3.1% 생산 증가에 기여**

- 생산지수(불변, 2015=100): ('21. 3월)130.8 →(4월)132.6 →(5월)134.9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3월)2.3 →(4월)2.3 →(5월)3.1

■ **전월대비로는 병원 및 의원, 복지시설 운영업 등 보건 및 사회복지업 전체가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생산이 0.8% 증가**

- 생산지수(계절조정, 2015=100.0): ('21. 3월)133.8 →(4월)135.3 →(5월)136.4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 3월)0.2 →(4월)1.1 →(5월)0.8

[그림 15] 보건 및 사회복지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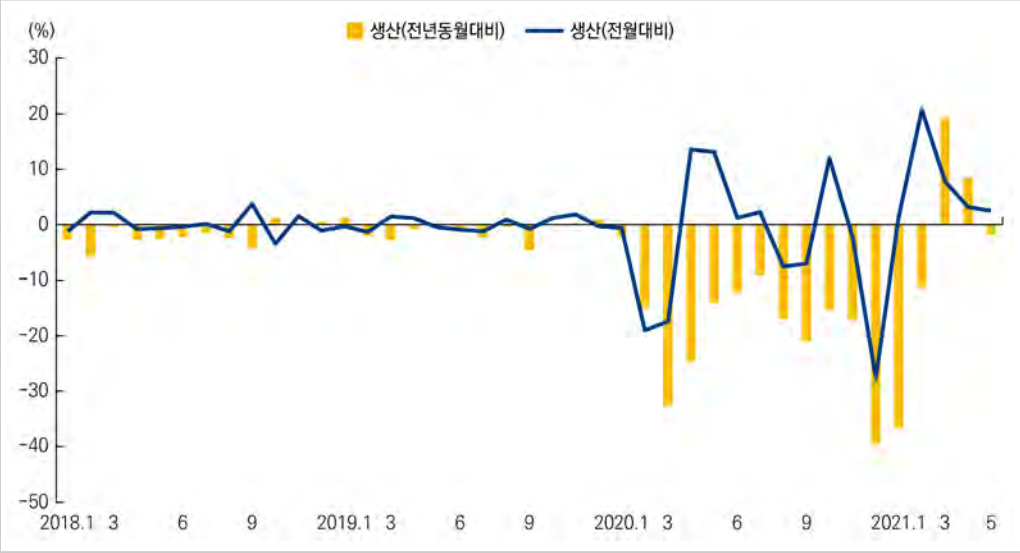
■ **5월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하였는데,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이 4.4%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 운영업은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각각 32.4%와 40.5% 증가했으나, 음식점업 부문과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업 부문은 각각 3.8%와 6.6%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점업은 2019년 5월 대비로는 41% 감소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3월)19.3→ (4월) 8.4→ (5월)-2.0

■ **전월대비로는 2.5% 증가하여 점진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업이 8.7%로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음식점업은 2.8% 증가한 반면,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업부문은 1.3% 감소하여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3월)7.8→ (4월)3.2→ (5월)2.5

[그림 16]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6월 석유와 석탄, 가스 가격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석유와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에너지가격지수는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임

■ **6월 원유 가격은 배럴당 71.8달러로 경제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여력 부족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09.1%, 전월대비 15.2% 상승하여 최근 5년 최고가 (76.7달러)에 가까워짐**

- OPEC+는 지난해 4월에 일일 산유량을 2018년 10월 대비 97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한 이후 최근 수요회복에 따라 감산량을 줄여 실질적인 공급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합의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 탐사, 시추, 생산 등의 상류부문 투자 부족으로 공급능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단기간 내 수요가 폭발할 경우, OPEC+의 잉여생산능력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원유시장은 공급 부족 리스크가 더 큰 상황
- 국제원유가격(달러/배럴): ('21.4월)63.0→(5월)66.4→(6월)71.8

■ **6월 석탄 가격은 톤당 130.0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8.9%, 전월대비 21.4% 상승하여 10개월째 상승하였으며 최근 5년 중 최고가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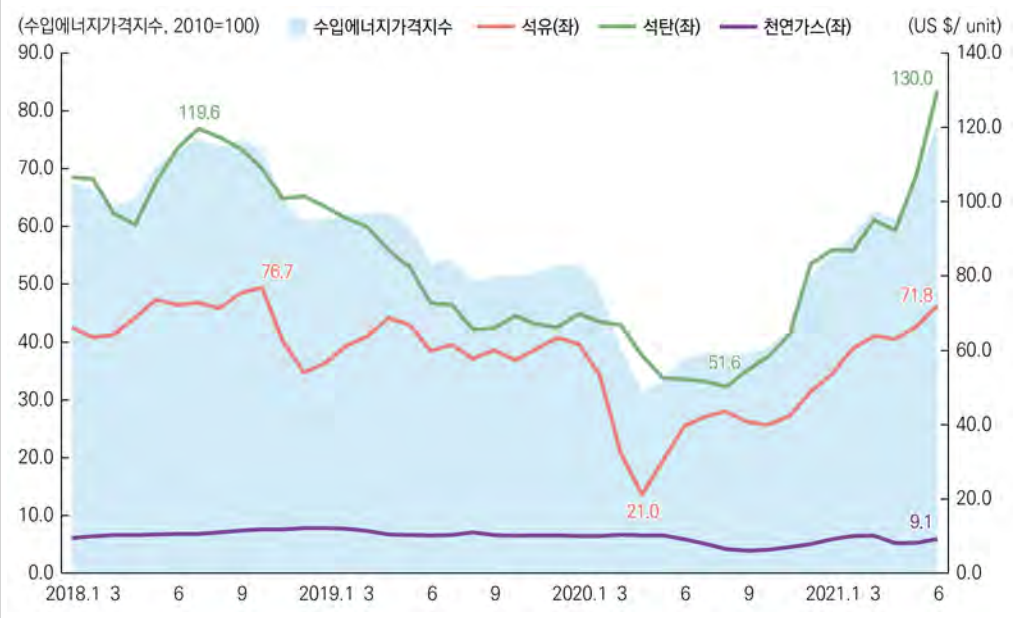
- 중국은 세계최대 석탄소비국인데 자국내 석탄광을 폐쇄하여 석탄 수입량을 늘리는 것도 가격상승 요인으로 추정됨
- 석탄가격(달러/톤): ('21.3월)94.9→(4월)92.2→(5월)107.0→(6월)130

■ **6월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9.1달러로 전월대비 12.3% 상승**

- 유럽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00% 넘게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장기계약물량이 많아 완만한 가격상승세를 유지
- 가스가격(달러/mmbtu): ('21.3월)9.9→(4월)8.0→(5월)8.1→(6월)9.1

※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질량 1파운드의 물의 온도를 1°F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그림 17] 국제 에너지 가격과 수입에너지가격지수 추이



주: 1. 수입에너지가격지수는 음영으로 표시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고려하여 석유가격 45.5%, 석탄 33.3%, 천연가스 21.2%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2.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우측)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6월 농산물과 식품, 귀금속 및 금속광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로는 모두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로는 모두 하락

■ **6월 농산물 및 식품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30.6%와 38.7%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로는 2.1%, 2.8% 하락**

- 6월 농산물 및 식품지수는 전월대비 다소 낮아졌지만, 기상이변 등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인해 높은 농축산물 가격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농산물 가격예측지수인 팜에어·한경KAPI는 국내 22개 농산물의 하반기 가격이 2013~2019년 평균가격(100)보다 약 50% 높을 전망
- 농산물지수: ('21.4월)104.9→(5월)111.1→(6월)108.8
- 식품지수: ('21.(4월)117.6→(5월)126.0→(6월)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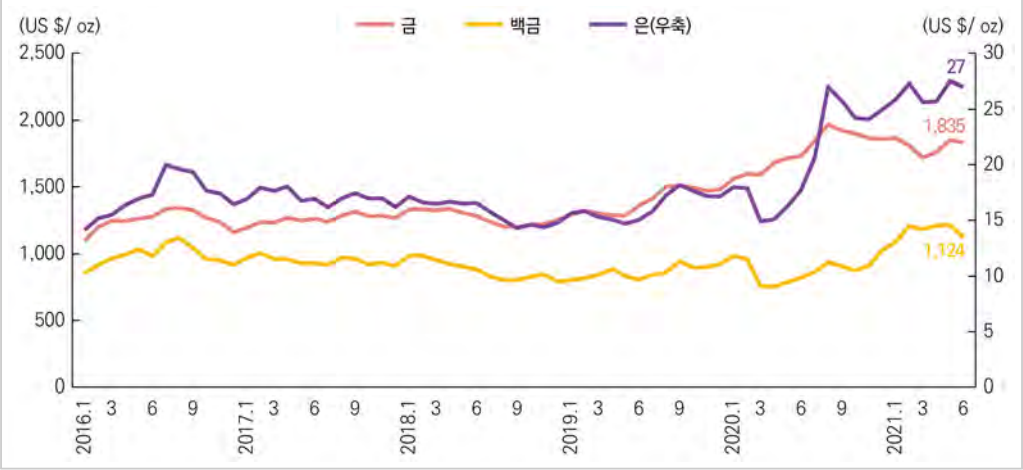
■ **6월 금속광물 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정부의 금속 비축물량 방출 발표 등에 따라 전월대비 다소 하락**

- 중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구리와 알루미늄, 아연 등 정부의 금속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원자재 투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
- 금속광물지수: ('21.(4월)115.3→(5월)125.8→(6월)124.3

■ **6월 귀금속 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전월대비 1.1% 하락한 144.2이며, 금과 은, 백금이 모두 하락**

- 전월대비 금, 은, 백금은 각각 0.8%, 1.9%, 7.4% 하락
- 귀금속지수: ('21.3월)135.6→(4월)138.4→(5월)145.8→(6월)144.2

[그림 18]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나. 국내 에너지 수요

2021년 4월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나,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감소로 전월대비로는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6.7% 상승했는데, 석유와 석탄소비가 각각 10.5%와 7.3% 증가하고, 전력, 열,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소비도 모두 증가**

-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12.1%와 9.1% 증가했으며, 철강업의 석탄소비가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하여 전체 석탄소비 증가에 영향을 줌

■ **전월대비로는 5.5% 감소했는데, 난방수요 감소에 따라 건물부문 에너지인 도시가스와 열에너지, 전력 소비가 크게 감소**

- 비발전용 석탄 소비의 73.0%를 차지하는 철강업의 소비가 전월대비로는 8.7% 감소

※ 최종에너지는 일차에너지 중 소비자가 직접 에너지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의미

[표 4]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소비

(단위 : 1,000toe)

	2018	2019	2020		2021p			
				4월	3월	4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33,368	231,353	222,016	17,679	19,944	18,855	6.7	-5.5
전년동월대비	1.2	-0.9	-4.0	-4.2	1.0	5.1		
석탄	32,480	32,057	30,565	2,404	2,812	2,580	7.3	-8.2
석유	116,831	116,125	109,484	8,624	9,589	9,525	10.5	-0.7
액화천연가스	2,038	2,909	3,602	268	270	274	2.1	1.4
도시가스	24,979	23,943	23121.7	1,951	2,493	1,860	-4.7	-25.4
전력	45,249	44,763	43,797	3,481	3,704	3,603	3.5	-2.7
열	2,682	2,646	2,657	206	297	213	3.3	-28.3
신재생 및 기타	9,110	8,910	8,789	744	778	799	7.3	2.6

주 : 2021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 에너지통계월보

2021년 5월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소폭 감소

■ **5월 전력수요는 산업부문의 전력소비가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했으며, 공공부문의 전력소비도 8.2% 증가하여 전체 전력수요 증가(6.6%)를 견인**

- 제조업 업종별로는 자동차, 섬유제품, 플라스틱, 기타기계의 전력수요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33.2%, 26.8%, 26.5%, 21.0% 증가

■ **전월대비로는 공공부문과 가정부문이 각각 9.0%, 5.3% 감소하였고, 산업부문은 0.1% 증가하여 2.5% 감소**

- 산업부문 중 농업과 광업은 전월대비 각각 9.5%, 5.0% 감소했으나, 제조업부문은 0.7% 증가하여 산업생산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가 나타남

[표 5]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18	2019	2020	2021P			
				5월	4월	5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	526,149	520,499	509,270	38,328	41,900	40,842	6.6	-2.5
전년동기대비	3.6	-1.1	-2.2	-0.5	3.5	6.6		
가정부문	70,687	70,455	74,073	5,565	5,910	5,595	0.5	-5.3
공공부문	24,569	24,458	23,623	1,611	1,916	1,743	8.2	-9.0
서비스부문	147,189	145,816	142,881	10,312	11,112	10,526	2.1	-5.3
산업부문	283,704	283,705	268,692	20,840	22,963	22,978	10.3	0.1

주 :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1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전력통계속보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4. 고용

고용은 서비스업 고용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

■ **6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유지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회복, 기저효과 지속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

- 6월 중 전체 취업자 수(2,763.7만명)는 전년동월대비 58.2만 명(2.2%) 증가하며 전월(61.9만 명, 2.3%)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48.3만 명)에서 대면서비스업종의 부진이 지속되며 증가폭이 전월(47.2만 명)에 비해 축소되었고, 제조업(-1.0만 명)에서는 3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청년층과 60세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여가 늘며 경제활동참가율(63.7%)은 4개월 연속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전년동월대비, %p): ('21. 3월)0.3→(4월)1.0→(5월)1.0→(6월)0.9
- 7월 중 고용은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

[그림 19] 전체 취업자 수 증감

[그림 20]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주: 대면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

■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하여 전월(61.2%, 1.0%p)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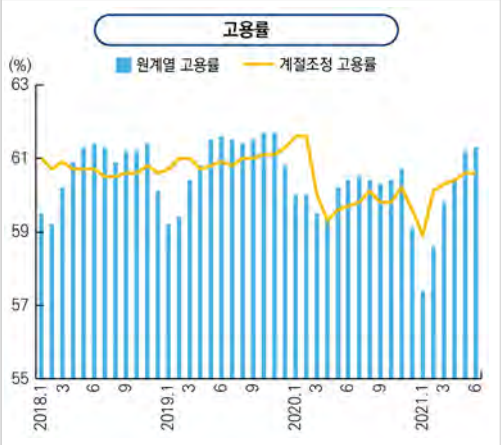
- 청년층(3.1%p)과 50대(1.0%p), 40대(0.8%p), 60세 이상(0.8%p)에서 양호한 상승폭을 나타냈으나 30대(0.0%p)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정체
- 계절조정 고용률은 60.6%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가 주춤한 양상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하였고, 성별로는 남자는 75.6%(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여자는 58.4%(전년동월대비 1.6%p 상승)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며 전월(4.0%, -0.5%p)에 이어 하락세 지속**

- 청년층(-1.8%p), 30대(-0.7%p), 50대(-0.4%p), 40대(-0.2%p) 등에서 하락한 가운데 60세 이상은 전년수준을 유지

- 계절조정 실업률은 3.7%로 전월대비 0.1%p 하락하며 전월(0.1%p)의 상승에서 하락 전환
- 실업자(109.3만 명)는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며 전년동월대비 13.6만 명(-11.0%) 감소

[그림 21]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제조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3개월 만에 감소 전환된 반면, 건설업의 증가세는 소폭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 건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2월 증가 전환된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세가 확대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2.0→(2월)2.8→(3월)9.2→(4월)14.1→(5월)13.2→(6월)14.0

■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4월에 증가 전환되었던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6월 들어 -1.0만 명을 기록하며 다시 감소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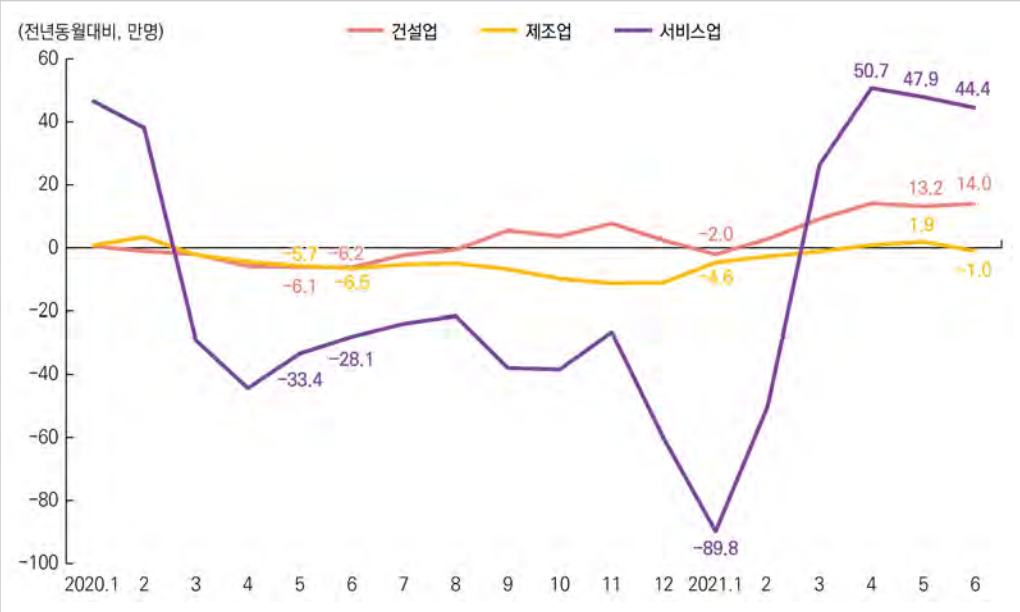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4.6→(2월)-2.7→(3월)-1.1→(4월)0.9→(5월)1.9→(6월)-1.0

■ 서비스업 취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는 5월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큰 폭의 증가를 기록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89.8→(2월)-50.2→(3월)26.3→(4월)50.7→(5월)47.9→(6월)44.4
- 5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둔화는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월과 비교할 때, 2021년 4월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6.3만 명 증가한 반면 5월은 14.5만 명, 6월은 16.3만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점차 확대
- 대면서비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감소 전환된 반면('21.5월 6.7만 명 → 6월 -2.0만 명), 비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세가 5개월 연속 확대('21.1월 2.0만 명 → 5월 41.2만 명 → 6월 46.4만 명)[5)]
- 서비스업 세부 산업별 취업자 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16.4만 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4.3만 명), 협회·수리·기타개인서비스(-5.5만 명) 등에서 감소

[그림 2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주: '20년 6월과 '21년 6월의 증감을 합하여 '19년 6월 대비 증감을 도출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과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핵심노동연령대(30~50대)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3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0.9만 명 증가하여 2000년 7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

- 청년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31.4→(2월)-14.2→(3월)14.8→(4월)17.9→(5월)13.8→(6월)20.9

5) 대면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수리·기타개인 서비스업을, 비대면서비스업은 그 외 업종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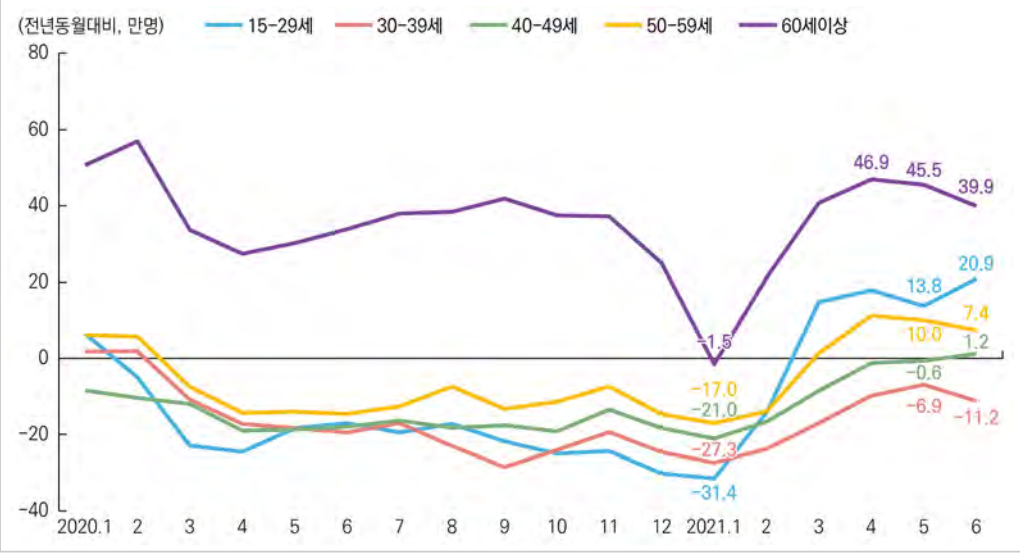
■ **핵심노동연령대(30~50대)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1월의 저점 이후 5월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50대의 증가세 둔화와 30대 감소세 확대의 영향으로 감소 전환**

- 30~5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65.3→(2월)-54.3→(3월)-24.2→(4월)0.3→(5월)2.5→(6월)-2.6
-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0월 이후 68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환(+1.2만 명)
- 30대의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전년동월대비 감소(-11.2만 명)를 기록하며 어려움이 지속

■ **60세 이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세는 2개월 연속 둔화되었으나 39.9만 명 증가를 기록하며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

-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1.5→(2월)21.2→(3월)40.8→(4월)46.9→(5월)45.5→(6월)39.9

[그림 23]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수는 증가로 전환

■ **상용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2.1만 명 증가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소폭 둔화**

-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3.6→(2월)8.2→(3월)20.8→(4월)31.1→(5월)35.5→(6월)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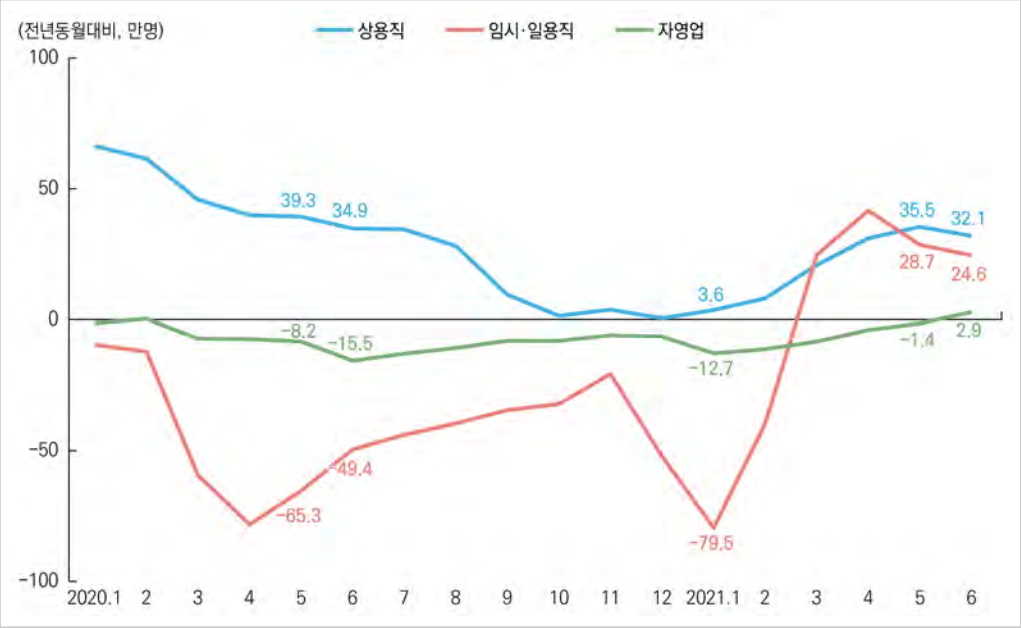
■ **임시일용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2~4월 사이에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전년동월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

-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79.5→(2월)-39.7→(3월)24.7→(4월)41.7→(5월)28.7→(6월)24.6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4월에 -36.5만 명, 5월 -36.6만 명, 6월 -24.8만 명으로 점차 개선되어, 최근 나타난 증가세 둔화는 2020년 동월의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9만 명 증가를 기록하며 16개월 만에 증가 전환되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

- 자영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12.7→(2월)-11.1→(3월)-8.1→(4월)-3.8→(5월)-1.4→(6월)2.9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21.5월 5.3만 명 → 6월 11.3만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강화('21.5월 -6.7만 명 → 6월 -8.4만 명)되며 어려움이 지속

[그림 2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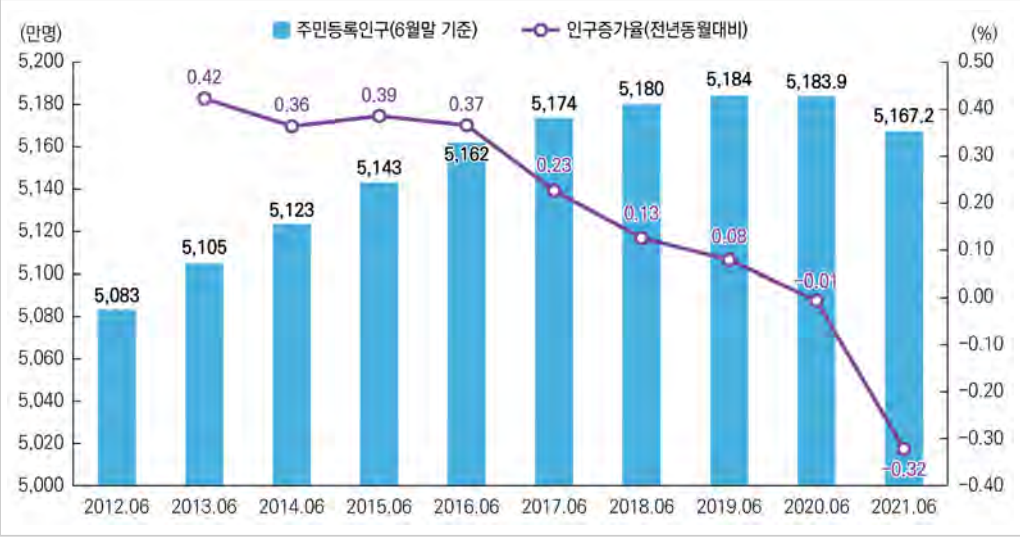
주: '20년 6월과 '21년 6월의 증감을 합하여 '19년 6월 대비 증감을 도출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인구

2021년 6월 주민등록인구는 5,16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 7천명(-0.32%) 감소

■ 각 연도 6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13년 0.42%, 2015년 0.39%, 2020년 -0.01%, 2021년 -0.32%로 하락

[그림 25]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2.6~2021.6)



주: 각 연도 6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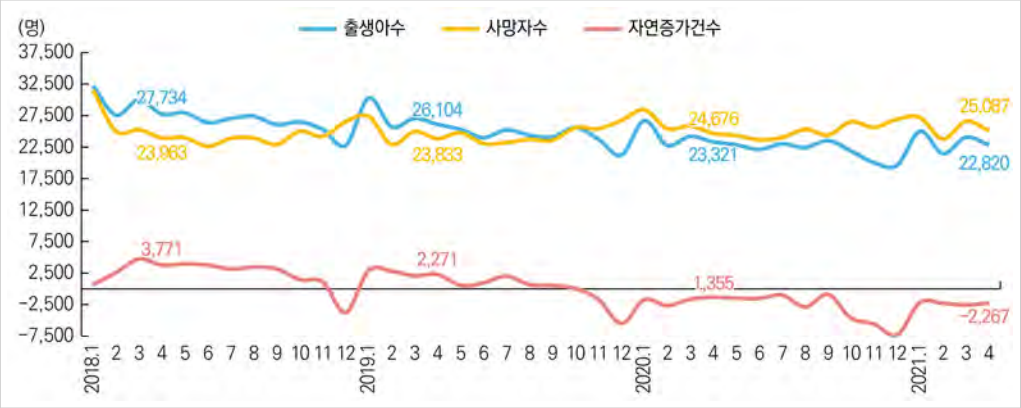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18개월째 지속, 2021년 1월 이후 출생아 수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은 줄어드는 추세

■ 2021년 4월 출생아 수는 22,820명, 전년동월대비 501명(-2.2%) 감소

■ 2021년 4월 사망자 수는 25,087명, 전년동월대비 411명(1.7%) 증가

■ 전년동월대비 출생아 수 감소규모는 2021년 1월 1,676명, 2021년 2월 1,307명, 2021년 3월 152명, 2021년 4월 501명으로, 감소폭이 둔화되는 추세

[그림 26]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8.1~2021.4)



자료: 통계청(2021),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1년 4월의 혼인건수와 인구 천명당 조혼인률은 전년동월 대비 다소 증가

■ **2021년 4월 혼인건수는 15,86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91건(1.2%) 증가, 인구 천명당 조혼인률은 3.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건 증가**

- 전년동월대비 혼인건수는 2021년 1월 3,543건 감소, 2월 4,131건 감소, 2021년 3월 2,596건 감소하였으나, 2021년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91건 증가

■ **코로나19 발생 이후 혼인을 연기함으로써 나타난 대폭적인 혼인건수 감소가 2021년 4월 들어서 다소 완화**

[그림 27]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2018.01~2021.04)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2021),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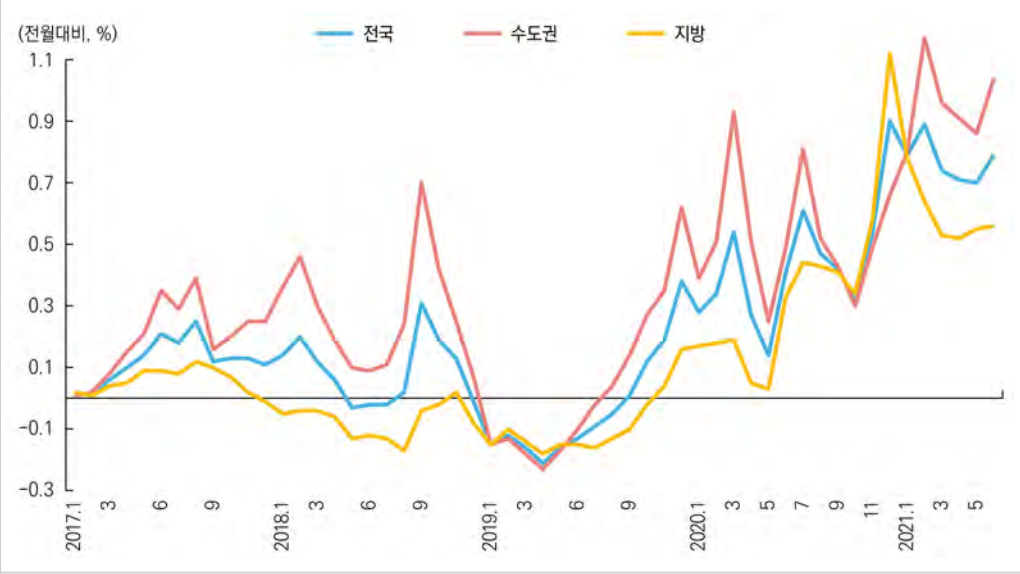
6. 부동산

2021년 6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79%, 수도권 1.04%, 지방은 0.56%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

- 수도권은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경기지역과 인천의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
- 지방은 부산 1.01%, 제주 0.92%, 대전 0.78%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그림 28]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 **전국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은 0.33%로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

- 수도권의 정비사업 이주수요 및 교통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및 월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국의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 상승

[그림 29]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추이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1년 5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대비 감소

■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대비 4.8% 증가, 전년동월대비 16.8% 증가한 9만 7,524건

- 수도권(4.7만건)은 전월대비 5.3% 증가, 전년동월대비 17.8%% 증가
- 지방(5.0만건)은 전월대비 4.3% 증가, 전년동월대비 15.9% 증가

[그림 30]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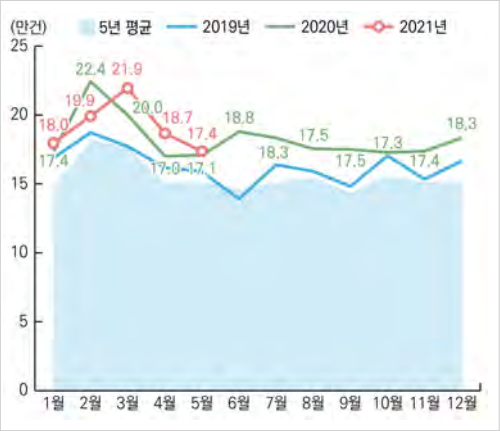
[그림 31] 연도별 5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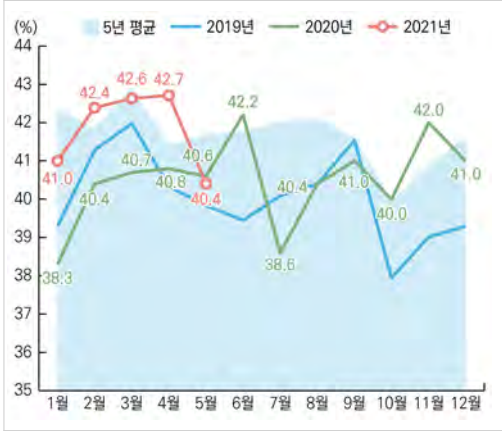
■ 전월세 거래량은 17만 3,631건으로 전월대비 6.9% 감소,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4%로 전월대비 2.3%p 감소, 전년동월대비 1.9%p 감소

[그림 32]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그림 33]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III. 해외경제 동향

1. 미국

최근 미국 경제는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와 재정부양책 효과 등으로 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세도 확대되는 모습

■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6월 들어 백신접종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변이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신규확진자수가 소폭 증가 전환**

-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수(7일 이동평균, 만명): (5.28일)2.2→(6.4일)1.5→(6.18일)1.3→(6.25일)1.2→(7.2일)1.4
- 백신접종율은 7.2일 기준(미국 질병관리센터) 전체 인구대비 54.9%(1억8,241만 명)가 최소 1회 접종하였으며, 47.4%(1억5,732만 명)가 접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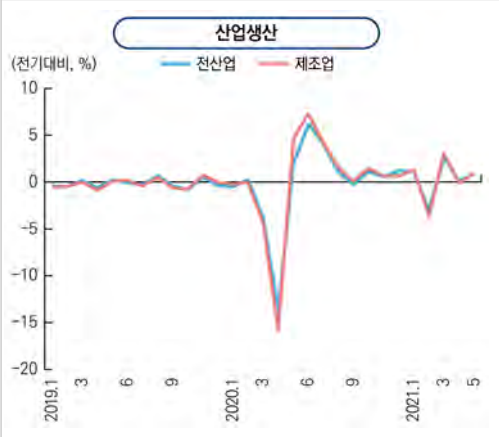
■ **5월 중 산업생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5개월 연속 60을 상회하며 호조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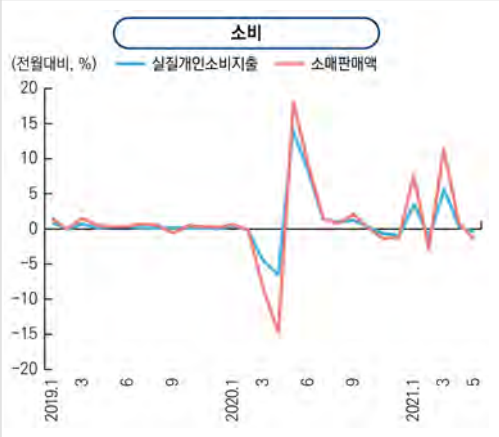
- 전산업생산(전월비, %): ('21. 3월)2.6→(4월)0.1→(5월)0.8
- 제조업생산(전월비, %): ('21. 3월)3.1→(4월)-0.1→(5월)0.9
-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구매자지수(기준치=50)는 6월 중 60.6로 전월(61.2)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5개월 연속 60을 상회하였으며, 비제조업구매자지수도 60.1로 전월(64.0)에 비해 하락

■ **5월 중 실질개인소비지출과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하락 전환되었으나 경제활동 재개 본격화와 고용 및 소득여건 개선,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

- 실질개인소비지출은 5월 중 전월대비 0.4% 감소하며 둔화되었고,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1.3% 감소
- 선행지수인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6월 중 127.3로 전월(120.0)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며 4개월 연속 견실한 상승 흐름이 지속

[그림 1] 미국의 산업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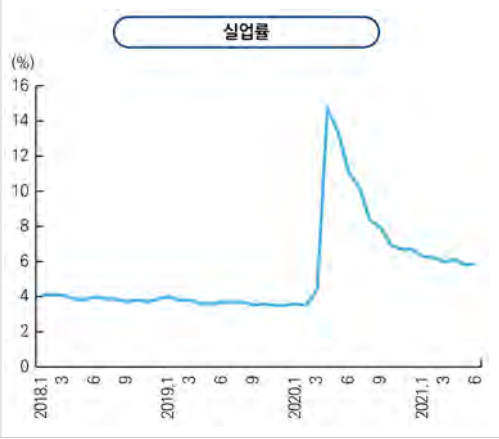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6월 중 노동시장은 비농가취업자수 증가폭이 전월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실업률은 소폭 상승**

- 6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85.0만 명 증가하여 전월에 이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상승하며 5.9%로 전월보다 0.1%p 상승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1.4월)26.9→(5월)58.3→(6월)85.0
- 경제활동참가율(%): ('21.4월)61.4→(5월)61.5→(6월)62.1
- 실업률(%): ('21.4월)6.1→(5월)5.8→(6월)5.9

[그림 2] 비농가취업자수 및 실업률의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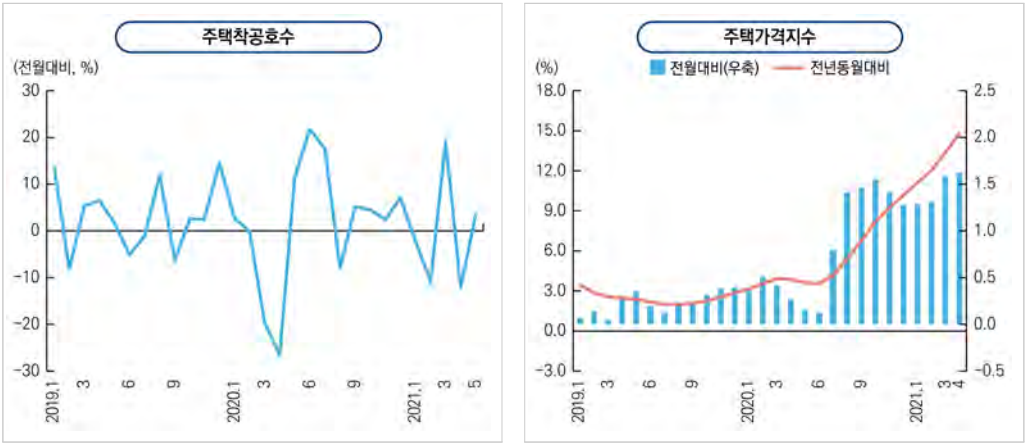


주: 월간 구인건수는 비농가기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주택시장은 5월 중 주택착공호수가 증가 전환되고, 4월 중 주택가격은 2020년 7월 이후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

- 5월 중 주택착공호수는 전월(-12.1%) 큰 폭의 감소에서 3.6% 증가 전환
- 4월 중 주택가격(S&P/Case-Shiller지수기준)은 전월대비 1.6% 상승하며 주택경기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동월대비는 14.9% 상승하며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

[그림 3] 미국의 주택착공호수 및 주택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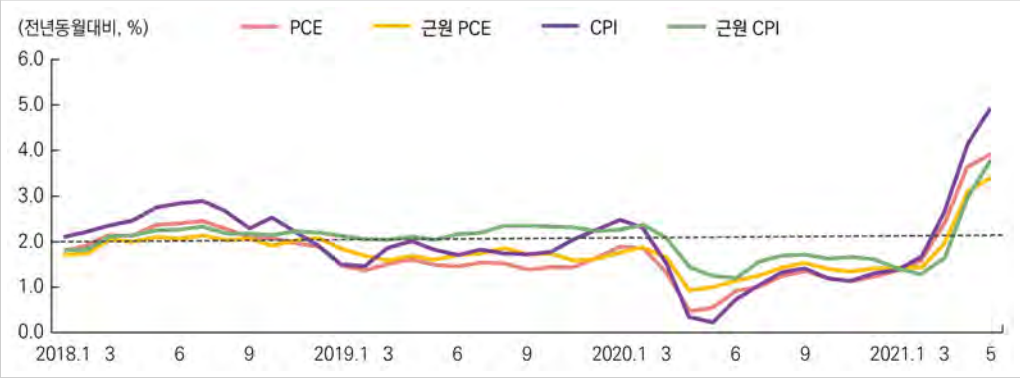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5월 중 PCE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낮은 상승률로 인한 기저효과,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소비 증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6월 중 소비자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4%를 상회하며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

- 5월 중 PCE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하여 전월(3.6%)에 이어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9%로 전월(4.2%)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
- 근원PCE물가상승률은 3.4%로 전월(3.1%)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연준의 장기목표 수준(2.0%)을 2개월 연속 1%p 이상 상회하는 모습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 ('21. 4월)3.4→(5월)4.6→(6월)4.2

[그림 4]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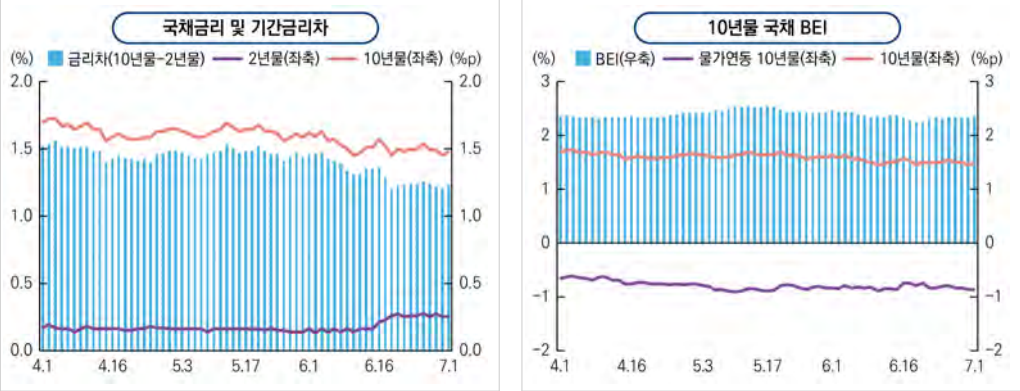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시장금리는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우려 등으로 2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

- 2년물 금리는 중순 이후 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와 단기 인플레션 급등과 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 등으로 하락하며 전월(0.16%)보다 0.04%p 상승한 0.20%를 기록
- 장기금리(10년물 기준)는 6월 들어 중순 이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확인 등으로 하락하며 월평균 1.52%(전월대비 0.10%p 하락)를 기록함에 따라 2년물과의 기간금리차는 1.46%p로 전월보다 0.14%p 축소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p):('21.4월)1.48→(5월)1.46→(6월)1.32
- 금융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BEI(break-even inflation rate)는 6월 중 2.34%로 전월(2.47%)에 비해 소폭 하락

[그림 5] 미국 기간금리차 및 10년물 국채 BEI[1)]의 일별 추이



주: 1) BEI(break-even inflation rate) = 10년 일반국채금리 - 물가연동채권 10년물 금리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미연준은 6월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현재 수준(0.00~0.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은 백신접종 확대와 강력한 정책지원으로 경제활동 및 고용지표가 강화되었다고 평가
- 연준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가 상당한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매월 최소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정부기관 MBS 매입을 지속
- 수정전망을 통해 2021년 실질GDP 성장률(6.5%→7.0%)과 물가상승률(2.4%→3.4%) 전망치를 이전(3월)에 비해 상당폭 상향 조정

[표 1] 미 연준의 6월 수정 경제전망

(단위: %)

	2021	2022	2023	장기
실질GDP성장률	7.0	3.3	2.4	1.8
('21년 3월전망)	6.5	3.3	2.2	1.8
실업률	4.5	3.8	3.5	4.0
('21년 3월전망)	4.5	3.9	3.5	4.0
PCE물가상승률	3.4	2.1	2.2	2.0
('21년 3월전망)	2.4	2.0	2.1	2.0
근원 PCE물가상승률	3.0	2.1	2.1	
('21년 3월전망)	2.2	2.0	2.1	

주: 회의참석자 예측치의 중간값(median) 기준임

2. 중국

중국경제는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모습

■ **5월 산업생산은 제조업(9.0%)과 전기·가스·수도업(11.0%)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8% 증가하였으나 3월(14.1%)과 4월(9.8%)에 이어 증가폭이 축소**

■ **5월 소매판매는 재화(10.9%), 외식업(26.6%) 등 주요품목에서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며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

■ **5월 고정자산투자는 건설투자(19.9%)에서 전월(24.8%)보다 증가폭이 축소되고 설비투자(-0.5%)는 전월(9.0%)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5.4% 증가**

[그림 6] 중국 실물지표 추이

자료: CEIC

자료: CEIC

■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였으나 같은 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0% 상승하며 2008년 9월(9.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5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식료품(0.3%)과 식료품 외 품목(1.6%)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5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세,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9.0% 상승

■ **6월 종합 PMI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경기기대지수가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하락한 52.9를 기록**

- 6월 중국의 제조업 경기기대지수는 57.9를 기록하며 전월(58.2)보다 하락
- 6월 중국의 부문별 PMI는 제조업(50.9)과 서비스업(53.5)에서 모두 하락하였으며, 제조업 PMI의 경우 2021년 3월 51.9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
- 종합 PMI: ('21년 4월) 53.8 → (5월) 54.2 → (6월) 52.9

[그림 7]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그림 8]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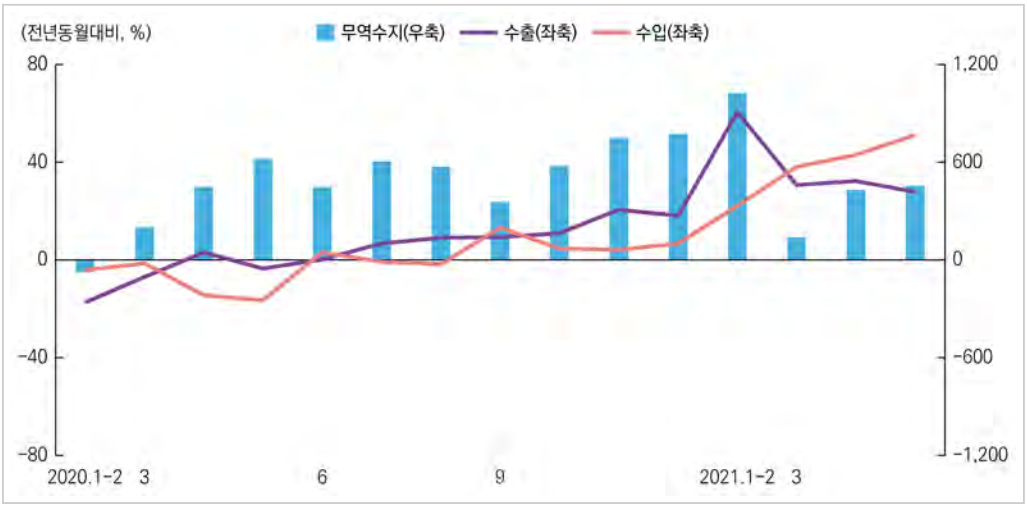
■ **5월 중국의 고용관련 지표는 실업률이 전월보다 하락하고 누적 신규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면서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나가고 있음**

- 5월 중국의 실업률(도시지역)은 전월(5.1%)대비 0.1%p, 전년동월(5.9%)대비 0.9%p 하락한 5.0% 기록
- 5월 중국의 누적 신규취업자수(도시지역)는 57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8% 증가

■ **5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흑자규모는 축소**

- 5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27.9%, 51.1%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전년동월(619.2억 달러)보다 26.5% 감소한 455.4억 달러 흑자를 기록

[그림 9]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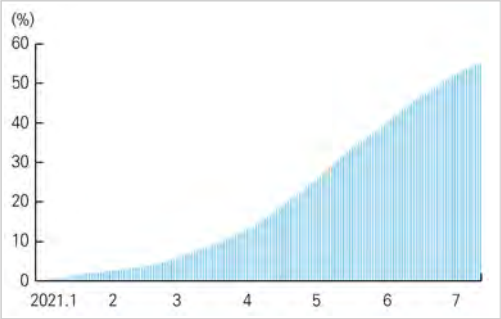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진전, 주요국의 이동제한 조치 완화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 **유로지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신규 확진자 수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이 봉쇄 완화정책을 발표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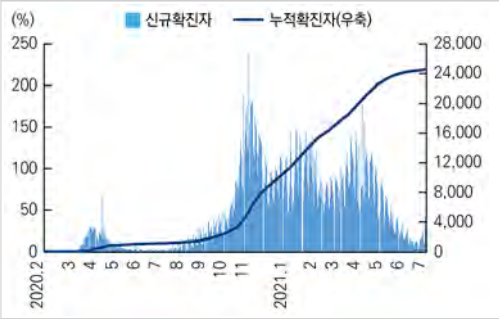
- 2021년 7월7일 기준 EU 지역의 인구대비 누적 접종자 수는 53.3%를 기록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6월 들어 만명대로 떨어지며 증가세가 급속하게 둔화[1)]

[그림 10] EU지역 코로나19 접종률 현황



자료: Our World in Data, Oxford

[그림 11] 유로지역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



자료: Our World in Data, Oxford

■ 4월 중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8%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

- 부문별로는 에너지(3.2%), 자본재(1.4), 중간재(0.8%) 생산이 증가
- 산업생산(전월대비, %): ('21.1월)0.9→(2월)-1.2→(3월)0.4→(4월)0.8
- 국가별 산업생산(전월대비, %): 벨기에(7.4), 그리스(4.2), 네덜란드(2.9), 이탈리아(1.8), 스페인(1.1), 프랑스(0.0), 독일(-0.3)

■ 5월 중 소매판매는 비음식료품 및 차량연료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월대비 4.6% 증가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1.2월)4.3→(3월)4.0→(4월)-3.9→(5월)4.6
- 유가상승으로 인해 차량연료 판매가 전월대비 8.1% 증가하였으며, 차량연료를 제외한 비식료품 판매도 8.8% 증가

[그림 12]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3]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1) 유로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천명): ('20.11.2)237.8→('21.1.20)140.4→(4.11)156.3→(5.5)86.1→(6.7)17.6

■ **6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1.9% 상승**

-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6월 큰 폭 하락(-9.3%)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12.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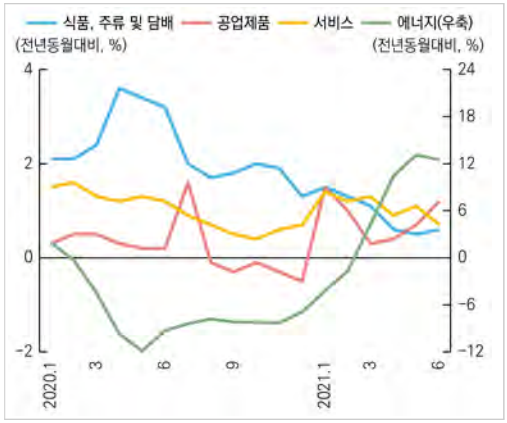
  * 브렌트 유가(달러/배럴): ('20.6월)40.0→('21.6월)73.1

- 봉쇄조치 완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에너지 제외 공업제품이 0.9% 올라 전월(0.7%)에 비해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서비스물가는 상승세가 둔화(5월 1.1%→6월 0.7%)
- 물가지수에서 비중이 큰 서비스물가가 둔화되면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상승률은 전월(1.0%)보다 낮은 0.9%를 나타냄

[그림 14]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5] 유로지역 부문별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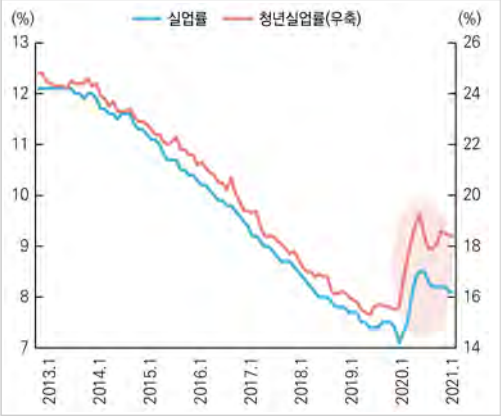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던 유로지역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8월 중 정점(8.7%, 18.9%)을 기록한 후 개선세**

- 5월 중 유로지역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각각 7.9%, 17.5%를 기록
- 국가별로는 독일(4월 3.8%→5월 3.7%), 프랑스(4월 7.8%→5월 7.5%), 이탈리아(4월 10.7%→5월 10.5%), 스페인(4월 15.5%→5월 15.3%) 등 주요국의 실업률이 모두 개선되는 모습

■ **6월 소비자신뢰지수[2]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과 신규 확진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전월대비 1.8p 오른 -3.3을 기록하여 5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4개월 연속 기준선(-11.1)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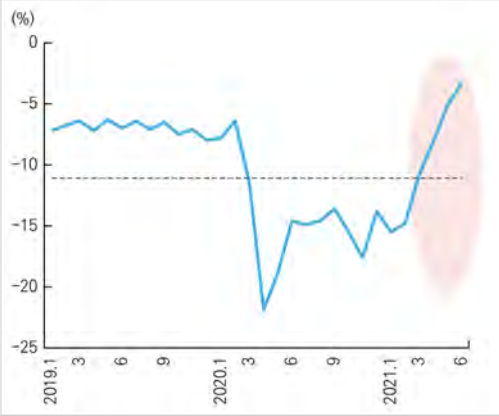
2)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으로 답변한 소비자의 비중 차이에 따라 산출됨.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등락폭이나 장기평균치와의 차이 등으로 판단

[그림 16]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7]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주: 점선은 장기평균치(-11.1)이며, 소비자신뢰지수가 0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EU 집행위

■ **6월 중 유로지역의 제조업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이동제한 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모두 상승하면서 종합 PMI는 전월에 비해 2.4p 상승한 59.5를 기록**

- 제조업 PMI는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하며 63.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
- 서비스업 PMI는 주요국의 이동제한조치 완화 등으로 6개월 연속 상승한 59.5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기준선(50)을 상회

[그림 18] 유로지역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그림 19] 유로지역 국가별 종합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4. 일본

일본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내수 전반에서 부진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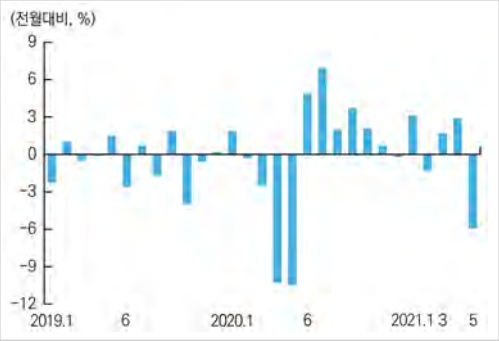
■ **5월 광공업 생산은 수송기계공업(7.2%), 무기·유기화학공업(2.2%)에서 늘었으나 자동차공업(-19.4%), 생산용기계공업(-5.9%)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5.9% 감소**

- 출하(-4.7%)와 재고(-1.7%)도 전월대비 감소, 재고율은 0.3% 상승

■ **5월 중 수출과 수입은 기저효과와 글로벌 무역 개선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49.6%, 27.9% 증가**

- 수출 품목 중 수송용기기(118.9%), 일반기계(40.5%), 전기기기(32.9%) 등에서 증가
- 수입은 광물성연료(70.5%), 전기기기(24.7%) 등에서 증가
- 경상수지(억엔): ('21.3월)26,501→(4월)13,218→(5월)19,797

[그림 20] 일본 광공업 생산증감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그림 21]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재무성

■ **5월 중 소매판매액은 음식료품(0.5%)이 늘었으나 일반상품(-9.7%), 자동차(-5.9%), 기계·기구(-4.4%)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

- 한편, 4월 중 가계실질소비지출(주거비 및 자동차구입비 제외)은 교육(14.8%), 보건의료(4.9%) 등에서 늘었으나 가구·가사용품(-15.1%), 교통·통신(-11.9%)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8% 감소

■ **5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신선식품(-5.2%), 교통·통신(-1.5%)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1% 하락**

- 근원물가(신선식품과 에너지 제외)도 전년동월대비 0.2% 하락

[그림 22] 일본 가계실질소비지출과 소매판매 추이

자료: 총무성

[그림 23]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총무성

■ **5월 비농업취업자 수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8만명 증가('20.5월: -68만명)하였으며, 실업률은 3.0%로 전월(2.8%)에 비해 0.2%p 상승**

- 제조업(-14만명), 운수·우편(-14만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의료·복지(51만명), 도소매(9만명), 서비스(3만명) 등에서 증가
- 비농업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1.3월)-50→(4월)25→(5월)18

■ **6월 중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전월(48.8)에 비해 소폭 상승한 48.9를 나타냄**

- 제조업PMI는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한 52.4를 나타냈으며, 서비스업PMI는 전월에 비해 상승한 48.0을 나타냄
- 일본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월 중 4~6천명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6월 말 1,800명대 수준을 나타냄
-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누적 약 3,063만명(전체 인구의 약 24.3%) 접종(1회 이상 접종 기준)

[그림 24] 일본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총무성, 경제산업성

[그림 25]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전세계 코로나19 현황]

■ **2021년 7월 전세계의 코로나19는 델타변이 발생에 따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음**

- 7월 21일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9,201만명이고, 일일 확진자 수는 약 56만명
  -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6월을 저점으로 재확산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대륙별 백만명당 일일 확진자 수가 많은 지역은 "남미 〉 유럽 〉 북미 〉 아시아 〉 오세아니아 〉 아프리카" 지역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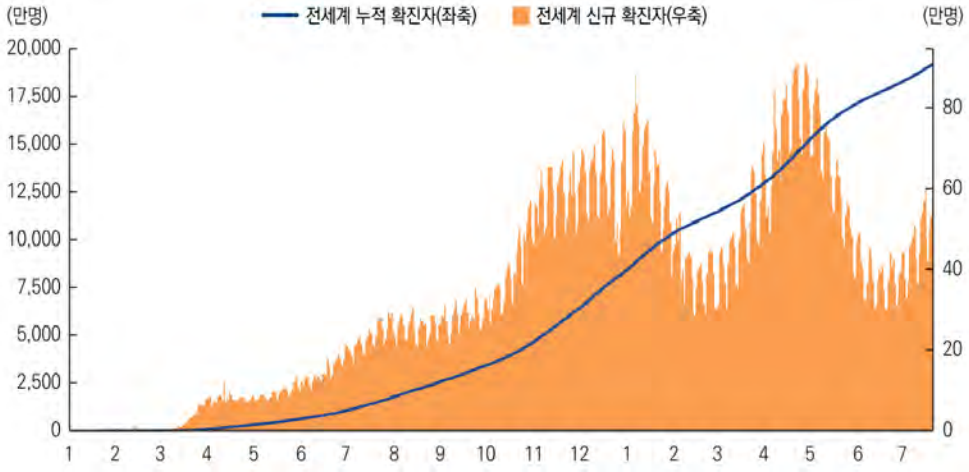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및 일일 확진자 현황(7.21. 현재)〉

(단위: 명)

구분	전세계	유럽	북미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확진 (일일)	192,005,075	50,550,158	40,674,243	59,614,289	34,762,792	6,329,548	73,263
	559,573	149,556	80,589	207,507	87,400	33,254	1,267
백만명당 확진 (일일)	24,632	67,519	68,698	12,848	80,701	4,721	1,717
	72	200	136	45	203	25	30
사망 (일일)	4,127,062	1,125,533	914,841	855,823	1,068,973	160,597	1,280
	8,725	1,037	853	3,453	2,434	926	22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7.2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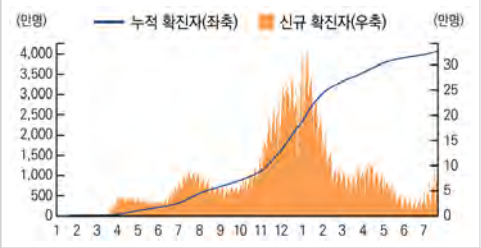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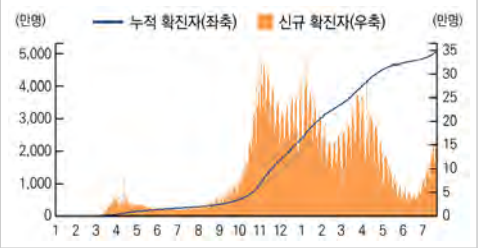
■ **대륙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 북미·유럽 및 아시아의 재확산이 진행 중이며, 특히 아프리카는 전례 없는 확산세를 보이고 있음**

- **(북미·유럽·아시아)**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한 재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음
- **(남미)** 지난 달의 100만명당 300명을 넘는 기록적 신규 확진자 수보다는 줄어든 200명대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대륙에 비해서 빠른 확산이 나타나는 중
- **(아프리카)** 비교적 안정적 상황을 유지했던 아프리카 지역은 6월에 이어서 계속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역대 최대수준의 전파를 보이고 있음
- **(오세아니아)** 비교적 안정적 상황을 유지했던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일 1,000명대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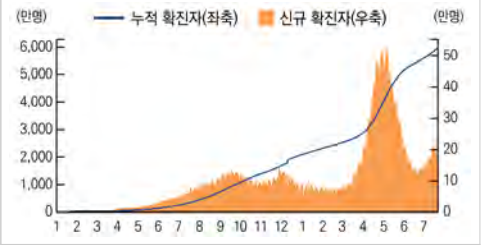
[북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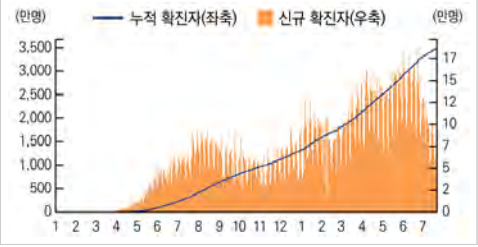
〈유럽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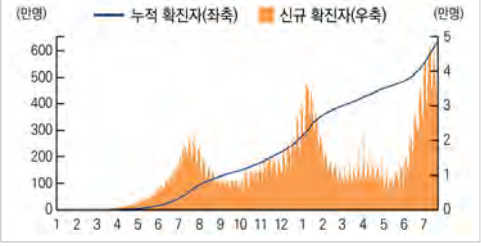
〈아시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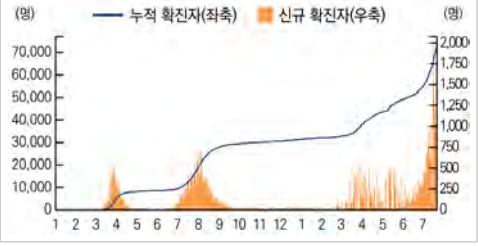
〈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현황(7.21. 기준)]

순위	국가	누적 확진자 (명)	신규 확진자 (명)	100만명당 누적 확진자 (명)	누적 사망자 (명)	사망률 (%)
1	미국	34,226,806	52,032	103,403.4	609,862	1.8
2	인도	31,257,720	41,383	22,650.5	418,987	1.3
3	브라질	19,473,954	54,517	91,616.5	545,604	2.8
4	프랑스	5,973,912	21,573	88,418.2	111,737	1.9
5	러시아	5,955,089	23,164	40,806.6	148,229	2.5
6	영국	5,586,716	44,081	82,295.5	129,182	2.3
7	터키	5,554,317	8,151	65,857	50,709	0.9
8	아르헨티나	4,798,851	14,632	106,179.2	102,818	2.1
9	콜롬비아	4,679,994	11,244	91,975.8	117,482	2.5
10	이탈리아	4,297,337	4,254	71,075.2	127,905	3.0
11	스페인	4,219,723	30,587	90,252.2	81,166	1.9
12	독일	3,756,497	1,651	44,835.5	91,466	2.4
13	이란	3,603,527	27,379	42,902.7	87,837	2.4
14	인도네시아	2,983,830	33,772	10,908.9	77,583	2.6
15	폴란드	2,881,718	124	76,142	75,222	2.6
16	멕시코	2,693,495	15,198	20,890.7	237,207	8.8
17	남아공	2,327,472	16,240	39,243.4	68,192	2.9
18	우크라이나	2,321,081	1,195	53,073	55,245	2.4
19	페루	2,094,445	0	63,522.2	195,243	9.3
20	네덜란드	1,849,652	6,999	107,946.6	18,072	1.0
21	체코	1,671,685	313	156,101.2	30,342	1.8
22	칠레	1,602,854	996	83,847.9	34,611	2.2
23	필리핀	1,524,449	6,546	13,911.6	26,874	1.8
24	이라크	1,518,837	8,320	37,760.9	18,020	1.2
25	캐나다	1,432,208	517	37,947.2	26,473	1.8
26	방글라데시	1,136,503	7,614	6,900.9	18,498	1.6
27	벨기에	1,108,675	0	95,661.1	25,213	2.3
28	스웨덴	1,095,758	479	108,498.7	14,651	1.3
29	루마니아	1,081,875	102	56,237.3	34,260	3.2
30	파키스탄	998,609	2,158	4,520.8	22,928	2.3
31	말레이시아	951,884	11,985	29,410	7,440	0.8
32	포르투갈	939,622	4,376	92,149.6	17,232	1.8
33	이스라엘	855,552	1,118	98,844.4	6,454	0.8
34	일본	853,137	4,915	6,745.4	15,046	1.8
35	헝가리	808,945	56	83,738.7	30,019	3.7
36	요르단	762,706	286	74,752.1	9,922	1.3
37	세르비아	719,234	228	105,698.3	7,092	1.0
38	스위스	711,016	773	82,154.5	10,894	1.5
39	네팔	672,871	1,918	23,093.5	9,637	1.4
40	아랍에미리트	665,533	1,506	67,290.8	1,907	0.3
85	대한민국	184,103	1,838	3,590.9	2,063	1.1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주요 경제정책]

■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로 「K-반도체 대규모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을 6.10(목)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표**

-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K-반도체 전략」에서 발표한 5개 대규모 예타사업의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이 중에서 2개 사업은 '22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K-반도체 전략」의 구체적 예타사업]

구분	추진과제	기간
K-반도체 벨트 구축	▸소부장 특화단지 內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23~'32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23~'29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23~'32
	▸시장선도형 K-Sensor 기술개발	'22~'28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22~'28

주: 1)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란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통합된 반도체를 의미

- 먼저,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신성장을 위해 ①첨단 센서, ②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
  - 첨단 센서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은 주력산업의 데이터 처리·수집에 필요
- 그 후 K-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①소부장 양산형 테스트베드, ②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인프라 조성사업과 반도체 성장기반의 핵심인 ③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추가적인 사업기획 후 '23년부터 추진한다는 입장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테스트베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험평가, 컨설팅부터 양산 공정 테스트까지 종합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개발비 절감, 조기 상용화, 반도체 소부장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을 달성할 계획

■ **정부는 6.18(금)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

-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간 시장의 고용회복을 뒷받침하고자 ①고용센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②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개편 및 ③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현장 안착을 지원
  - 기업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인기업의 유형을 나누고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기숙사·고용장려금 지원 등 전반적인 고용여건 향상을 목표로 지원

[구인기업 유형별 채용지원 서비스]

유형	구분	서비스
온라인 알림형	돌봄·경비·청소	자율매칭(자동알림서비스)
인재지원형	연구기관·IT기업	자율매칭(직무중심)
대규모채용형	대기업 수시채용	집중채용지원(채용대행·행사)
인지도확산형	강소기업 등	집중채용지원(알선·적극개입)
고용여건개선형	소규모 영세기업	고용여건 향상 종합 지원

- 정부24와 같이 센터 방문없이 고용과 관련된 민원 및 업무처리가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고용센터를 구축('21~'23)
-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21.7월~, 특고 적용)에 맞춘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및 성과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을 확충

● 이와 더불어 코로나19가 최종 종식될 때까지 기업의 고용유지 및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

-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180일 → 270일)

  *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을 의미

-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PART 2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현안

Ⅰ.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 동향 및 시사점 ····· 80

Ⅱ.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분석 ····· 87

Ⅲ. 「EU 기후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 95

Ⅳ.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 및 시사점 ····· 101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 동향 및 시사점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박선우** 경제분석관(6788-3733)

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준금리 추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 각국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시행으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재 주요국 기준금리는 최저수준을 기록

■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1분기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자산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

- 미국은 2020년 3월 3일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1.00~1.25%로 인하하였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제로금리 수준인 0.00~0.25%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
- 영국(0.75%→0.1%), 호주(0.75%→0.25%), 캐나다(1.75%→0.25%) 등에서는 2020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두 세 차례의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최저금리 수준을 기록

■ **신흥개도국에서도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중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

- 브라질(4.5%→2.0%), 러시아(6.25%→4.25%) 등에서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속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기준금리를 최저수준으로 인하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2020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에서 0.5%로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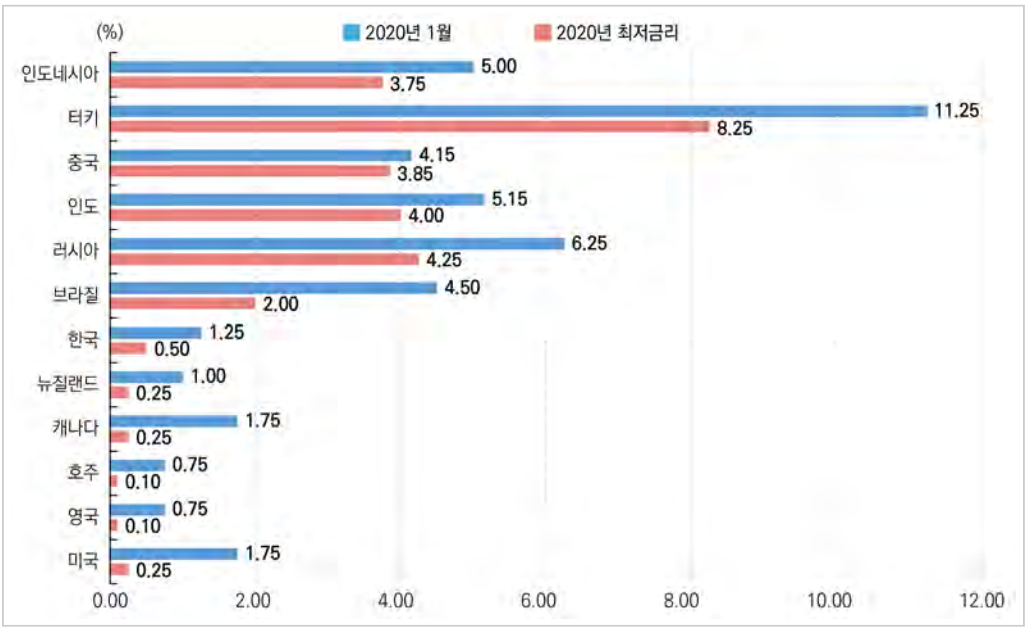
[표 1]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구분	수단	선진국						신흥개도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브라질	인도	터키	중국
금리	기준금리 인하	✓	✓	✓	✓		✓	✓	✓	✓	✓
자산매입	국채	✓	✓	✓	✓	✓	✓		✓	✓	
	기업어음(CP)	✓	✓		✓	✓	✓				
	회사채(CB)	✓	✓		✓	✓	✓				
	기타 민간증권				✓	✓					

자료: BIS Working Papers No.934(2021.3.)

※ 본 보고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주요국 물가상승률 통계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

[그림 1]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최저금리 수준



자료: Bloomberg(2021.6.)

2. 저금리 상황하의 세계물가 동향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1]와 함께 각국의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경기회복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

- 4월 발표된 IMF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보다 0.5%p 상향조정된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IMF에 따르면 세계 물가상승률은 2019년 3.5%에서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3.2%로 하락하였다가 2021년에는 다시 3.5% 수준으로 복귀할 전망**

-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은 2019년 1.4%에서 2020년 0.7%로 하락하였다가 2021년에는 빠른 경기회복과 함께 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1)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3.50%를 기록하였으며, 캐나다(68.15%), 영국(66.08%), 미국(54.02%)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

- 신흥개도국의 물가상승률은 2019년과 2020년의 5.1%에서 2021년에는 4.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신흥개도국의 물가상승률 또한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치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20년 3월 0.99%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 5월에는 2.47%로 최고치를 기록**

[표 2] 세계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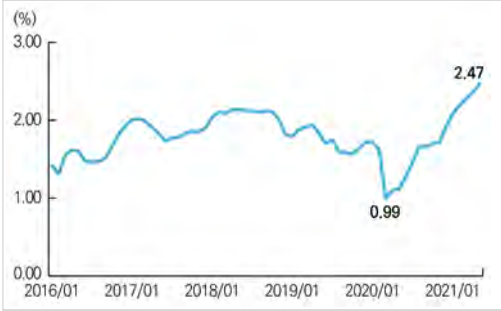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세계	3.6	3.2	2.7	2.7	3.2	3.6	3.5	3.2	3.5
선진국	1.4	1.4	0.3	0.7	1.7	2.0	1.4	0.7	1.6
신흥개도국	5.4	4.7	4.7	4.3	4.4	4.9	5.1	5.1	4.9

주: 2021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1.4.)

[그림 2]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 물가상승률 전망

주: IMF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1.4.)

[그림 3]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율



주: 기대인플레이션율(BEI) = 10년 일반국채금리 - 물가연동채권 10년물 금리
자료: FRED(2021.6.)

실제로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을 각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비교해 보면 최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남

■ **백신 보급에 따른 봉쇄조치 완화, 경제활동 재개, 소비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들어 주요국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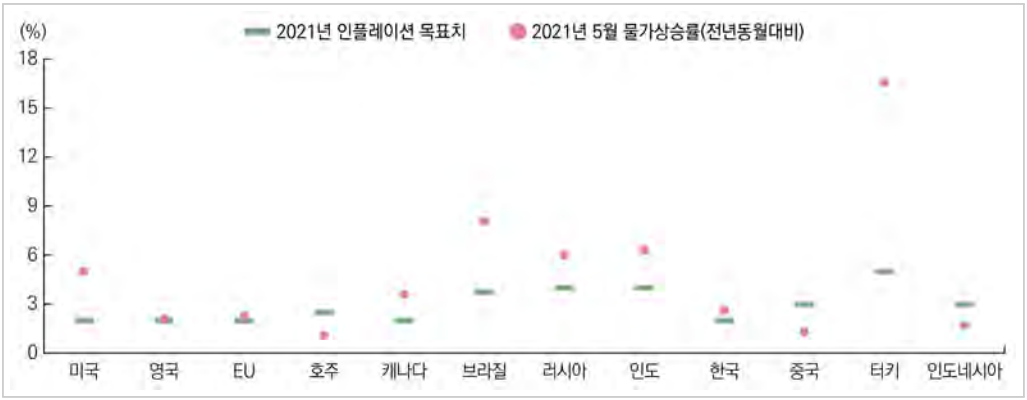
-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2020년 5월 0.1%까지 하락하였으나, 2021년 들어 미국 경기회복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며 2021년 5월에는 5.0%로 최고치를 기록
- 2021년 1월 이후 영국(2.1%)과 EU지역(2.3%)에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목표치(2.0%)를 상회하였으며, 캐나다의 경우 3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목표치(2.0%)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을 보임

- 브라질, 러시아 등 일부 신흥개도국[2]에서는 내수 회복세에 비해 공급 정상화에 애로를 겪으면서 물가가 오름세를 나타냄
-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들어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며 2021년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6%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호주,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호주에서는 정부의 각종 부양책으로 물가 상승요인의 영향력이 상쇄[3]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소매판매의 느린 회복세로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음

[그림 4] 주요국의 2021년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최근 물가상승률



주: 1)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범위로 제시된 경우, 상한과 하한의 평균값으로 계산
2)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2021년 1분기 기준

자료: 각국 중앙은행, Bloomberg(2021.6.)

3.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 동향

최근 빠른 경제회복과 함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 **미국은 2021년 6월에 열린 FOMC에서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일시적이라는 시각을 유지하면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0.00%~0.25%)에서 동결하고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지속하겠다고 발표**

2) 신흥개도국 중에서 터키의 경우 고금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리라화 가치 폭락, 높은 물가상승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3) 신규 주택건축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영향으로 건축 부문의 물가상승률이 낮게 나타남

- 다만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통해 2023년까지 최소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0.5%p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

■ **경기회복과 함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주요국에서는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및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계획**

- 캐나다는 2021년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국 중 처음으로 테이퍼링에 들어갔으며, 기준금리 인상 시점 또한 2023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
- 호주는 1천억 호주달러 규모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21년 9월 이후에는 국채매입 규모를 현재의 주당 50억 호주달러에서 40억 호주달러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힘
- 아이슬란드, 헝가리,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
-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이르면 올해 9월, 뉴질랜드는 내년 3분기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

■ **일부 신흥개도국[4]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 지난해 하반기부터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을 통해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

[표 3] 2021년 이후 주요국 기준금리 변화

국가명	공표일	기준금리	
덴마크	2021.3.11	인상	-0.60% → -0.50%
터키	2021.3.18.	인상	17.00% → 19.00%
캐나다	2021.4.21.	동결	0.25%
		* 양적완화 규모는 축소(주간 국채 매입규모 40억CA$→30억CA$)	
아이슬란드	2021.5.19.	인상	0.75% → 1.00%
브라질	2021.3.17.	인상	2.00% → 2.75%
	5. 5.		2.75% → 3.50%
	6.16.		3.50% → 4.25%
러시아	2021.3.19	인상	4.25% → 4.50%
	4.23.		4.50% → 5.00%
	6.11.		5.00% → 5.50%
한국	2021.5.27.	동결	0.50%
미국	2021.6.16.	동결	0.00%~0.25%
중국	2021.6.21.	동결	3.85%(1년 만기 LPR 기준)
헝가리	2021.6.22.	인상	0.60% → 0.90%
체코	2021.6.23.	인상	0.25% → 0.50%
멕시코	2021.6.24.	인상	4.00% → 4.25%
호주	2021.7.6.	동결	0.10% → 0.10%
		* 2021년 9월 이후 양적완화 규모 축소(주간 국채매입 규모 50억AU$→40억AU$)	

자료: 각국 중앙은행(2021.7.)

4) 신흥개도국 중에서 터키의 기준금리는 2020년 1월 11.25%에서 8월 8.25%까지 하락하였으나, 2021년 3월에는 19.00%까지 상승함. 그러나 이와 같은 터키의 기준금리 인상은 긴축적 통화정책의 일환이 아닌 리라화 가치 방어를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실물지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지난 6월 24일에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금리수준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완화 정도를 확대한 것으로 경기회복세에 맞춰 연내 금리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6월 발간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완화적인 금융여건 지속으로 민간 신용 확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5]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우리경제의 중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

[그림 5]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가계부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4. 시사점

올 하반기로 갈수록 누적 백신 접종률 증가로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일정이 예정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몇몇 국가들에서는 이미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인상했거나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

5)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에 대해 중앙은행, 학계 등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대체로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가격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한국은행(2021.6.), 「금융안정보고서」

- 주요국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가 확대될 경우 아직 경기회복세가 미진한 일부 신흥개도국에서도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 다만 최근 들어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가별로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조절할 가능성 또한 존재

향후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국내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으로 각국이 조기 통화긴축에 들어갈 경우 일부 자산시장에서는 자산가격이 급락하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6]하였으며,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6) 2021년 1/4분기 국내 가계부채는 1,76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1.6.)

Ⅱ.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분석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김미애** 경제분석관(6788-4676)

1. 현황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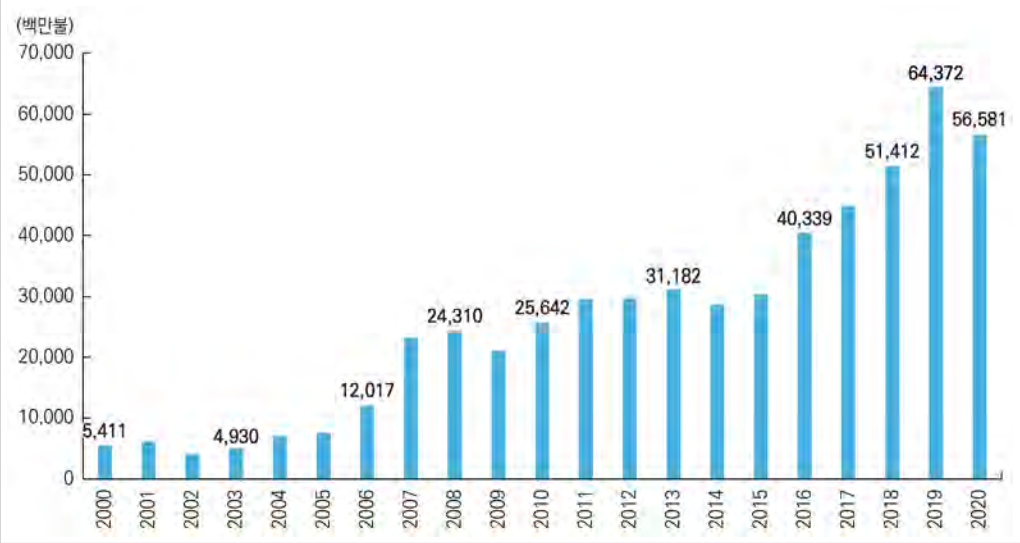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다소 둔화되었던 내국인 해외직접투자(ODI)는 2015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2000년대 초반 연평균 58억불 규모에서 2006년에는 120억불, 2010년에는 256억 4,200만불 규모로 빠르게 확대**

- 2000년~2010년까지 연평균 11.8%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도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6.7% 증가

■ **2019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43억 7,200만불을 기록하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 및 투자활동이 위축된 2020년에도 565억 8,100만불로서, 2018년의 514억 1,200만불을 상회**

[표 1] 해외직접투자(ODI)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본 분석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국내외 직접투자현황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 많은 순유출국이며 그 차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000~2005년에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투자자본이 더 많은 순유입국이었으나, 이후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증가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여 2006년 순유출국으로 전환**

- 글로벌금융위기 시기[1]를 제외하면 2006년 이후 순유출액[2]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음

[표 2] 국내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특징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 규모의 증가세도 가파를 뿐만 아니라 투자목적이나 업종, 투자자 규모[3]별 특징 등에서 과거와 차이를 보임

■ **저임금활용을 위한 수직적 투자[4]보다는 현지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투자가 크게 증가**

■ **투자 대상 업종을 보면, 과거에는 제조업의 생산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금융 및 보험업, 서비스업으로 확대**

1) 통상적으로 경기변동추세에서 벗어난 2009년~2010년을 의미
2)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액(ODI)과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차이
3) 투자주체인 기업이 대기업인 경우와 중소기업으로 구분
4) 해외직접투자에서 수직적 투자는 근로자 고용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평적 투자는 국내 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위한 해외지사 설치, 판매유통망 구축 등을 위한 일련의 투자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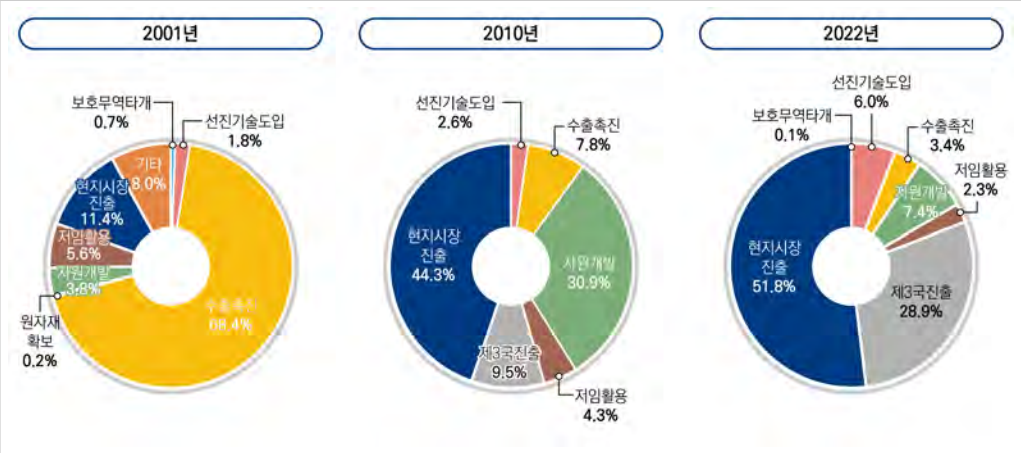
가. 투자목적

현지 시장진출[5]을 위한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01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목적은 수출을 촉진[6]하는 데 있었으나 2010년과 2020년에는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01년에 68%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인 수출촉진 목적의 투자는 2010년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8%, 2020년에는 3%에 불과
- 2010년의 해외직접투자는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와 자원개발, 제3국 진출[7]을 위한 투자가 각각 44%와 31%, 10% 순으로 비중을 차지
- 2020년에는 현지 시장진출 목적의 투자가 52%를 차지하였고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투자가 6%까지 증가한 것이 특징

[표 3] 해외직접투자 목적별 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제품의 인지도가 낮아 판로 개척을 통해 수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해외 현지시장에 맞춰진 생산환경 구축 또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술 확보 등의 필요성이 커진 것에 기인**

5) 현지법인 인수, 현지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한 투자
6) 해외지사 설치, 수출시장 판로 개척 등을 위한 투자
7) 세제 절감, 수송비용 및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생산거점을 이전하여 제3국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

■ **신기술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거점 이전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

- 산업구조변화가 가속화되고 신산업의 등장이 활발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신기술확보 목적의 투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는 점차 감소

나. 투자업종

투자 대상 업종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금융 및 부동산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전문과학 및 기술 분야 등 무형자산이나 서비스업 투자도 증가

■ **2000년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제조업은 30.4%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5년부터 점차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임**

■ **국내 연기금 및 금융기관의 국외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 및 부동산업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201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

- 2000년 해외직접투자 54억 1,100만불 중 제조업에 투자된 금액은 16억 4,600만불(30.4%), 금융 및 보험업에 투자된 금액은 14억 9,100만불(27.6%) 규모
- 반면 2020년의 해외직접투자 중 제조업 투자액은 132억 6,700만불로 23.4%, 금융 및 보험업의 투자액은 184억 60만불로서 제조업보다 높은 32.5%를 차지

■ **전문과학 및 기술 분야 투자는 2000년 3,200만불, 비중은 0.7%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투자액 9억 1,100만불을 달성하여 1.6%까지 비중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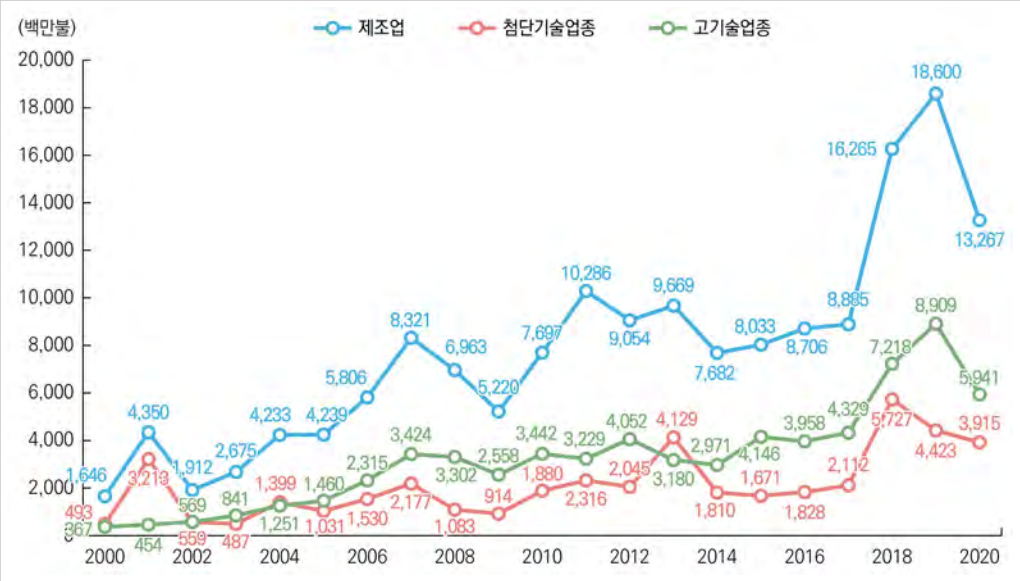
[표 4]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_전체 규모 및 주요 산업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조업 내에서 기술 수준에 따른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투자[8]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2000~2020년 기간 제조업 전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연평균 11.0%씩 증가했는데, 동기간에 첨단기술 업종과 고기술 업종[9]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의 연평균증가율은 각각 10.9%와 14.9%로 나타남

[표 5] 업종의 기술 수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투자자 규모별

2000년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9억 9,600만불, 중소기업은 22억5,000만불 규모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7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격차가 확대

■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

8) 해외 기술기업 M&A 및 연구소 설립 등을 포함

9) 통계청의 기술업종 분류에 따르면, 첨단기술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임. 고기술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임.

[표 6]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6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공통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금융업이며, 차상위 비중을 차지한 산업은 대기업의 경우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 중소기업은 부동산업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금융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대기업에서 89억 6,300만불, 중소기업에서 43억 3,900만불로 각각 26.3%와 32%의 비중을 보임**

-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30.2%, 중소기업의 경우 21.1%
-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중 34%가 금융업과 부동산업에 투자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53.8%가 금융업과 부동산업에 투자됨

■ **금융업 분야 투자를 제외하면,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비교적 다양한 산업에 분산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은 특정 산업에 집중**

- 투자다각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비중을 구하여 허쉬만-허핀달 지수(HHI)[10]를 비교한 결과, 투자대상 산업 집중도는 대기업 1018.9, 중소기업 1613.6으로 나타남
-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이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0) 산업에서의 시장 집중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각 참여자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곱하여 합산함. HHI의 값이 클수록 특정 산업의 집중률이 심한 것으로 평가. 본고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서 각각의 투자대상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제곱하여 투자의 집중도를 구하는 것으로 응용함.

[표 7]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주력 산업 비교_투자규모 상위5개 산업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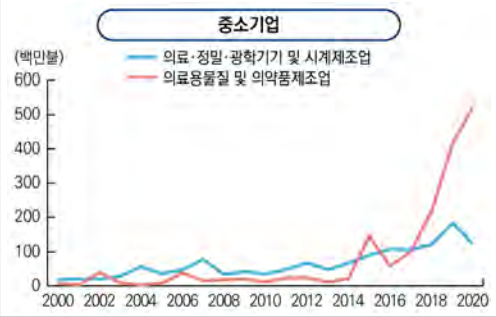
첨단기술 업종 중 전자부품 제조업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의료용 기기 또는 의약품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에서 보다 비중있게 투자되고 있음

■ **전자부품 제조업의 경우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글로벌 최상위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25억 6,800만불, 중소기업이 4억 6,600만불 규모로 규모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투자됨**

■ **반면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의 투자 규모가 대기업 투자 규모의 2배를 상회**

- 2020년 기준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4,700만불 수준이나 중소기업에서는 1억 2,200만불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3,600만불, 중소기업의 투자규모는 5억 2,200만불 수준으로 약 15배의 큰 차이를 보임

[표 8] 기업규모별 첨단기술 업종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해외 시장 및 판로 확대, 금융 수익 증가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력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국내 고용 및 투자가 구축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됨

특히 금융 및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자본수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글로벌금융시장 변동에 국내 경제가 민감해지는 단점이 있음

- **글로벌 금융 위험에 대한 국내 경제의 노출이 커진 만큼 금융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필요**

-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첨단화되는 투자구조에 대한 감독 역량을 키워,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 마련 필요**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제조업의 국내 생산기반 약화, 고용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안이 필요

- **해외직접투자는 시장 확대 및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수익 증대, 국내 기업의 빠른 성장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바람직**
- **하지만 국내 고용 및 투자 기회가 제한되거나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 제품을 대체하면서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영향도 초래할 수 있음**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의 대안으로서 국내 투자를 고려토록 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전략 마련 필요

- **기 실행 중인 유턴기업 지원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투자 증가를 유도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함**
  - 관계 당국에서는 이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 중소기업 우선, 고용창출 요건 등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11)]
  - 국내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턴기업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11)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 또는 설비투자를 국내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데, 2014년 이후 2021년 5월 현재까지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93개 기업에 불과하여 유턴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III. 「EU 기후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허가형** 경제분석관(6788-4678)

1. 「EU 기후법」의 주요 내용

유럽의회는 지난 6월 28일에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법제화하는 「EU 기후법 European Climate Law」을 채택했으며, 동 법은 각 국의 서명 이후 발효 예정

■ **유럽 그린딜(2019.12)과 기후정상회의(2021.4)에서 발표된 강화된 유럽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했다는 의의가 있음**

- 2020년 유럽 기후법이 제안된 이후 개별국의 의견을 수렴한 법안을 채택

■ **「EU 기후법」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목표로 함[1)]**

- 당초 유럽의회에서 주장한 60% 감축보다는 낮지만 기존 목표인 40% 보다는 대폭 상향

유럽위원회는 7월 14일에 「EU 기후법」 이행을 위한 정책 패키지 'Fit for 55'를 추가로 발표

■ **'Fit for 55'는 2030년까지 EU 배출량을 55% 줄이기 위한 정책 패키지**

- 2020년 EU의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6% 줄어든 수준이며, 현재 정책이 유지되는 경우 2030년에 1990년의 35% 감축 가능하므로[2)], 55% 감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 **회원국간 배출량 감축기여의 조정과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 차량용 CO_2 배출량 기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건물부문 에너지 이용, 재생에너지 지침 및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침, 탄소세 등의 제·개정을 포함[3)]**

-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은 탄소국경세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며,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본 보고서는 유럽위원회와 세계은행, 주한벨기에대사관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1)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u-climate-action/law_en

2) European Commission, EU Reference Scenario, 2016
https://ec.europa.eu/clima/policies/strategies/analysis_en

3) Fit for 55
https://ec.europa.eu/info/system/files/2021_commission_work_programme_new_policy_objectives_factsheet_en.pdf

[표 1] 「유럽 기후법」의 정책 패키지(Fit for 55)

구분	항목	주요 내용
감축 목표 설정	회원국간 배출량 감축 기여	배출권거래제 비적용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회원국별 1인당 GDP에 근거하여 차별적으로 부여
배출량 감축 방안	차량용 CO_2 배출량 기준 개정	2030년 전체 내연기관 자동차 배출량 55% 감축. 2035년 내연기관 완전 퇴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상한축소, 해상 및 항공 운송의 ETS 도입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수입품에 EU 역내 기업이 지불하는 탄소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부과
에너지 공급 및 이용	에너지세 지침	에너지원별 세제로 전환 및 항공유와 선박유 과세
	재생에너지 지침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40%로 상향
	건물부문 에너지 이용 규제	건축물 에너지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냉난방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매년 확대
흡수원	삼림 및 토지이용규제	2030년까지 3.1억톤 CO_2를 흡수 하며 30억 그루 식재
기타	사회적 기후기금 조성	배출권거래 수익의 25%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 구매 및 주택 단열 등을 지원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침 개정, 대체연료 기반시설의 보급 등	

자료: EC, *Commission work Programme 2021: Annex I*와 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https://ec.europa.eu/info/system/files/2021_commission_work_programme_new_policy_objectives_factsheet_en.pdf

2. 「EU 기후법」의 영향과 향후 전망

EU내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수출 상대국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에너지세, 차량용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4]은 대EU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

■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

- 탄소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항공 및 선박용 연료에도※ 탄소세를 부과하고 오염 배출이 적은 연료 사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 항공유 과세로 항공운임 상승 및 LNG 등 저탄소에너지원을 연료로 하는 선박 수요가 증가할 전망

※ 1990년 배출량을 100으로 할 때, 2018년 수송부문 전체는 123이며 항공은 218, 국제선박은 136으로, 전체 수송부문 배출량이 증가했지만 항공과 선박부문 배출량이 평균이상으로 증가

4) 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차량용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따라 2035년부터 EU내에 등록되는 모든 신차의 탄소배출량은 0이 되어야하므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금지될 예정**

- 전기차 및 수소차 판매가 증가하며 관련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전망

■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위해 제안된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안)은 2023년부터 EU내 거래되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부터 부분적으로 도입하며 2026년 이후 전면 도입할 것으로 예상**

-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

※ 탄소누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이동함으로써 전지구적인 탄소배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

- CBAM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CBAM적용 품목의 수입자는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인증서를 구매해야하므로 실질적으로 관세의 역할[5)]

※ 예를 들어, EU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배출하는 탄소가 10t인데, 12t 배출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2t만큼의 CBAM 증명서를 구매하며 CBAM 가격은 EU 배출권 가격을 기준함

[표 2] EU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안)

- (형식)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안) 규제(Regulation)
  - ▲CBAM 당국 ▲배출권(CBAM certificate) ▲국경에서의 행정절차 ▲이행 ▲항소 ▲위임법률/위원회 ▲EU ETS와의 조율을 위한 과도 규정 등 총 12개 장(chapter)의 45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 (적용 대상)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에 적용
  - 배출량은 생산 공정 과정의 온실가스(직접 배출량)과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
- (원산지 지불 탄소가격) 수입업자는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country of origin)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상응하여 자신이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CBAM certificate)의 수량을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수입업자는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에 EU로 수입한 제품에 내포된 배출량과 CBAM 배출권의 수량을 보고해야 함
  - 배출권(CBAM certificate) 가격은 EU 탄소시장과 연계되고 평균가격에 근거함
- (도입 시기) 2023년 일부 조항이 도입되고 전환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주벨기에 대사관,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동향", 2021.6.7.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은 EU가 1t당 30유로를 전 분야에 과세할 경우 연간 10.6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탄소국경조정 메카니즘의 비용산정 기준이 되는 유럽 배출권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향후 국내 기업에 실질적으로 관세 부담이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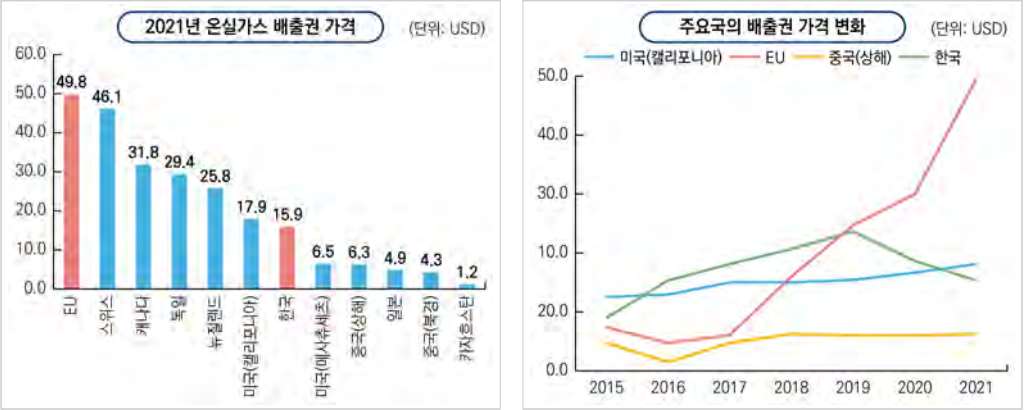
■ **2021년 4월 기준 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우리나라 배출권보다도 3배 높은 수준**

- 2020년 기준으로 EU의 온실가스 배출권은 30.1달러이고 우리나라 배출권은 18.8달러로 1.6배 차이였으나 2021년 4월에는 3.1배 차이로 확대됨

■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은 2018년까지는 EU보다 높았으나, 이후 EU의 배출권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최근 가격차가 확대**

- 배출권 가격은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배출권거래제 3기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6)]

[그림 1] 국가별 배출권 가격 비교



자료 : 세계은행, Carbon Pricing Dashboard (접속일:2021.7.8.)

유럽은 2019년 12월에 그린딜을 발표한 이후 법적·제도적 기반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므로, 'Fit for 55'의 이행방안도 일정대로 구체화할 전망

■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선언(그린딜) 이후 감축목표를 법제화(「기후법」)하고, 투자계획과 산업전략,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소전략, 적응전략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

6) 배출권 거래제 3기가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배출권 할당량은 2기 보다 감소.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2기(2018~2020년) 5.7억t에서 3기(2021~2025년) 5.2억t으로 감소한 반면, 대상기업은 589개에서 684개로 증가. 결과적으로 기업별 연평균 무상 할당량은 97만t에서 76만t으로 감소. 철강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유상할당 비중이 2기 3%에서 3기 10%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시행예정인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과 에너지세도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 대한 산업 업종별 대비가 필요**

[표 3] EU 그린딜 발표 이후 주요 일정

2019.12.11	EU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 발표
2020.1.14	EU 그린딜 투자계획 및 전환기 체제(Transition Mechanism) 발표
2020.3.4	「EU 기후법 (Climate Law)」 제안
2020.3.10	'EU 산업 전략 (European Industrial Strategy)' 채택
2020.3.11	순환경제 이행계획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제안
2020.7.8	'에너지체계 통합과 수소에 대한 EU 전략' 채택
2020.9.17	2030 기후변화 목표(Climate Target) 발표
2021.2.24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전략(New 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2021.5.12	오염 제로 이행계획(zero pollution action plan)
2021.6.28	「EU 기후법」 제정
2021.7.14	Fit for 55에 대한 입법 초안을 제시
2021.7.6~15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유엔 고위급 포럼
2021. 4분기	Fit for 55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2021.11.1.-12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지 : 영국)

자료: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

유럽위원회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관련 정책 도구를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음

■ **「EU 기후법」은 탄소중립 이행과정과 수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23년 9월, 그리고 이후 5년마다 조치 사항들에 대해 평가하여 탄소 중립 목표에 미진한 회원국에게 권고사항을 제시할 계획**

- 과학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조언을 실시

■ **산업 부문별 협조를 통해 각각의 로드맵을 도출하며, 마이너스 탄소 배출을 추구하기 위해 탄소 포집 기술을 확대 적용**

3. 시사점

「EU기후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EU 내외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의의를 가짐

■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 탄소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도를 EU역내외 국가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

- EU와 탄소 가격이 유사한 국가에 대해서는 CBAM적용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EU외 국가로도 확대될 전망

■ **단, 'Fit for 55'가 구속력을 얻기 위해서는 유럽의회 과반수와 EU 27개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최종 채택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국내 산업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탄소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는 24.4%이나, 금년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감축목표를 상향할 계획**

-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탄소규제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제시하고, 국내 기업의 탄소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

■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왔으며 2019년까지 EU보다 배출권 가격이 높았고 가격도 상승세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

대EU 수출기업은 동종업계 대비 높은 수준의 탄소저감 기술을 확보하여 탄소조정메카니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어느 국가와 기업이 얼마나 더 빨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가가 직접적인 산업 경쟁력을 좌우**

- EU는 직접배출량(연료연소배출량, 산업공정배출량)뿐만 아니라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도 반영할 계획이므로 제조업의 탈탄소화와 함께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온실가스 감축이 생산량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과 기술혁신 노력이 필요**

Ⅳ.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 및 시사점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김승현** 경제분석관(6788-4751)

1. 기술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화, 디지털 전환, AI 등 기술진보에 의해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숙련 일자리 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주목받고 있음

■ **근로자가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숙련은 일반적으로 학력, 직무(task)를 습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업무의 정형성/반복성 등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여 정의됨**

- 일반적으로 중숙련 일자리는 조립이나 서무직 같은 정형적 육체/인지업무 위주의 일자리를 의미하며, 고숙련 일자리는 생산과정을 설계/관리하는 엔지니어 등 비정형적 인지업무 위주의 일자리를, 저숙련 일자리는 청소원, 용역직원 등 비정형적 육체업무 위주의 일자리를 의미

■ **저숙련·고숙련 일자리와 달리 업무의 정형성 또는 반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숙련 일자리는 기술적 대체성(technological feasibility)과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 측면에서 기계로 대체하기 용이함**

- 저숙련 일자리는 Moravec's Paradox[1)]가 시사하듯 인간에게는 쉬우나 기계에게는 어려운 업무일 경우가 많고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효과가 높지 않아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적으며, 고숙련 일자리는 업무의 특성상 기술적 대체성이 적음
- 그러나 중숙련 일자리는 자동화를 통한 기술적 대체성이 높고 인건비 절감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대체되기 용이함

[표 1] 숙련수준 구분

		정형적	비정형적
육체적 업무	작업 예시	반복적인 조립작업 집기, 분류	- 건물관리 청소
	숙련수준 구분	중숙련	저숙련
	대체 효과	높음	낮음
인지적 업무	작업 예시	계산 자료보관	경영 전략 수립 생산공정 설계/관리
	숙련수준 구분	중숙련	고숙련
	대체 효과	높음	낮음

※ 본 연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1) Moravec's Paradox란 AI로 복잡한 논리를 구현하기는 쉬우나 감각인지와 운동은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AI에게 쉽고, 인간에게 쉬운 것은 AI에게 어렵다."로 요약

숙련수준에 따른 기술진보의 차별적 일자리 대체효과는 근로자의 임금 분포를 양극화시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평가할 필요

■ **숙련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자료의 한계상 본고는 직업별 4백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 순으로 직업군을 분류하고, 이를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적용하여 숙련수준을 측정(〈Box 1〉 참고)**

〈BOX1〉 직업별 숙련수준 측정 방법

■ **직업별 숙련수준 측정 방법은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직업별 임금수준으로 직업군을 분류하고 이를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대응시켜 활용**

- 김한준·서현주(2016)는 미국의 O*NET을 벤치마킹하여 총 44개의 업무수행능력 문항을 해당 직업에서의 중요도(5점), 현재 일자리에 필요한 숙련수준(7점)으로 구분하여 질문
- Acemoglu·Autor(2011)는 직업별 평균임금 수준을 숙련수준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였고 박창현·유민정(2020)은 월 4백만원 이상의 임금근로자 비중 순으로 직업군을 분류

[직업별 4백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

직업(대분류)	단순노무	서비스	판매	기능원	장치·조립	사무	전문가	관리자
비중(%)	0.52	5.71	8.39	13.45	15.08	25.48	31.42	77.57

주: 1) 비중(%) = 100 * (각 직업별 월 임금이 4백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 수)/(각 직업별 전체 임금근로자 수)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0년 하반기)

- 이외에도 교육수준, 특정 유형의 숙련에 대한 기업의 평가, 작업 요소에 대한 수요변화로 측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숙련수준 측정 방식이 존재

[숙련수준별 직업분류 및 코드연계표1)]

숙련그룹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한국표준직업분류(KSCO)[2]	
	대분류	직업	대분류	직업
저숙련 직업 (low-skilled)	5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service workers, and shop and market sales workers)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elementary occupations)	9	단순노무 종사자
중숙련 직업 (middle-skilled)	4	사무 종사자 (clerks)	3	사무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craft and related workers)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8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고숙련 직업 (high-skilled)	1	관리자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1	관리자
	2	전문가 (professionals)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주: 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및 군인은 제외
2) 통계청 국제표준직업분류 연계표 기준

자료: OECD(2019), "Where Have the Middle Class Job Gone?", Ch3 in Under Pressure: The Squezzed Middle Class를 박창현·유민정,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둔화 요인 및 평가", BOK 이슈노트, 2020-5에서 재인용

2.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숙련수준별 전체 취업자 수 추이는 고숙련·저숙련과 달리 중숙련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이를 연령별로 분해하면 60세를 전후로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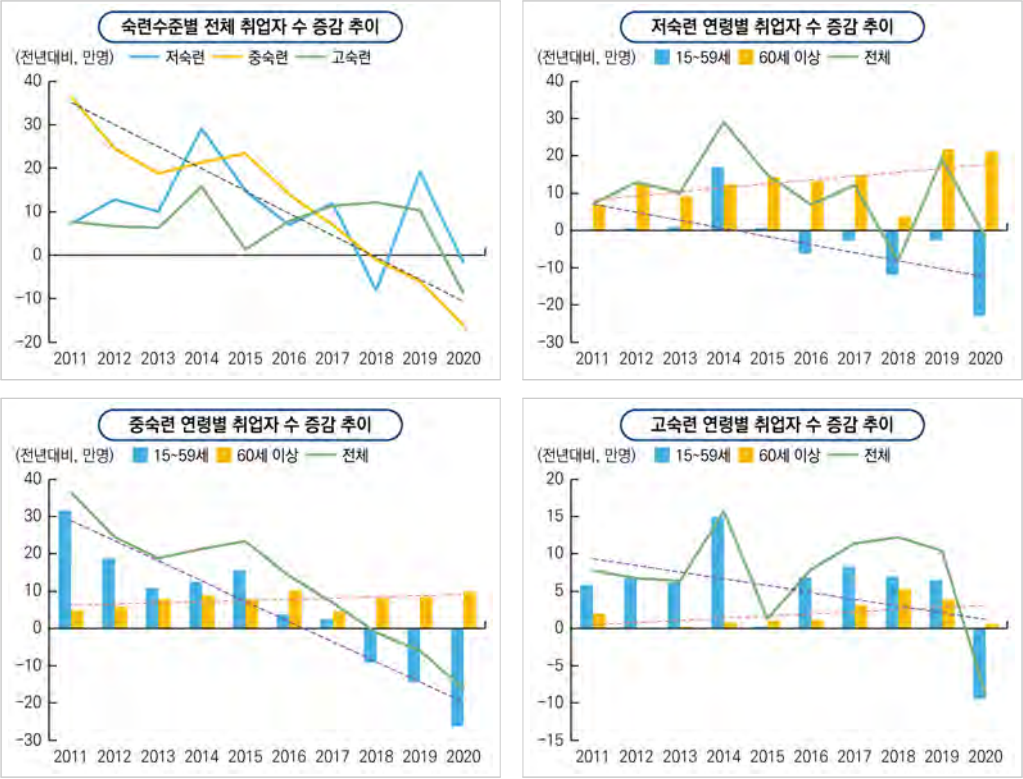
■ **고숙련·저숙련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나 중숙련 취업자 수는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됨**

- 중숙련 취업자 수 증감 추이(전년대비, 만명): -1.13('18) -6.0('19) -16.2('20)
- ICT, AI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변화가 고숙련·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유지 또는 증가시키고,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위와 같은 현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는 60세를 기준으로 모든 숙련수준에서 증감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6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모든 숙련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증가세를 유지**

- 2019년 이후 60세 이상의 저숙련 연령별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중·저숙련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유지된 데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보임

[그림 1] 숙련수준-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산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중숙련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숙련 이외의 숙련수준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중숙련 취업자 수가 다른 숙련수준에 비해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감소**

- 서비스업 및 제조업에서 중숙련 취업자 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자동화 등 정형편향적인 기술진보*로 인한 구조적 실업의 가능성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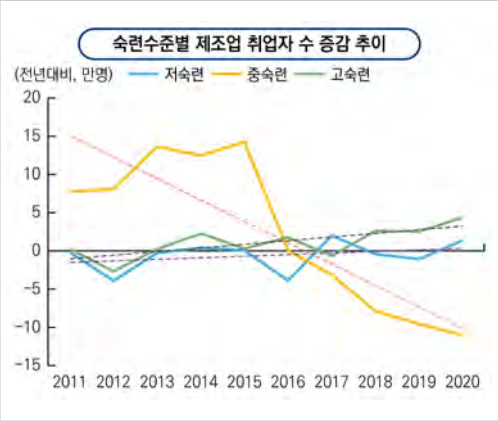
  * '정형편향적인 기술진보'란 공정 자동화 등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는 기술진보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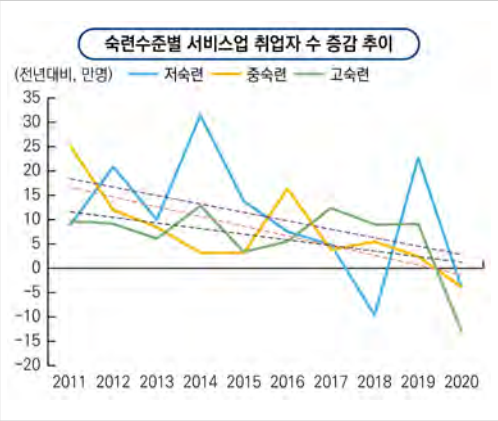
-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중숙련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더 강한 이유는 서비스업보다 대면 업무가 적고 제조공정이 자동화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임

■ **특이사항으로 서비스업은 중숙련 외에 다른 숙련수준에서도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제조업은 저숙련·고숙련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중숙련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제조업 고숙련·저숙련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각각 4.37만명, 1.35만명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중숙련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1.03만명 감소하여 최근 10년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

[그림 2] 숙련수준-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저숙련·중숙련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고숙련 취업자 수 증감 추이는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나타남

■ **남성의 중숙련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아직 감소세로 전환되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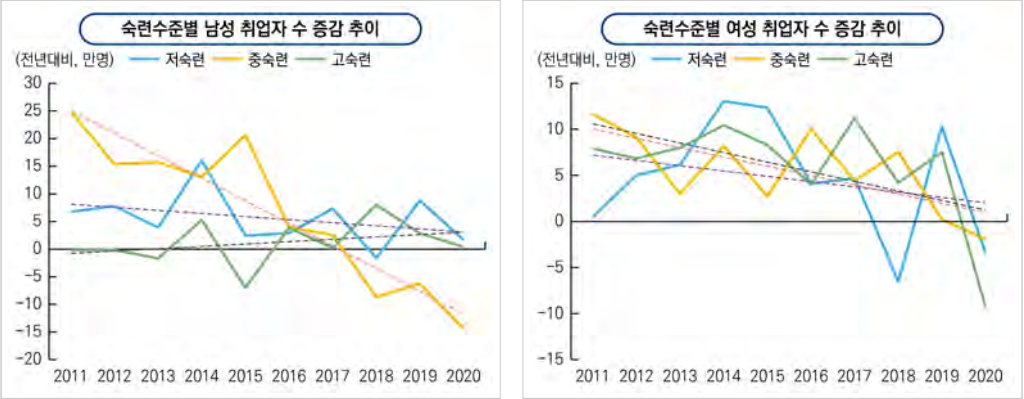
- 남성의 중숙련 취업자 수가 여성과 달리 감소세로 전환된 이유는 자동화, 외주화 등으로 대체되는 제조업 중숙련 직업군 종사 비중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기 때문

  * 제조업 전체 중숙련 취업자 수 중 남성 중숙련 취업자 수 비중은 2010~2020년 동안 73~75%를 유지

■ **그러나 고숙련 취업자 수는 남성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나, 오히려 여성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이 여성 고숙련 취업자 수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남성 고숙련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0.4만명 증가하였으나 여성 고숙련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9.29만명 감소

[그림 3] 숙련수준-성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3. 요약 및 시사점

전체적으로 고숙련·저숙련 취업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중숙련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중위 위축 양상을 보이며, 세부집단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중숙련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임

■ **서비스업 및 제조업 모두 중숙련 취업자 수가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제조업에서 그 정도가 가파른 양상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적 실업의 가능성을 시사**

숙련수준은 임금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중숙련 일자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음

■ **임금수준에 미치는 요인은 노동조합 유무, 연공서열제도 등 다양하나 숙련수준 또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하므로 중숙련 일자리가 공동화된다면 근로자의 소득분포가 양극화될 가능성이 존재**

PART 3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이슈

Ⅰ.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의 특징 및 향후 전망 ····· 108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의 특징 및 향후 전망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오현희 경제분석관(6788-4657)

최근 국내물가는 에너지와 식료품 등 공급측면의 물가 오름세와 함께 관리물가가 하락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들어 경기회복세와 백신접종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효과 등으로 국제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

■ **최근 주요 선진국의 식료품 물가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시현**

■ **관리물가는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의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소비자물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

- 특히 관리물가는 공공서비스 및 개인서비스 물가항목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 물가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 관리물가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 또는 편제한 가격지수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을 총수요압력, 원자재가격, 환율 등으로 구성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이들 변수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원물가의 경우 총수요압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에너지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시차변수로 측정된 물가변동의 지속성은 개인서비스 등 근원물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에너지물가에서는 낮게 나타남**

본 소비자물가 실증분석 모형을 이용할 경우,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2.0%) 수준에 근접하는 수치를 기록할 전망

■ **근원물가와 에너지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식료품물가의 상승세는 둔화될 전망**

- 근원물가의 경우 총수요압력에 대한 반응과 지속성이 높아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물가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하반기 중에도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
- 식료품물가는 농축산물 수급이 점차 안정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 **2021년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 수준을 나타낼 전망**

- 올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적치(1.8%)와 하반기 전망치를 고려한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8%로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 결정요인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통계청 물가 원자료 등을 가공하여 작성

1.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연구배경

2021년 들어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4~6월 중 물가상승목표인 2%를 상회

■ **전년도의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 농축산물 가격 강세, 공업제품과 서비스물가 상승으로 오름세를 지속하며 1~6월 중 전년동기대비 1.8% 상승**

- 2020년 소비자물가는 정부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 물가 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폭 둔화로 전년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침
- 2021년 들어 농축수산물 물가는 봄철 이상기후[1] 등으로 채소류와 과실류 작황이 부진하여 이들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달걀 등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1~6월 중 12.6% 상승
- 지난해 국제유가 급락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던 공업제품 물가는 유가상승으로 석유류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3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여 1~6월 중 1.3% 상승
- 서비스물가는 전월세 등 집세물가와 외식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1~6월 중 1.0% 상승

■ **특히 2/4분기 중에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류 가격 오름세로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2.4% 상승**

- 국제유가는 지난해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OPEC+의 원활한 감산, 전세계적 수요회복 등에 힘입어 5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118.6% 상승[2]

[그림 1] 연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그림 2]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 추이

주: 2021년은 1~6월 평균상승률
자료: 통계청

1) 3월 이상 고온 지속, 4월 한파와 초여름 날씨, 5월 눈과 잦은 비 등 급격한 날씨 변화가 나타남("2021년 봄철 기후특성", 기상청)
2) 두바이, 브렌트, WTI 3개 유종 평균(자료: Bloomberg)

최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양상

■ **2021년 물가상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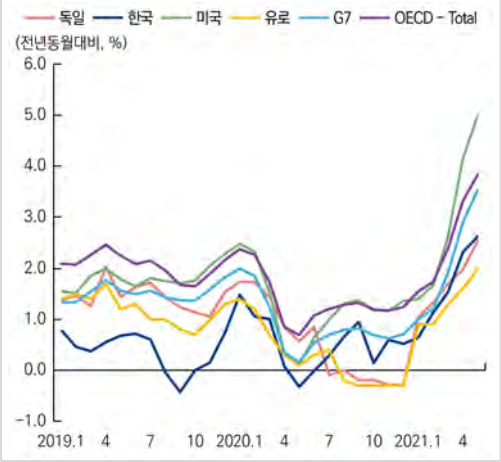
-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0% 상승하며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유로존 소비자물가도 2.0% 상승하여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

■ **또한,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으로 생산자물가도 큰 폭으로 오르며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 5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0% 오르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일본의 생산자물가도 4.9% 상승하여 12년 8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 **주요국에서는 최근 들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자산매입 축소와 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 시행에 대한 논의가 증대**

[그림 3] 주요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OECD

[그림 4] 주요국 생산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 **국내에서도 물가상승 및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는 등 현재의 물가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구되는 상황**

2. 최근 국내물가의 특징

가.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압력 증대

2021년 들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물가의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

■ **2020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의 영향으로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급락**

-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석유제품 등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 **2021년 들어 주요국의 경기회복, 백신접종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효과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도 오름세를 지속**

[그림 5] 주요국 에너지물가 추이

자료: OECD

[그림 6] 두바이유와 S&P GSCI 지수[3)]

자료: Bloomberg

에너지물가와 더불어 식료품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며 공급측면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

■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이 포함된 식료품 가격은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상승**

3) 금속, 곡물, 에너지 등 24개 부문의 원자재를 포함하는 원자재 시장 벤치마크 지수

- 2020년 7~8월 중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 등으로 채소류와 과실류 출하가 지연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
- 2021년 들어서도 이상 고온과 한파 등 급격한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두자릿 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계란과 닭고기 등을 중심으로 축산물 가격도 상승

최근 주요 선진국의 식료품물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냄

■ **주요국의 경우 2020년 상반기 중 봉쇄조치에 따른 생필품 사재기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하반기 중 외부활동 재개와 봉쇄조치 완화 등으로 식료품물가의 상승폭이 둔화세를 보임**

■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 초반 봉쇄조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식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기상여건 등 외부요인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식료품물가가 상승**

[그림 7] 농축수산물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8] 주요국 식료품물가 추이

자료: OECD

나. 관리물가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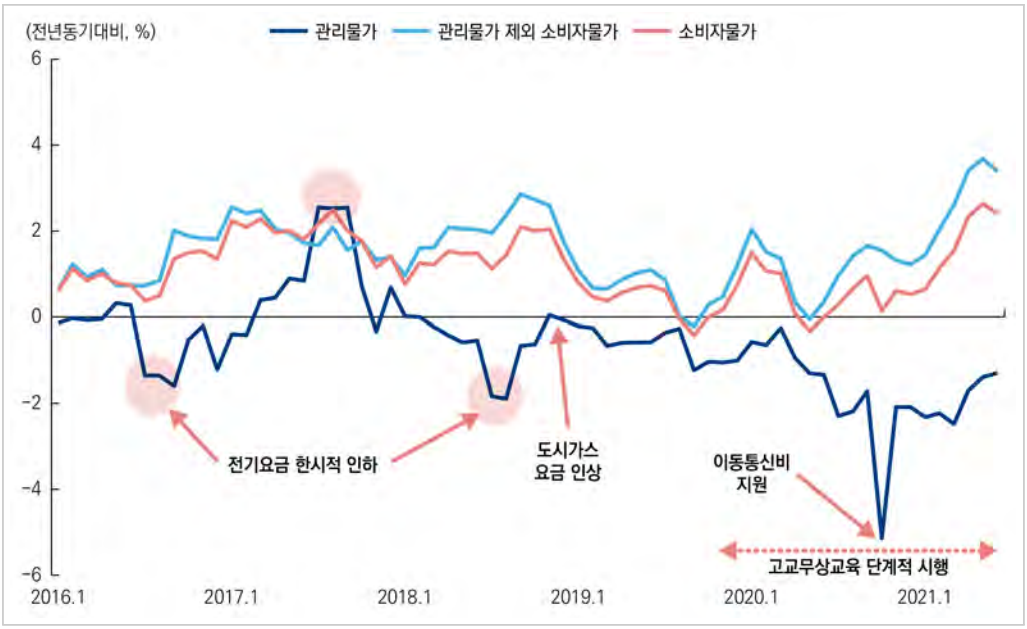
정부정책의 영향 등으로 관리물가[4]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4) 관리물가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 또는 편제한 가격지수("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 한국은행, 2018.7)

■ **2018년부터 관리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으로 하락폭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

-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납입금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매월 소비자물가를 0.2~0.3%p씩 낮추고 있음[5)]
- 2020년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씩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유치원 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 등 교육비가 하락
- 2019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치아진료 및 한방 대상 건강보험 확대,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 등 건강보험 확대 · 적용 등 의료비 지원도 관리물가 하락에 기여
-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으로 2020년 2/4분기부터 관리물가가 2% 이상 하락하였으며, 10월 중 정부의 통신비 지원[6)] 효과로 휴대전화료가 급락(전년동월대비 -21.7%)하면서 5.1%까지 하락

[그림 9] 관리물가와 관리물가 제외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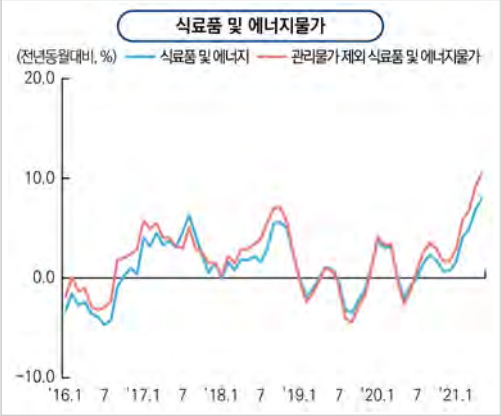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와 같은 관리물가 하락은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관리물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p): 2016년(-0.11)→2017년(0.19)→2018년(-0.12)→2019년(-0.14)→2020년(-0.37)→2021년 1~6월(-0.41)

5)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 2019년 9월부터 고등학교 납입금은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하락하였으며, 2학년까지 확대된 2020년 4월부터는 60% 이상 하락, 일부 지자체에서 2021년 시행 예정인 1학년 무상교육을 2020년 2학기부터 실시하면서 하락폭이 더욱 확대
6) 정부가 만 16~35세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 지원

[그림 10] 관리물가 제외 물가와의 비교



자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품목별로는 근원물가의 경우 공공서비스 및 개인서비스 부문에 관리물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관리물가로 인한 물가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소비자물가(전체 가중치 1,000) 중 근원물가와 식료품 및 에너지물가의 가중치는 각각 785.9, 214.1을 차지**

- **근원물가의 경우 가중치 785.9 중 관리물가가 183.7을 차지하여 전체 항목 중 23.4%가 관리물가로 나타남**
  - 교육비, 의료비 등 정책의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 대부분 근원물가에 포함
  - 관리물가의 근원물가상승률 기여도(%p): 2018년(-0.01)→2019년(-0.25)→2020년(-0.40)→2021년 1~6월(-0.30)

- **반면, 식료품 및 에너지물가는 전체 가중치 214.1 중 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 관리물가의 가중치가 33.4로 15.6%를 차지**

- **우리나라의 근원물가는 OECD 평균 및 주요국에 비해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
  - 이는 GDP갭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수요측 상승압력이 낮은 가운데 여타 국가들에 비해 관리물가의 하락폭이 큰 것에 기인[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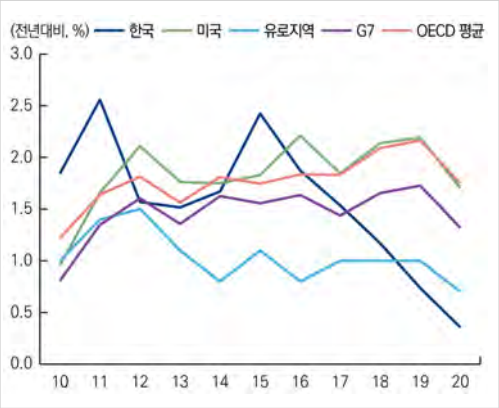
7) 주요국의 관리물가 상승률(2017년말 대비 누적상승률, %): 한국(-3.1), 그리스(-2.9), 일본(-2.2), 이탈리아(2.0), 영국(3.1), 독일(3.9), EU(5.4)(자료: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 BOK 이슈노트, 2020.12)

[표 1] 관리물가 구성품목별 가중치

품목성질별		관리물가 구성품목(가중치)
식료품 및 에너지	전기·수도·가스 (33.4)	전기료(17.0), 도시가스(14.8), 지역난방비(1.6)
근원 물가	공업제품 (19.5)	담배(10.3), 남자학생복(0.5), 여자학생복(0.4), 조제약(5.1), 병원약품(3.0), 교과서(0.2)
	공공서비스 (142.5)	하수도료(2.8), 쓰레기봉투료(0.7), 정화조청소료(0.6), 외래진료비(16.3), 한방진료비(1.2), 약국조제료(1.7), 치과진료비(5.5), 입원진료비(8.7), 도로통행료(1.8), 열차료(2.1), 도시철도료(3.4), 시내버스료(9.4), 시외버스료(1.2), 고속버스료(0.7), 택시료(3.5), 국제항공료(2.9), 우편료(0.1), 유선전화료(1.4), 휴대전화료(36.1),인터넷이용료(5.6), 방송수신료(3.2), 유치원납입금(3.2), 고등학교납입금(4.9), 전문대학납입금(2.7), 국공립대학교납입금(2.1), 사립대학교납입금(13.1), 국공립대학원납입금(0.5), 사립대학원납입금(1.8), 보육시설이용료(1.7), 요양시설이용료(0.9), 부동산중개수수료(1.7), 행정수수료(1.0)
	개인서비스 (16.8)	치과보철료(6.3), 병원검사료(1.6), 학교급식비(2.0), 보험서비스료(6.9)
	전기·수도·가스 (4.9)	상수도료(4.9)

자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1] OECD 주요국 근원물가 추이



자료: OECD

[그림 12] 근원물가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자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BOX〉 품목별 관리물가 산출 산식

■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시점은 2015년, 가격 및 가중치 기준시점은 2017년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품목별 관리물가를 산출**

- 2017년 기준 가중산술평균(라스파이레스 산식) 지수 산출

  - $L_{2017,t}^{2017=100} = \dfrac{\Sigma(P_i^t Q_i^{2017})}{\Sigma(P_i^{2015} Q_t^{2017})} \times 100 = \Sigma W_t^{2017}(P_i^t / P_t^{2017}),$

$$W_i^{2017} = \frac{(P_i^{2017} Q_t^{2017})}{\Sigma(P_i^{2017} Q_t^{2017})}$$

- 2015=100 기준 지수 산출

  - $L_{2015,t}^{2015=100} = L_{2015,2017}^{2015=100}/100 \times L_{2017,t}^{2017=100}$

  - $L_{2015,2017}^{2015=100} = \dfrac{\Sigma(P_i^{2017} Q_i^{2015})}{\Sigma(P_i^{2015} Q_i^{2015})} \times 100 = \Sigma W_i^{2015}(P_i^{2017}/P_i^{2015}) \times 100,$

$$W_i^{2015} = \frac{(P_i^{2015} Q_t^{2015})}{\Sigma(P_i^{2015} Q_t^{2015})}$$

* P: 가격, Q: 수량, W: 가중치, 2015·2017 : 기준시점, t : 시점, i : 품목

3. 품목별 소비자물가 결정요인 분석

최근 소비자물가 변동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 실증분석을 수행

■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은 근원물가로,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은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로 나누어 살펴봄

-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품물가, 석유류제품과 전기·가스·기타연료를 포함한 에너지물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물가 변동요인을 추정
- 설명변수로는 수요충격을 나타내는 변수로 GDP갭률[8]을, 공급충격을 나타내는 변수로 원자재 가격과 대외요인인 원달러 환율을 사용
- 또한, 물가상승률의 시차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물가상승률의 지속성[9]을 추정

■ 분석모형은 BIS(2018), ECB(2017)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

$$\pi_t = \beta_1 \pi_{t-1} + \beta_2 y_t^g + \beta_3 com_t + \beta_4 EX_t + c + \epsilon_t$$

$$\pi_{i,t} = \beta_1 \pi_{i,t-1} + \beta_2 y_t^g + \beta_3 com_t + \beta_4 EX_t + c + \epsilon_{i,t}$$

- π_t: 소비자물가[10], $\pi_{i,t}$: 품목별 소비자물가, y_t^g : GDP 갭률, com_t: 원자재 가격[11], EX_t: 원달러 환율
- 분석기간은 1999년 1/4분기부터 2021년 1/4분기까지이며 분기별 자료를 사용
- 분석 기간 동안 물가 및 거시변수의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전환하여 안정시계열로 변환 후 분석 수행

8) 추세를 추출(HP 필터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잠재GDP를 추정하여 GDP갭률을 계산
9) Mishkin(2007), ECB(2004) 등 기존 연구에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자기회귀(AR)모형의 과거시차 계수 값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KDI(2013)의 연구를 참조하여 전기 물가상승률을 포함하여 지속성을 측정
10) 아카이케 정보기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및 베이지언 정보기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에 따라 최적시차를 1로 설정
11) 선행연구들에서는 공급측 물가변동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로 국제유가, 수입물가지수, 원자재 가격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제품, 산업용 금속, 농산물, 축산물 및 귀금속 등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S&P의 GSCI 지수를 사용(구성요소별 가중치: 에너지 61.7%, 산업용금속 10.7%, 농업 15.9%, 축산 7.3%, 귀금속 4.5%)하여 다양한 원자재의 영향을 반영하고자 함

분석결과 소비자물가는 총수요압력,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총수요압력 1%p 상승 시 해당 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9%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원자재 가격과 환율 1%p 상승 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0.02%p, 0.03%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실증분석 결과

	소비자물가	식료품	농축 수산물[13]	가공식품[14]	에너지	근원물가[12]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총수요 압력	**0.188*** (0.056)**	0.048 (0.198)	-0.037 (0.310)	0.059 (0.122)	0.102 (0.395)	**0.146*** (0.036)**	-0.012 (0.082)	**0.206*** (0.049)**
원자재 가격	**0.018*** (0.003)**	0.010 (0.011)	-0.012 (0.017)	**0.044*** (0.007)**	**0.166*** (0.021)**	**0.008*** (0.002)**	0.002 (0.004)	**0.010*** (0.003)**
환율	**0.029*** (0.006)**	**0.059*** (0.021)**	0.020 (0.034)	**0.129*** (0.011)**	**0.688* (0.329)**	**0.021*** (0.004)**	0.004 (0.008)	**0.021*** (0.006)**
시차변수	**0.688*** (0.050)**	**0.643*** (0.071)**	**0.652*** (0.078)**	**0.638*** (0.048)**	**0.430*** (0.058)**	**0.740*** (0.043)**	**0.629*** (0.053)**	**0.800*** (0.045)**
R^2	0.826	0.606	0.534	0.910	0.811	0.872	0.840	0.859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 )안은 표준편차

개인서비스를 포함한 근원물가가 총수요압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물가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근원물가는 총수요압력 1%p 상승 시 0.1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과 원자재 가격 1%p 상승 시 각각 0.02%p, 0.01%p 높아짐**

- 근원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수요 및 공급측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정부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 개인서비스는 총수요압력의 계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의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남

12)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13) 농축수산물 중 인삼과 생화를 제외한 품목은 모두 식료품에 포함
14) 가공식품 중 식료품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 홍삼, 건강기능식품, 주류

■ **석유제품 및 전기·수도·가스 등이 포함된 에너지물가의 경우 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 원자재 가격과 환율 1%p 상승 시 에너지물가는 각각 0.17%p, 0.69%p 상승

■ **식료품물가의 경우 환율을 제외하고 수요압력이나 원자재 가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상여건 등 외부환경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는 농축수산물은 자기시차변수를 제외한 설명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반면, 주요 원재료인 곡물의 수입의존도[15]가 높아 국제곡물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원자재가격과 환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시차변수로 측정되는 지속성은 개인서비스 등 근원물가에서 높았으며, 에너지물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

■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등이 포함된 근원물가의 시차변수 계수는 0.74로 물가상승의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에너지물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의 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상의 추정결과 및 총수요압력, 원자재 가격, 환율에 대한 가정을 토대로 2021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전망

■ **총수요압력은 국회예산정책처 내부 실질GDP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3/4분기와 4/4분기 각각 0.44%, 0.48%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

■ **원자재 가격과 환율은 블룸버그의 투자은행 전망치 평균을 이용**

- 원자재 가격은 3/4분기와 4/4분기 각각 49.1%, 41.7%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16]
- 원달러 환율은 3/4분기와 4/4분기 각각 7.2%, 1.8%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

■ **식료품, 에너지, 근원물가 각각에 대해 추정한 모형을 토대로 각각의 상승률 전망치를 소비자물가에 대한 가중치[17]를 이용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산출**

15)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 밀 0.7%, 대두 26.7%, 옥수수 3.5%(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6) 원자재 가격 전망은 에너지(WTI, 브렌트유), 산업용금속(알루미늄, 구리), 농업 및 축산(옥수수, 대두, 소맥), 귀금속(금) 각각의 투자은행 평균 전망치에 대해 S&P GSCI 지수에서 가정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
17) 식료품, 에너지, 근원물가의 가중치는 각각 137.6, 76.5, 7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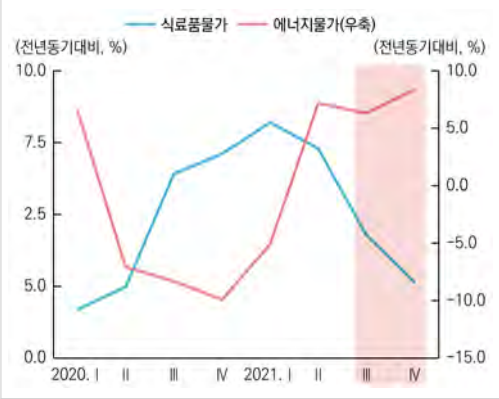
■ **전망 결과 2021년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1.9% 수준을 나타낼 전망**

- 부문별로는 식료품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나 에너지물가의 상승폭이 확대
- 근원물가는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지며 1% 초반 수준을 나타낼 전망

[그림 13]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전망

주: 음영부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그림 14] 식료품물가와 에너지물가 전망



주: 음영부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4. 결론 및 시사점

2021년 들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도 물가상승목표에 근접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 **모형을 통한 전망결과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상반기 1.8%, 하반기 1.9%로 2021년 연간 1.8% 상승할 전망

■ **기저효과와 유가 급등으로 2%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보인 2/4분기(2.4%)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나, 반기 기준으로 2017년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품목성질별로는 식료품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나 근원물가와 에너지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낸 식료품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로 에너지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식료품물가는 지난해 높은 물가수준의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농축산물의 수급이 점차 안정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기상여건 악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수요 증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도 상존
- 에너지물가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하반기 중에도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

■ **근원물가는 2015년부터 둔화세를 지속해왔으나, 2021년 상반기 중 1.1% 상승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1.2%로 오름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 근원물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수요가 회복되면서 개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수요압력에 대한 반응과 지속성이 높아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총수요압력 확대로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공공서비스는 무상교육 추가시행의 효과가 축소되고 지난해 통신비 지원으로 큰 폭 하락하였던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관리물가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축소될 전망

최근의 물가상승은 지난해 낮은 물가의 기저효과 및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압력 확대 등 비교적 단기적인 충격에 따른 것이나 향후 근원물가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상반기 물가상승은 기상악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축산물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기인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반면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경기회복세가 강화될 경우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며 기조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1년 7월호 | 통권 제19호

발행일 2021년 7월 26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 국회예산정책처, 2021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경제 통계

예·결산 심사연혁 제공

국제통계 (OECD·IMF 등)

북한통계

* NABOSTATS의 모든 통계정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엄선된 주요 통계는 매년 경제재정수첩, 조세수첩 등 책자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28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